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4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45호 2017년 4월 26일 수요일

봉축 D-7, 지극한 마음으로 연등 올립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사찰에서는 세상의 어둠과 고통을 걷어내며,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새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달기가 한창이다. 화창한 봄날, 사찰에 걸리는 형형색색의 오색의 연등으로 파란 하늘은 알록달록하게 물들어 간다. 부처님오신날을 10여일 앞둔 4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한 종무원이 불자들의 소원을 담은 연등을 조심스럽게 달고 있다. 하나둘씩 걸리는 연등과 함께 불자들의 마음도 환희심으로 채워져 간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집단지성 구현해 위기를 기회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18일 출범… 사업 추진 본격화

본부장 도법 · 호성 · 금곡 스님
연구소 등 5개 산하조직 갖춰
미래세대委, 준비위원회 구성

올해 첫 사부대중공사도 실시
포괄적 주제 다뤄 결의는 無
2차 대중공사 6월 29일 예정

한국불교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백년대계를 모색하는 조계종 공식 기구가 출범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공동본부장 도법 · 호성 · 금곡)는 4월 18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한국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2017년 제1차 사부대중 공사'를 봉행하고, 본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백년대계본부는 조계종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주요 종단과제 중 하나로 기존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를 계승 · 전환한 총무원장 직속기구다. 본부 산하에는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일감) · 대중공사추진위원회(위원장 호성) ·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 종책개발위원회(위원장 금곡) · 미래세대위원회(준비위원장 심산) 등 5개 조직을 두고 있다. 신설조직인 종책개발위는 중앙종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미래세대위원회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위원 섭외에 나설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종단은 더욱 근본적이고 오래 묵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바로 공동체 기본 구성요소인 스님과 신도, 사찰과 관련한 근본문제이며 종단 운영시스템에 대한 사항이다. 종단 각종 통계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한 해 출가자가 156명으로 연간 출가자 총인원 200명 선이 무너졌다. 출가자 평균연령은 40대이고, 승려 중 50대 이상이 70%에 이른다. 출가인원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신도들 현황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국불교가 직면한 현실을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엄중하고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백년대계본부를 구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진지한 경청과 탁마를 통해 찾아가는 백년대계본부의 소중한 의미와 앞으로의 실천이 우리 종단과 사부대중, 그리고 우리사회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백년대계본부 공동본부장 호성 스님은 "현대인들이 명상과 수행, 힐링 등 종교적 욕구가 높은 반면 제도화된 기존의 종교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높아진 종교욕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며 "사부대중이 주체가 되는 불교, 대화와 토론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불교, 집단지성이 역동하는 불교의 길을 가야 한다. 당장은 역량도 미약하고 대중의 신뢰도 부족하지만 한국불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발걸음은 뚜벅뚜벅 나아가야 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중앙종무기관장 스님을 비롯해 각 부실장, 중앙종회의원 등 중진스님과 재가포교신행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백년대계본부 출범식에 이어 사부대중공사 발원문을 낭독하고, 제1차 사부대중공사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앞서 자승 스님은 백년대계본부 각 위원장 도법 · 호성 · 금곡(흥천사 정념) 스님을 공동본부장으로, 사무총장 일감 스님을 불교사회연구소장으로 임명했다.

오후에 진행된 사부대중공사는 현재 한국불교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공감하는 수준으로 막을 내렸다. 위원들은 '한국불교 위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 아래 개개인의 견해를 짤막하게 교환했다.

백년대계본부는 오후에 2시간가량 모둠토론을 진행한 뒤 각 모둠별 결과를 발표했다. 주제가 광범위한 만큼 △한국불교의 변화 방향 △사찰의 역할 △제도개선 △사회참여 △열린 불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한국불교 변화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1모둠은 재가자 역할 및 참종권 확대 · 출가부터 열반까지 생활불교 역량 강화를, 2모둠은 계층 맞춤형 불교 · 스님 전문성 강화 · 도심사찰 성공사례 분석을, 3 · 4모둠은 출가자의 엘리트화 · 출재가 역할분담 · 재산공개 및 인사투명화를, 5모둠은 삶의 현장과 함께하는 불교 · 전법역량 및 승려복지 강화를, 6모둠은 마음을 치유하는 불교 · 시대 맞는 수행방법론 개발 등을 제안했다. 다양하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토론 주제가 광범위해 집중도가 떨어지고, 토론시간 부족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점은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백년대계본부는 이날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후 대중공사 주제를 좁힐 것을 밝혔다. 2차 대중공사는 6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세계 첫 신문 '조보' 문서 발견

지봉 스님, 19일 공개… 5일치 8장 분량

선조 10년(1577) 음력 11월 28일. 선조는 조정 신료들에게 "내가 우연히 조보(朝報)를 보건대 매우 우려할 일이다. 끝까지 추문해 엄히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꾸짖는다. 이에 조정은 조보 발행에 참여한 30여 명을 잡아 추문하고 형벌을 내렸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됐던 세계 최초의 신문 '조보'의 유일한 기록이다. 이 같은 기록을 통해 조선 중기에 이미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음이 추정됐지만, 그간 실물이 나오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보'의 실물로 추정되는 문서가 서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의 노력 끝에 발견됐다.

영천역사문화박물관장 지봉 스님은 최근 고서적 경매사이트에서 입수한 '조보' 실물을 공개했다.

지봉 스님이 입수한 조보는 8장. 1577년 음력 11월 6일, 15일, 19일, 23일, 24일 총 5일치 분량이다. 내용도 다채롭다. 6일자에는 인성 왕후의 안부를 묻는 내용, 왕과 신하가 학문을 논하는 경연이 열리지 않다는 기록이 담겼다. 15일자에는 소 수백 마리가 역병으로 죽었다는 소식, 23일자에는 날씨와 별자리까지 기록돼 있다. 심지어는 조정 신하들의 인사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조보는 지금의 일간지처럼 매일 활자 조판으로 발행됐고, 사대부부터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인 계층에게 판매됐다. 사실상 민간 주도 일간 상업지였다는 것이다. 특히, 조정의 소식을 담기면서 사대부와 지식인 계층에게 정치에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백성에게도 나라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다.

입수된 '조보' 문서가 공인될 경우 한국은 세계 최초 신문을 발행한 국가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은 독일에서 1660년에 발행된 '라이프치거 차이퉁(Leipziger Zeitung)'이 세계 최초 신문으로 공인돼 왔다. 조선시대 조보의 발행은 이보다 83년 빠르다.

영천역사문화박물관장 지봉 스님은 "그간 조보는 실록 기록만 있을 뿐 실물이 확인되지 않아 공인받지 못했다"면서 "조보 문서가 공인될 경우 조선은 역사상 최초로 민간 상업 일간지를 발행했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보 첫 확인, 의미 높아"
獨서 나온 신문보다 앞선
1577년 발행, 일간지 표방
국정부터 날씨까지 담아내
선조 격분…3개월만에 폐간

하지만, 조보는 선조의 분노로 발행 3개월 만에 폐간됐다. 지봉 스님은 "왕권 기반이 약했던 선조는 조정의 소식이 가감 없이 백성과 외국에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라며 "민간 조보의 발행은 당시 조정의 큰 사건이었다. 기자와 판매원이었을 30여 명의 사람들이 추문을 당하고 형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보를 입수한 사람들도 숨길 수 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역사에서 잊힐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천역사문화박물관장 지봉 스님이 공개한 '조보' 중 일부. 실물로 공인될 경우 세계 최초 신문으로 인정받는다. **사진 제공= 지봉 스님**

선운사
삼사순례 안내

삼사 성지순례는 영험깊은 기도도량을 순례하며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 지극한 심신으로 업장소멸을 다짐하는 불교의 오래된 풍속입니다.

강학과 수선도량 선운사는 미륵지장기도성지 **도솔암**과 참회수행도량 **참당암**이 자리잡고 있어 성지순례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경내에 **대형저수지(도솔제)**가 자리잡고 있어 방생법회와 삼사 성지순례의 명소입니다.

유서깊은 기도도량의 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1코스 : 선운사 ⇨ (5분) ⇨ 도솔제(방생)(5분) ⇨ 참당암(5분) ⇨ 도솔암

2코스 : 도솔암 ⇨ (5분) ⇨ 도솔제(방생)(5분) ⇨ 문수사(고창) ⇨ 내소사(부안)

오시는 길

- 서울출발 : 경부고속도로 → 천안 논산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부산출발 : 남해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대구출발 : 88올림픽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사전 연락주시면 사찰안내 및 방생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 대형버스 진입가능.


선운사 강학과 수선 도량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해동 제일 미륵 · 지장보살 성지


청량산 문수사(문수보살 기도성지)


능가산 내소사(서해제일 관음기도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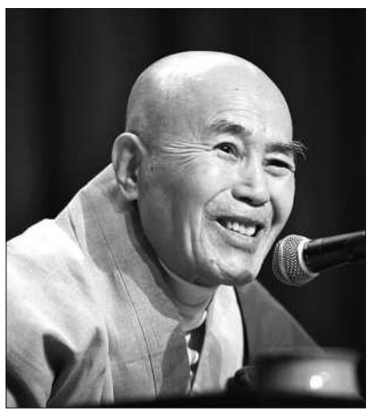

참당암 참회수행도량


방생 최적지 도솔제 (경내 차량 5분거리에 위치)

■ 문의 : 선운사 종무소 063)561-1422 / 도솔암 063)564-2861 / 내소사 063)583-7281 / 문수사 063)562-0502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http://www.seonunsa.org/

"극단의 시대엔 '中道' 진리가 필요하다"

(사)고요한 소리, 15일 창립 30주년 법회 · 중도포럼


대중법문을 하는 활성 스님. 스님은 부처님 생애에 주목하며 중도를 강조했다.


(사)고요한 소리 30주년 법회엔 수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통해 설한 사성제와 핵심인 팔정도, 이를 실천하는 사상인 중도의 의미를 되짚고 현대적 구현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초기불교 대중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불전원전 번역단체인 (사)고요한 소리(공동대표 하주락 · 변영섭)는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와 중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사)고요한 소리 창립자이자 회주인 활성 스님이 처음으로 대중법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자신의 출가 인연담, (사)고요한 소리 창립 이유를 설명하고 사성제 · 팔정도 · 중도 등 불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 설했다.

선지식이 전한 중도의 의미

먼저 활성 스님은 자신의 출가 이야기 등을 풀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기자 생활을 하던 활성 스님은 휴가를 받아 경봉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통도사 극락암에 갔다. 당시 경봉 스님은 "한 생 안 난 셈치고 살아라"라는 말을 해줬다. 휴가를 마치고 부산에서 친구를 만나 회포를 풀고 다시 상경했다. 하지만 2일 뒤 화재로 친구와 일가족은 전부 사망했다.

활성 스님은 "신문 기사를 보며 '사는 것이 무상하다', '이런 것도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 난 셈치고 살아라'라는 경봉 스님의 말이 걸렸다. 결국 출가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사)고요한 소리 창립에 대해서는 '불교 중흥'과 '동량'이라는 두 키워드로 풀어냈다. 활성 스님은 "경봉 스님은 사미계를 주면서 '불교 중흥의 동량이 돼'라고 했다. '중흥'과 '동량'은 내 원력"이라면서 "봉암사 산문 폐쇄와 10.27법난 수습 등은 출가사문으로서 종단에 대한 빚을 갚은 것이고, 부처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시작된 게 (사)고요한 소리"라고 밝혔다.

활성 스님 첫 대중법문 '눈길'
사성제 · 팔정도 · 중도 등 설해
'중도' 주제로 한 포럼도 열려
초기불교 · 과학 등서 중도 이해

동 · 서양 각 문명권마다 '중(中)'의 개념은 존재했음을 전제한 스님은 중도와 중용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스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메소테스(Mesotes)'는 중간에 치중하다 보니 산술적으로 외연이 확장됐고, 물리학적 과학기술로 발전해 세상을 이끌었다. 중국의 '중용'은 '중을 항상 견지하는 것'인데 이는 추상적 개념으로 당위론적 가치로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상화되고 극단으로 가는 것은 중의 숙명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속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면서 "부처님이 설한 '맛지마 빠띠빠다(majjhima patipada)'는 '중을 지향하는 걸음(中道)'이다. 중이 추상화 · 극단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팔정도'를 따를 것도 당부했다. '중도'는 중과 도, 두 개념이 결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활성 스님은 길 위에서 일생을 보내며 깨달은 바를 시연했던 부처님의 생애에 주목했다. 스님은 "부처님은 궁이 아닌 길에서 태어나고, 길을 향해 뛰쳐나갔다. 길에서 수행하고 깨달았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길 위에서 평생 가르치고, 길 위에서 열반했다"면서 "부처님은 처(處)와 도(道)를 구분했다. 처는 집이고 도는 집을 벗어나서 향상일로를 걷는 것이다. 향상의 삶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중도를 실천하는 길은 무엇일까. 스님은 팔정도에서 해법을 찾는다. '모든 것은 고(苦)'를 상기시킨 활성 스님은 "지구온난화, 사막화, 지진 등 재해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게 전부"라며 "팔정도는 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며, 구체적 문제해결의 길"이라고 설했다.

팔정도가 팔정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념' 즉 마음 챙김이며, 이를 통해 극단을 가져오는 '상(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스님은 강조했다.

또한, 현대라는 격변기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과 진리관이 필요함을 역설한 스님은 "진리로서의 사성제, 그 사성제의 핵심인 팔정도, 팔정도의 실천으로써의 중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학자들이 말하는 중도

기념법회 이후 열린 중도포럼에서는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중도적 고찰부터 초기불교 안에서 중도 실천 · 수행 등이 조명됐다.

양형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는 '진화하는 자연의 시공간적 연기구조와 중도'를 통해 현대과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의 중도 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살폈다. 그는 "무상이고 무아인 존재자가 상입하며 펼치는 창발적 연기에 의해 진화하는 세계가 펼쳐진다"면서 "이런 자연세계에서 보여주는 시공간적 연기구조가 무상이고 무아며, 연기고 화엄이며, 중도"라고 밝혔다.

홍창성 미네소타주립대 철학과 교수는 '화쟁과 정도 그리고 중도'에서 최대 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 산출의 원리가 현 시대에 맞는 중도의 원리임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서양의 공리주의와 법칙주의 그리고 불교의 이상을 화쟁해 도달한 '깨달음 산출의 원리'를 중도를 찾는 구체적이면서 포괄적 원리로 제안한다"면서 "최대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 산출의 원리는 자연스럽게 팔정도를 포함하며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불자로서의 길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끌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긍정성 과잉의 문제와 중도'를 주제로 발표한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대량실업, 취업난, 트럼프 쇼크, 브렉시트, 국정농단 등의 현 상황을 되짚고 "중도는 '지금 여기'를 일깨움과 더불어 거룩한 진리를 완성해 나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의 '중도의 이해 틀에 관한 고찰', 이유미 스리랑카 캘라니야대학 불교철학 박사의 '니까야를 바탕으로 한 생활 속의 중도 실천',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의 '중도와 초기불교 수행' 등도 주제 발표됐다.

글= 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행주산성, 삼국시대 石城 있었다

불교문화재硏, 고양시 용역 시굴조사서 발견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왜군을 크게 이겼던 행주산성이 토성이 아닌 석성(石城)도 존재했음이 불교계 문화재연구기관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고양시(시장 최성)는 "사적 제56호 행주산성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굴 조사 과정서 그동안 토성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석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모습이 확인된 석성은 보축벽과 체성벽 등이며, 조성기시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된다. 성벽은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을 발라 양호한 상태로 보존돼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태선문 · 격자문 기와편, 토기편 등을 비롯해 '幸(행)'자명 기와편, 화살촉, 수레바퀴 부속품 등도 출토됐다.

고양시는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이번 발견을 계기로 내년부터 문화재청의 허가 및 지원을 받아 행주산성 석성의 축조기법 및 구조, 축성시기, 규모 등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한 전면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차사업으로 홍보관 등을 건립하여 삼국항쟁과 임진왜란 승전 중심지로서의 행주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에 나선다.

이번 석성 발견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향후 원형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와 정비 사업을 추진해 행주산성이 고양시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가족포교 위해 부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백도수 교수, 4월 19일 조계종 포교종책연찬회서 주장



"현대사회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낮아지는 요즘, 가족포교를 위해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 교수(사진)는 4월 19일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제71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현시대 가족포교 필요성과 대책'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백 교수는 먼저 "불교의 전통이 지금 세대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 법회 조직이 사라지거나 참여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족 간 법회 참석 유도의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이어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줄여야만 한다. 특히 부모가 자식들을 불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상담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불자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 교수는 불자부모의 교육을 위해서는 가족상담 및 신행 강화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가족간 역할놀이 실습, 사찰 가족봉사, 불자가족 주간 선정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백 교수는 "사찰에서 임산부법회, 사춘기 자녀법회 등 생애주기별 가족법회와 함께 가족사진 촬영 등 가족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림사 주지 현담 스님은 사찰의 가족법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성림사는 북카페와 자비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담 스님은 "연기의 관점에서 개인의 신행활동은 가족, 우리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불교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수단을 활용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며 "가족법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새로운 법회양식을 도입해야 하며, 가족들의 전체 상담과 도심지역 가정법회 등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교종책연찬회에서는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와 서울 성림사 주지 현담 스님이 발제를 했으며, 서울 금륜사 주지 본각 스님, 무안 봉불사 주지 지오 스님, 최미선 동련국장, 이기재 목동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본각 스님은 "사찰에 가족이 와 각자 계층에 맞게 시간을 보내려면 법회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기본 조건"이라며 "어린이 청소년 계층에 맞는 법회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신규) 접수 공고

신청 대상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지역가입자에 한함)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기존 가입자 포함).**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 · 관리인의 도제,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 · 관리인 · 임직원의 도제는 제외함.

지원 금액

1인당 월 36,000원(정액)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2017년 월10,800원, 2018년 월18,000원, 2019년부터는 월36,000원 지원함.

지원 신청 및 심사

신청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승적상 재적교구본사로 신청함 (기존에 지원 신청한 스님은 재신청할 필요없음).**

■ 신청기간 : ▶ **상반기 : 5월 1일 ~ 5월 31일**
▶ **하반기 : 10월 1일 ~ 10월 31일**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교구본사 : 교구본사는 접수내역을 정리하여 승려복지회로 이관함.

■ 지원심사 : 승려복지회는 교구에서 이관된 지원신청 서류마감 후 30일 이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정함 (신청과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종단 홈페이지 참조).

※ 참 고 : 2017년도부터 각 안거 결계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조계종 승려복지회 : 02-2011-1726~27, 팩스 02-733-3603

■ 기 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웃고 울어도 우리는 부처님 제자”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조계사 · 홍법사 동자승 단기출가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까슬한 머리가 간지럽다며 방금 깎은 머리를 어색한 듯 매만졌다. 그리곤 옆에 있는 도반 스님의 삭발한 얼굴을 마주하자 웃음보가 터진다. 머리를 깎는 그 순간 스님들을 향해 동자스님들이 묻는다.

“고슴도치 같이 까끌까끌거려요. 간지러워요. 이제 저희도 스님이에요?”

부산 홍법사와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단기출가한 아이들이 스님으로 거듭났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4월 18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단기출가 삭발수계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진광 · 진원 · 진오 · 진수 · 진각 · 진범 · 진능 · 진홍 · 진현 · 진명 스님 등 10명이 출가했다.

수계식에서 동자스님들은 각자의 부모가 있는 집을 향해 3배를 올렸다. 삭발이 진행되자 동자스님들은 자리에 앉아 머리를 내밀었다. 우는 스님도, 하기 싫다고 떼를 쓰는 스님도 보이지 않았다. 가만히 삭발을 받아들이며 어색해 할 뿐이다. 그리고는 금세 천진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다.

오히려 대광명전 2층에서 삭발식을 바라보던 부모들은 만감이 교차한다며 눈물을 훔쳤다. 그 후 거불과 수계자 삼배 후 참회 및 연비 시간이 되자 동자스님들의 얼굴에 안 보이던 긴장감 비쳤다.

주지 심산 스님이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하고 참회진언을 외자 동자스님들도 곧 따라 외웠다. 심산 스님

17~18일 서울 · 부산서 삭발수계
부모들 “인성교육에도 긍정적”
부처님오신날 홍보역할 ‘톡톡’

은 참회의 뜻을 동자스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며 “제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 참회 진언하며 연비 받아야겠지?”라고 말하자 동자스님들은 큰 목소리로 진언을 외었다.

진광 스님은 동자 스님을 대표해 “부처님의 바른 지혜로 복덕을 갖추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겠다. 세상을 따뜻함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발원문을 낭독했다.



삭발한 홍법사(왼쪽)와 조계사(오른쪽) 동자승들의 상반된 표정이 재미있다. 눈물과 미소가 교차하지만 천진불의 구도행은 모두 맑고 순수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들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삭발식에 참여한 이중휘(36) · 황유나(38) 씨 부부는 “씩씩하게 잘하는 모습도 보이고 방긋 웃으며 생활하는 것을 보니 한결 마음도 놓인다”고 말했다.

비구니 동자스님인 진명 스님의 할머니인 김귀남(65) 씨는 “집안 친척 아이들이 먼저 단기출가를 했는데 출가 후에 차분해지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많았다”며 “그래서 여아임에도 삭발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도 4월 19일 경내에서 ‘보리수 새싹학교’ 동자승 단기출가 행사를 개최했다. 4월 17일 입방식을 갖고 단기출가를 준비해 온 8명의 어린이들은 지현 스님을 계사로 삭발수계하고 스님이 됐다.

서울 조계사에서는 본연 · 성연 · 다선 · 다문 · 선회 · 청휴 · 정연 · 청안 스님 등 8명이 출가했다.

윤서영(36) 씨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특히 마음을 크게 키웠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삭발 후 동자스님들은 안심당에서 진행된 소외계층을 위한 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선재 스님 등 스님들과 된장을 나눴으며 4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기도 했다.

예방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철부지 부처님들”이라며 스케치북과 인형을 선물했으며, 건강하게 출가생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사에서 출가한 동자스님들은 4월 26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태릉선수촌 응원방문, 연등회 참가, 연등놀이 동참 등의 스케줄을 소화하며, 홍법사 동자스님들은 해군작전사령부, 통도사, 부산지방경찰청, 금정소방서, 부산연등축제 등에 방문하고 홍보역할을 담당한다.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생명탈핵실크로드 생명헌장 서울안 공개

5월 출정식서 공식 발표

생명 ·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 및 법률, 국제협약 등을 제정할 때 지침으로 작용할만한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초안이 공개됐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생명탈핵실크로드(공동대표 김영호 등)는 ‘2017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국제회의’를 4월 20일 안국동 W스테이지서 개최하고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초안을 발표했다.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은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과 상호공존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국가 간 협정과 교류에 적용시킬 목적으로 도출됐다.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초안은 오늘날 지구상의 생명체와 생태계는 기계론적인 자연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전쟁, 인간 중심의 사고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핵 발전과 핵무기의 확산이 인류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구와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종말을 재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인류는 환경파괴와 자원 수탈을 중단하고, 핵 발전과 핵무기 확산을 중지해야한다”고 주문한다.

생태계 위기상황 경고
지구파괴 역사 반성必
전세계 순회하며 발표

또한 열강에 대해선 “인류나 그 어떠한 조직도 지구를 독점 배타적으로 지배할 하등의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며 “인류사를 지배해온 열강은 지나온 역사, 특히 지구 파괴와 살생의 역사를 반성해야한다. 모든 지구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생태계 유지를 위해 사고와 체계의 대전환을 모색하라”고 꼬집었다.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공동발표자에는 김용복 前한일장신대 총장,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 이공현 원불교 은덕문화원장, 조은화 향린교회 목사, 김용휘 한양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윤용택 제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생명헌장 서울안 초안은 수정 · 보완을 거쳐 5월 3일 생명 · 탈핵 실크로드 출정식서 공식 발표된다. 이후 생명탈핵실크로드는 세계 주요도시에서 세계생명헌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자리엔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초안 발표를 축하하기 위해 불교사상가 술락 시바락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증도가자 논란 다시 재점화되나

다보성 측 “보물 지정 부결 부당”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여부를 놓고 7년 동안 논란이 된 고려금속활자(이하 증도가자)에 대해 문화재청은 4월 13일 보물 지정 부결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장자 측과 관련 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도가자’ 소장자인 다보성고미술 측은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은 증도가자 보물 지정 신청에 대해 부결을 발표했으나,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촉구했다.

다보성고미술 측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문화재청은 보물 지정 신청한 증도가자가 고려금속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없다고 부결처분했다”면서 “그렇다면 고려금속활자가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부결 이유 중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 “지금까지 소장자와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정을 부결한 사례가 있는지 밝히라”며 “증도가자는 이미 소장자와 출처를 밝혔음에도 그것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남권희 경북대 교수와 유부현 대진대 교수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화재청의 조사에 대해 반박했다.

남 교수는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중 금속성분과 먹의 탄소연대 측정에서는 ‘증도가자’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시대 금속활자의 번각본이 대단히 많고 시대차가 많음에도 의도적으로 정교함이 높은 활자로 비교해 상대적인 유사도를 낮게 보이도록 왜곡하고 있다”며 “증도가는 11명이 나눠 새긴 것이어서 획의 위치와 각도, 굵기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증도가자’ 중 일부는 활자 크기가 커서 조판이 불가능하다는 문화재청 연구 결과에 “활자본은 번각본보다 먹선 테두리가 더 크고,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며 “증도가 번각본 테두리 중 가장 큰 것에 1㎝만 더하면 조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佛法 전하는 길에 매진할 것”

조계종 교육원, 3급승가고시 일참 · 원효 스님 수상 영예

처음으로 설법 면접이 진행된 조계종 3급 승가고시의 성적 우수자에 대해 포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4월 18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3급 승가고시 성적 우수자인 비구 일참 스님과 비구니 원효 스님의 표창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을 진행한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은 “현대사회에는 내면을 성찰하는 수행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도 두루 폭넓게 갖춰야 한다”면서 “승가 발전이라는 불퇴전의 원력으로 앞으로도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성적 우수자 표창을 받은 일참, 원효 스님은 처음 도입된 3분 설법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참 스님은 불살생계 실천을 통해 식육하지 않는 방법을, 원효 스님은 자연계 현상을 연기법을 통해 설명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조계종 고시위원장(가운데)과 성적 우수자 표창을 받은 일참(오른쪽) · 원효 스님.

우수 표창에 대해 일참 스님은 “가사의 무게를 새삼 느낀다. 처음 출가하며 받은 오계와 사홍서원의 큰 원력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겠다”면서 “젊은 세대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인재불사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원효 스님은 “생명과학 등을 통해 불교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 분야의 전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일참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봉암사 태고선원, 동화사 금당선원, 정혜사 능인선원, 송광사 조계선원, 성륜사 금강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했다.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원효 스님은 현재 동국대 일반대학원 생명과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서울대 치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등 포교원 대학생 전법단 지도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3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136명, 비구니 89명 총 225명의 스님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김영사

행복한 마음연습, 김영사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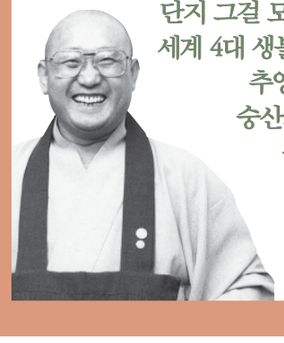
TEL.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부처를 쏴라
숭산 | 현각 엮음 | 양언서 옮김 | 289쪽 | 15,000원

선의 나침반
숭산 | 현각 엮음 | 허문명 옮김 | 484쪽 | 18,000원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단지 그걸 모를 뿐!”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 받은 숭산스님의 목소리





수불스님이 대중을 위해 쉽게 풀어 쓴 황벽선사의 〈전심법요〉 길라잡이
흔적 없이 나는 새
수불 | 604쪽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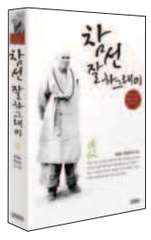


초의선사 〈동다송〉을 통해 만나는 우리 차 문화의 진수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원학 | 284쪽 | 18,000원

2014 불교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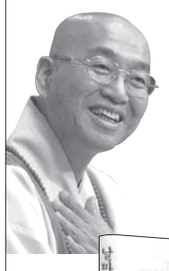


사부 니까야와 사아함경의 핵심을 단 한 권으로 담아낸 불교의 바이블
수트라
비구 범일 | 508쪽 | 27,000원



성철스님의 가르침과 그 의미를 스물일곱 인연을 따라 오늘에 되살리다
참선 잘하그래이
김형효 · 한승원 외 지음 | 392쪽 | 15,000원

‘내가 옳다’는 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정과 직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날마다 웃는 집
법륜 | 224쪽 | 10,800원

행복한 출근길
법륜 | 220쪽 | 10,800원



진실에 눈뜨게 하는 명쾌한 안내서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 800쪽 | 28,000원

가장 쉽게 연기론을 이해하는 길라잡이
연기맵이면 누구나 깨닫는다
백창우 | 212쪽 | 13,000원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괴로움의 근본 ‘나’를 벗어나는 가르침
백성욱 | 김원수 엮음 | 225쪽 | 10,000원

행복한 공부
밝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마음공부의 핵심
김정섭 | 162쪽 | 8,000원

불타의 세계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사상 · 문화를 한 권에!
나카무라 하지메 | 김지견 옮김 | 544쪽 | 49,000원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달라이 라마, 하워드 커틀러 | 류시화 옮김 | 352쪽 | 12,800원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달라이 라마 | 이현 옮김 | 248쪽 | 13,500원

오늘도 두려움 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다루는 구체적인 수행법
틱낫한 | 진우기 옮김 | 224쪽 | 12,000원

좋은 사람으로 사는 법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성제와 팔정도
틱낫한 | 유향란 옮김 | 288쪽 | 12,000원

슬프고 웃긴 사진관
물리학도 출신의 승려가 터득한 축복의 메시지
아잔 브람 | 각산 엮음 | 296쪽 | 13,000원

선심초심
미국에 선 수행의 돌풍을 일으킨 친절한 안내서
스즈키 순류 | 정창영 옮김 | 260쪽 | 13,000원

일 주 문



불암사 '별내동 효잔치'

일면 불암사 회주 스님은 4월 17일 남양주 별내 불암사에서 '별내동 효잔치'를 개최했다.



동국대 선수행자 과정 개설

수불 동국대 국제선센터장 스님은 5월 2일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선수행자 과정'을 개설해 진행한다.



은평구 봉축탑 점등식

성운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 회장 스님은 4월 19일 은평구청 광장서 원각사지 10층탑과 아소카왕 석주를 본뜬 봉축탑을 점등했다.



법주사 거사림회 창립

정도 보은 법주사 주지 스님은 4월 11일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180여 명으로 구성된 법주사 거사림회를 창립했다.



마곡사 제14회 신록축제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4월 22일 경내 일원에서 가수 한영애, 마야, 박강성 씨 초청 제14회 신록축제를 개최했다.



고양연등문화축제 개최

대오 고양 흥국사 주지 스님은 4월 27일 오후 6시 고양시 중앙공원에서 제15회 고양연등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참불선원 4주년 기념법회

각산 서울 참불선원장 스님은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치동 참불선원서 개원 4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송파구립 어린이집 개원

해성 연화원 대표이사 스님은 4월 11일 서울 송파구립 위례아이파크어린이집을 위탁받아 개원했다.



정토원 국운융창 기원 점등식

선진규 봉화 정토원장은 4월 19일 정토원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운융창 기원 점등식을 개최했다.



불교상담개발원 부원장 임명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주임교수는 4월 20일 불교상담개발원 이사회서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2017 조계종 불자대상 안동일 등 4명

정상석 · 금나나 · 이용대, 5월 3일 조계사 봉축법요식서 시상



사진 왼쪽부터 안동일 이사장, 정상석 시인, 금나나 박사, 이용대 선수

불기2561(2017)년 조계종 불자대상에 안동일 동산반야회 이사장, 정상석 시인, 금나나 박사, 이용대 배드민턴 선수가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19일 불자대상 수상자 선정 회의를 개최, 수상자로 이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안동일 불자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조계종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각종 소송 및 법률문제 해결 등 종단 행정에 기여했다. 중앙신도회 고문, 한국재가불자연합 상임회장,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 1998년 이후 19년간 전국염불만일회와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을 이끌며 불교포교와 신행, 불교문화 발전에 정진해오고 있다.

정상석 불자는 뇌병변으로 인한 중증장애에도 문학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대표적인 불자 시인이다. 장애인불자모임 '보리수아래'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작사가로서 사회재활을 돕는 음반제작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금나나 불자는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 생화학과 입학 후 현재 보건대학원 질병역학 및 영양학 박사로 활동 중이다. 생명과학자 커뮤니티 브릭이 선정한 '2015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인터뷰 · 강연 · 저서 등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힘과 지혜를 줬는지 대중에게 진솔하게 전달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불교에 더욱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용대 불자는 체육계를 대표하는 배드민턴 선수로서 각종 대회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2013년부터 중앙신도회 행복바라미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며, 돈독한 불심으로 불교계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된다. 불자대상은 사회 각계서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과 불교 위상을 널리 알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불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2004년 처음 시행된 이래 올해 14번째다. 지난해에는 허영범 대구지방경찰청장, 국악인 남상일 씨, 양학선 체조선수가 수상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이웃 위한 마음, 장학 실천으로 전해요"

장학기금 3000만원 기부한 연꽃모임 회장 이대원성 보살



"사람이 보배입니다. 항상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연꽃모임도 이런 사람에 대한 자비심에서 시작했습니다. 내생장학회 451명 회원들의 마음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합니다."

40년간 수행과 기도, 자비실천을 펼쳐온 부산 연꽃모임(회장 이대원성 · 사진)이 4월 17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장학기금으로 아름다운동행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

연꽃모임은 1977년 기도와 자비나눔을 매개로 이대원성 보살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불자들이 결성한 수행공동체로 1990년 연꽃장학회를 결성, 승가장학금과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자비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2016년 4월 18일 내생장학회를 출범, 451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온 결과다.

이대원성 보살은 "평생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날 다른 이들을 위해 축원을 하자는 화두가 생겼다. 스님들도 평생 우리 재가신도들을 위해 축원하는데, 우리 재가신도들도 스님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마음도 있었다"며 "내생장학회 출범 후 회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정해진 회비 만을 받기에 보다 많은 기부를 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가입한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도 함께 했다. 심산 스님은 "연꽃모임은 40년 동안 봉사회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교도소 위문과 노숙자 쉼터 봉사 등 활동을 펴온 단체"라며 "꾸준한 활동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 귀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대원성 보살은 "매일 회원들의 이름이 적힌 책자를 갖고 예불마다 축원을 올린다. 그동안 스님들이 재가자를 위해 축원을 해줬지만, 정작 스님들을 축원하는 재가자는 없었다. 내생장학회를 계기고 스님들을 위한 기도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장학회에 수불 스님과 심산 스님 등 스님 20여 명도 동참했다"고 소개했다.

이대원성 보살은 "자비의 마음으로 남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축원"이라며 "그것이 행동이 되면 장학금도 되고 봉사도 된다. 공덕은 바로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보다 많은 이들이 자비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교종, 제2회 법계 품서식 봉행



대한불교선교종(총무원장 삼주)은 4월 17일 종단 총무원(대전 중구)에서 '제2회 종단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품서식에서는 종정 법운 스님, 법계위원장 용암 스님, 이사장 화엄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100여명이 동참했으며 법계위원장 및 법계위원의 엄격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17명의 스님이 법계를 품서했다.

총무원장 삼주 스님(양산 적조암)은 대종사 법계를 재성 스님(부산 보은정사)외 4명이 종사, 보각 스님(구미 지장사)외 4명이 종덕, 동덕스님 외 6명이 법계를 각각 품수했다. 한편 최혜숙 원장(수도암, 자비실천회 나눔회장)에게 종정 스님의 공로패가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행복바라미, 대구 도심서 펼쳐져



행복바라미 지역문화제가 4월 18일 대구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펼쳐졌다. 동화사 신도회 주최로 열린 이번 지역문화제에서는 마술공연과 대금 연주, 아코디언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문화제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을 비롯해 류병선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도회장, 함판덕 동화사 신도회장, 최길영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기부에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신흥사 리투아니아 템플스테이



속소 신흥사(주지 우송)는 4월 7~8일 리투아니아인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들은 차담과 명상, 비선대 산행 및 예불 등을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신흥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여름특별스테이 '여름, 설악의향기'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4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정연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사진 왼쪽)과 이금석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사진 왼쪽 두번째) 등이 시타를 하고 있다. 이날 대회는 궂은 날씨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티오프 전 밝은 표정으로 화이팅을 외치는 참석대중들.



클럽하우스에 걸린 자선 골프대회 기부자명단은 오가는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서 수상한 참가자가 환호한다.

春雨도 막지 못한 '자비의 티샷'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4월 18일 제1회 생명살림 자선골프대회 현장

봄비가 대지를 적신 4월 18일, 쌀쌀한 날씨에도 자비심을 담은 타구는 힘차게 창공을 갈랐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신도회장 이금석) 주최 '제1회 생명살림 자선골프대회'가 양평 TPP G.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봄기운이 아직 완연하지 않았고, 궂은 날씨로 대회 참가가 어려운 와중에도 생명살림에 동참하기 위해 라운딩에 나선 참가자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힘차게 티샷을 날렸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축구 등 생활스포츠를 매개체로 다양한 대회를 열어왔지만 골프를 주제로 대회를 연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재계, 문화계 불자들을 비롯해 사찰 신도 임원 등 총 144명이 참가했다. 36개조로 나뉘어 18홀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 조계종 직할교구 사무처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뱅골프코리아에서 골프백을 후원하는 등 각계에서도 관심을 표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시작 전 불교포교 활성화와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도 쾌척해 대회 취지를 드높였다. 그린피와 캐디, 카트피, 식대 등을 합한 참가비용은 1인당 30만원, 여기에 직할교구신도회 임원들은 100~300만원 씩 성금을 기부했다.

남양주 보현사에서 온 김홍범 씨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친목 도모 겸 자선 골프대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불교신자들이 그동안 소극적인 면이 있지만 뭉쳐서 힘을 발휘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큰 힘이 나온다. 다양한 취미를 연결고리로 불자들의 역량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회를 준비한 강정옥 직할교구신도회 팀장도 "바자회 등에 비해 참가열기가 높은 편"이라며 "함께 운동을 즐기며 기부도 할 수 있기에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불교포교 · 결식아동 돕기 취지
각계 144명 모여 3000만원 기부
우천 중단에도 "뜻깊다" 소감 밝혀

식사를 마친 대중들이 클럽하우스에 모여들자 곧 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시타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불자 대중들은 '생명살림 파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기원했다. 시타는 정연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과 이금석 직할교구신도회장, 지승동 직할교구신도회 고문, 김진학 율립건설 대표이사 등이 맡았다. 티오프 선언과 동시에 이들은 힘차게 공을 날렸다.

잠시 후 각 조별 경기가 시작됐다. 카트에 나눠 탄 이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티오프 후 코스마다 호쾌한 타구와 함께 밝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만난 듯 반갑게 안부를 물으며 화합의 장을 만드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의 열정이 뜨거웠지만 대회를 계속 진행하기에는 점점 어려움이 커져갔다. 전날부터 예고된 봄비가 대회 시작 직후 골프코스 곳곳에서 흩날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바람까지 거세지며 참가자들은 경기를 소화하기 어려워졌다.

비를 피하느라 경기가 중단, 계속되기를 반복하다, 결국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당초 18홀이었지만 결국 9홀로 축소, 대회가 중간에 멈췄지만 자선의미로 참가한 이들의 표정은 밝았다. 참가한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회를 마무리 했다. 직할교구 측도 최저타상, 최다버디상 등을 준비했지만, 상명을 바꿔 가장 먼 곳에서 온 참가상 등을 수여했다.

정연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비가 와서 불편했지만, 생각을 바꾸면 생명살림의 비가 내려 대회 취지와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선의 의미로 모였기 때문에 날씨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총 3000만원의 성금이 모연됐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는 이번 대회에 앞서 동국대 일산병원에 환우돕기로 500만원, 고양시 이주민가정 돕기 500만원 등을 후원했으며 모연된 기금을 바탕으로 결식아동돕기 등에 나설 계획이다.

양평=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포츠로 신도 네트워크 결집 앞장"

이금석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생명살림 자선골프대회 대회장에서 만난 이금석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사진〉은 생명살림을 위한 기부에 관심을 갖고 참가한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행보에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금석 직할교구신도회장은 "이번 자선대회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특히 결식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교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불자들이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골프는 최근 보급화하며 생활체육종목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의외로 불자분들 중에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아 호응이 좋았다"며 "기독교계에서는 골프 등을 이용해 좋은 목적의 자선대회를 자주 연다고 한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대회가 자주 열린다면 불자 및 신도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금석 회장은 "집중과 균형감 등을 요하는 골프는 인성과 지성을 함양시키고 건강도 도모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자선대회를 통해 자비실천에도 동참하고 소외계층도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대회에 불자들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소개 받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개최한 대회에 참여하며 포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불심으로 달래요”

이주민단체들,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봉축법회


스리랑카 불자들이 5월 7일 열리는 봉축법회서 사용될 전통등을 만들고 있다.

부처님 신날을 앞두고 한국의 이주민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불자들은 불교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천태종 인천 황룡사(주지 갈수)는 4월 16일 3층 대법회에서 베트남불교 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에는 베트남 불자 700여 명이 모였다. 천태종은 2015년 부산 삼광사, 2016년 청주 명상사에 이어 베트남 불교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4월 7일 부산 삼광사에서 2박 3일간 남부지역 법회가 열렸으며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황룡사에서 중부지역 법회가 열렸다. 법회에서는 수료증 증정과 감사패 수여, 퀴즈대회 시상식 및 독일 벤짝사 주지 틱느디엔 스님의 법문 등이 진행됐다. 황룡사 주지 갈수 스님은 “고향이 그립더라도 이 시련을 이겨내면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베트남 불자들을 위로했다.

이에 앞서 **캄보디아불교센터(대표 린사로)**는 4월 2일 안산 감골시민홀에서 ‘캄보디아 쫄쯔남 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쫄쯔남 축제에는 캄보디아불교센터 린사로 스님과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포우끙 · 이엔에인 스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해 타국생활에 지친 마음을 달랬다.

서울네팔법당(주지 쿤상)은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원동 네팔법당에서 네팔 이주민들을 위한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쿤상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이라고 해도 공장이 쉬지 않는 곳이 많아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법회를 위해 네팔에서 카말까망 스님이 방한해 법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 스리랑카마하보디사(주지 와치사라)도 5월 3일 양주 마하보디사에서 스리랑카 이주민을 위한 법회를 열며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도 5월 7일 부처님오신날과 캄보디아 쫄쯔남 축제를 겸한 행사를 개최한다.

김현덕 마하이주민단체협의회 간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이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며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 한국마하위하라 사원**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 법회, 한국 · 스리랑카 수교 40주년 행사, 사원 착공식 등 행사를 5월 7일 오후 3시 평택 한국마하위하라 사원서 진행한다.

한국마하위하라 사원은 매해 남방불교국가의 부처님오신날인 ‘웨삭(Vesak Day)’을 맞아 봉축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기념한 사원 착공과 함께 진행된다.

행사서는 네란짜나 강둑 위 보리수나무에서 나온 보리수를 한국에 이운해와 친견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 연등 점등, 스리랑카 음식 무료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서 처음으로 스리랑카 전통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약 6개월이 소요되는 이번 전통등 제작을 위해 스리랑카 불자들은 매일 퇴근 후 2시간 씩 전통등 만들기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노덕현 · 박아름 기자

‘차별 없는 세상’ 위한 후원 이어져

고운사 · NH농협은행 등 범사회적 나눔행사 ‘더 나눔’ 후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의 범사회적 나눔행사 ‘더 나눔’에 대한 후원의 손길이 막바지까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4월 18일 고운사(주지 호성)와 NH농협은행은 각 1,000만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원장협의회는 500만원을 ‘더 나눔’ 행사를 위해 기부했다.〈사진〉



자승 스님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더 나눔 행사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행사 당일(4월 23일)은 1배당 100원을 기부하는 모금행사도 있다. 난치병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고운사는 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기도 후원금을 정해놓지 않았다. 작은 금액이라도 십시일반 보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라면서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해 지역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눔 행사는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행사로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다. 행사 당일 동국대 정각원에선 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용맹정진 3000배 기도가 봉행, 이원 생중계된다. 아울러 고운사와 직지사에서도 용맹정진 3000배 기도가 동시 진행된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4월 13~14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17 산하시설 중간관리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 선임팀장 및 과장 약 100명이 참석, 기관운영 및 사업실행, 불교적 가치관 등 역량교육을 실시했다.

박아름 기자

“최전방서 불법 활발히 전할 터”

군종교구, 군승 입대전 교육 회향식… 19명 임관 예정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4월 14일 부산 2보급단 금련사에서 부교구장 심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17년 임관예정 군승 입대전 교육’ 회향식을 봉행했다.〈사진〉

올해 임관예정 군승은 19명으로 지난 1월 13일 ‘2017년도 국방부 군종장교 선발’에 응시해 신체검사와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3월 13일 최종합격했다.

‘17년 임관예정 입대전 교육’은 3월 28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 교육과정으로 군법회의 이해, 설법 점검, 불교의식 점검, 불교상담 방법론, 군 조직과 군종업무의 이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군종교구 부교구장 심산 스님은 회향법문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군불교, 나아가서는 종단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불교의 내일을 내가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군포교 현장에서 신명을 다해 부처님 법을 전하는 군승이 되라”고 당부했다.

임관예정 군승인 구산 스님은 발원문에서 “호국불교의 숭고한 가치를 구현하는 군승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정법을 홍포하며 불조의 혜명을 잇는 수행자임을 항상 명심하겠다. 인천(人天)의 사표(師表)로서 정진 또 정진하겠다”며 군포교의 원력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백일법문’ 50년 맞아 대중강독회 열린다

불교인재원 5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개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50주년을 맞아 백일법문을 책으로 다시 읽는 대중강독회가 열린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5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전법회관에서 ‘백일법문’ 대중강독회를 개최한다.

‘백일법문’은 성철 스님〈사진〉이 1967년 해인총림 초대 방장(方丈) 추대 후 해인사에서 백일간 불교에 대해 강설한 법문이다. ‘불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선과 교, 수행 등 불교 전반에 대해 설했다.

당시 화제를 모은 이 법문을 상좌인 원택 스님이 글로 옮겨 1993년 책으로 편찬됐으며, 2014년 보다 쉽게 풀어 쓴 개정 증보판이 출간됐다.

엄상호 이사장은 19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고우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이 불교입문서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평할 정도로 불교를 제대로 정리한 법문이자 책”이라며 “백일법문 50주년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최초로 강독회를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강독회에는 성철 스님 상좌 원택 스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희승 한국문화연수원 교수, 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 등이 나서 강연과 강독을 진행한다. 또 매 공부마다 10분씩 참선을 병행한다.

참가회비는 10만원으로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청년 포교를 위해 30세 이하는 무료로 수강 가능하다.

한편, 불교인재원은 5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11주간 제5기 성철 생활참선 입문코스를 개강한다. 입문코스는 성철 스님이 주석한 해인사 백련암 참배와 겹외사 수련회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불교인재원 홈페이지(www.injaewon.org)에서 확인가능하다. 1661-1108

노덕현 기자

108km 마라톤 참여하고 나눔도 실천

불자마라톤동호회, 동행에 86만4000원 전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자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회장 정해선)는 4월 15일 불교108울트라마라톤대회에 앞서 조계사에서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86만 4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울트라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80명의 회원들이 각각 1만800원씩 적립해 마련한 것이다.

불교108울트라마라톤대회는 서울 조계사를 출발해 강남 봉은사 등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사찰을 거쳐 다시 조계사로 돌아오는 코스로 오후에 출발해 16일 새벽까지 17시간, 108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창원 성불사 주지 승지 스님과 정해선 회장 등 250여 불자 마라토너가 참석했다.

정해선 회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14회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

광진노인종합복지관 5월 18일까지 개최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5월 18일까지 ‘제14회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을 개최한다. 어버이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한마당에서는 나눔의등 축제, 광진구 어르신 행복나들이, 제13회 만수무강 칠팔순 잔치 등 지역사회 소외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5월 18일에는 노인공경의식 확산과 어버이에게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축제’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서는 신노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어르신들을 위한 ‘훌륭한 어버이상’ 표창, 다양한 문화공연, 무료 중식제공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사랑채 페스티벌, 아름다운 추억 여행’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옛향수를 자극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붓다’요금제로 통신비 절약하고!
매월 편리하게 시주도 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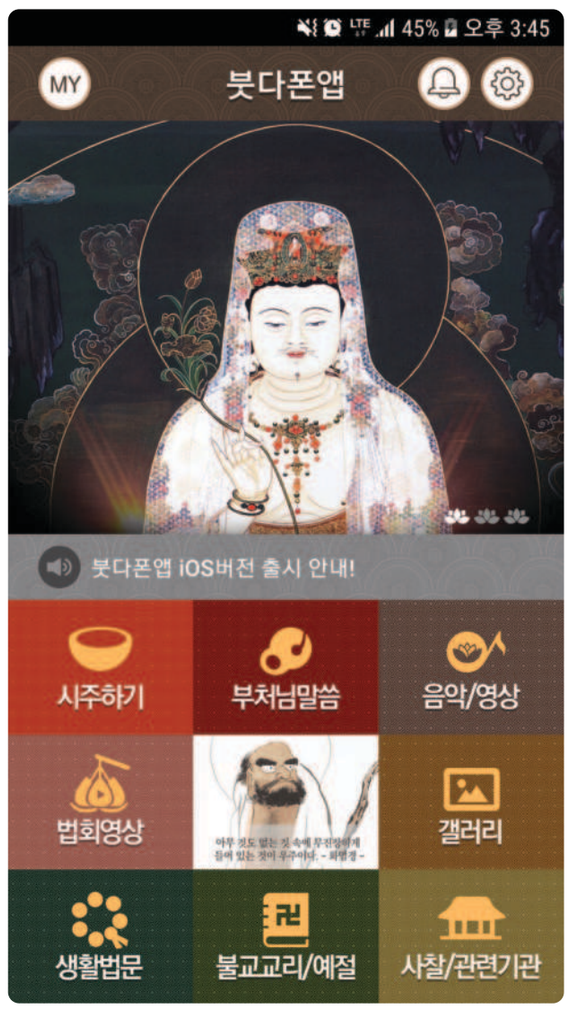
붓다폰은 불자 전용 휴대폰으로서, 불교인에게
전용 요금제 및 전용 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붓다폰 전용요금제 이용 시, 매월 사찰에 일정 금액 자동 시주!
붓다 10GB 100회선 매달 가입시 연간 7,800만원 자동 시주!

붓다폰 전용요금제

요금제명		데이터	음성 · 문자	기본요금	할인요금
붓다폰 전용 요금제	붓다 300MB	300MB	음성/문자 기본제공	~~32,890원~~	31,790원
	붓다 2GB	2GB		~~43,890원~~	42,790원
	붓다 6GB	6GB		~~54,890원~~	52,690원
	붓다 10GB	10GB+무제한		~~65,890원~~	62,590원

minigate 불자 전용 붓다폰 (가입문의 : 1588-7376)
우리 사찰에도 붓다폰 등록 / 가입하시려면 010-5937-7777 연락주세요.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붓다폰앱

- 부처님말씀
- 불교교리
- 생활법문
- 법회영상
- 명상음
- 경전 독송 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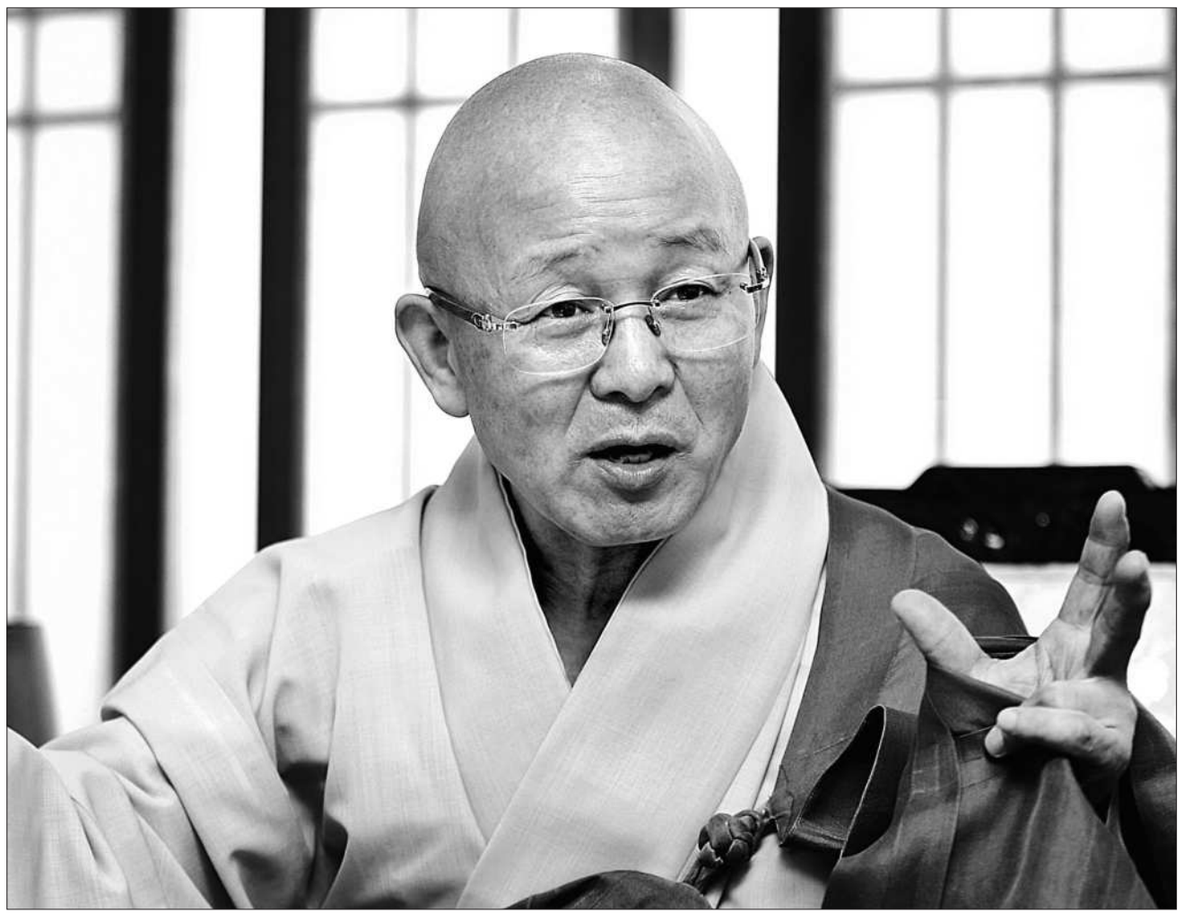
Google play 붓다폰앱
앱 게임 영화 도서 뉴스스탠드

“욕심을 願이라 착각하고 살지 맙시다”

조계사 일요법회… ‘아미타부처님의 願’

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

법장 비구는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에게 48대원을 세우고 오랜 수행 끝에 성불했다. 48가지 원은 모두 중생들이 자신의 불국토에서 고통 없이 기쁨을 누리게 하리라는 다짐이다. 취업 · 로또대박 · 결혼 · 사업확장…. 절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불자들의 소구소원이다. 우리는 나를 위한 원을 세우고 살아왔다. 이것이 과연 바른 원일까? 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4월 2일 조계사 일요법회서 “모든 것이 다 원이지만 근본적으로 이타행서 비롯될 때 참되다”고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혜총 스님은… 1953년 통도사에서 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 범어사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등을 역임했다.

여러분, 우리는 사바세계(娑婆世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바라는 것은 우리말로 ‘인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바세계는 잠시도 참고 견디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부부관계든 부자관계든 이웃관계든 다 좋지만 좋은 가운데는 반드시 좋지 않은 것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햇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사바세계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도솔천 내원궁서 호명보살로서 천인을 교화하시던 부처님은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인도 카필라국의 마야부인의 몸을 빌려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사월초파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연등공양은 부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연등은 뭡니까? 밝은 것은 희망이고 어두운 것은 괴로움입니다. 밝게 불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의 어두운 것을 다 없애고, 오로지 향기롭고 즐겁고 행복한 세계로 가는 길을 등불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등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바세계는 56억7천만년까지 지속됩니다. 그 다음엔 미륵부처님이 오시죠.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의 생애〉를 다 읽어보셨나요? 개인적으로 불자라면 3번 정도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시는 성인이 어떤 분이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믿고 내가 부처님을 의지해 살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탐독해야 합니다. 그 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내가 왜 모시는가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중심이 섰을 때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신에 불과합니다. 또한 믿으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의 주인공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동쪽 방향으로 가면 동방 정유리세계(東方 淨瑠璃世界)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약사여래 부처님이 중생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약사여래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소멸시키겠다는 12대원을 세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미타부처님’의 원(願)입니다. 이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전 법장 비구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수행자였지만 법장 비구는 48가지 원을 세웁니다. 뭔가를 해결하려면 테마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원을 세우고 사십니까? 오래오래 병 없이 살고 싶다,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 자손 대대로 대가 끊어지지 않고 훌륭하게 살 수 있게 해야겠다 등등 모두 하나의 원이 됩니다. 그런데 원은 단순히 세운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원을 이루도록 하는 건 바로 수행입니다. 거기에는 염불 참선 참회 주력 사경 육바라밀 등 모든 것이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수행을 거치지 않으면 원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건 ‘베풂’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11살에 출가했는데 16살 때 키가 정말 작았습니다. 당시 ‘친구들은 저렇게 큰데 왜 나만 작은 걸까’ 하는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키가 클까 늘 고민하고 키가 큰다는 건 뭐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건 없었죠. 희망이 절망이 되니 마지막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차올랐습니다. 절에 들어온 뜻도 모르고 말이죠. 사실 그때 제가 서른 살까지도 못 산다는 얘기에 출가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절망에 빠져 살다가 다리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 사람은 다리가 없어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고, 뭔 박질하는 건 상상조차 못할 것이고, 대소변 보는 건 또 얼마나 힘들까. 비록 나는 숏다리지만 그래도 다리가 있지 않나. 짧아도 서울역 계단 잘 오르내리고, 지하철도 타는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 은혜를 입고 태어났구나. 그 이후 환희심이 확 났습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나의 원이 무엇인가 곰곰이 돌아보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모든 것이 다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베풂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받고자 하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부모에게든 자식에게든 이웃사람에게든 많이 받고 살아오지 않았나요? 고작 100년 살까 말까 하는데 아등바등 했습니다.

‘내가 모든 존재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관공서에 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뜻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이웃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그게 바로 행복이고, 바른 원입니다.

다시 아미타부처님의 48가지 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법장 비구의 이 원들은 전부 자비심 가득한 이타행입니다. 이 세상에 괴로운 것이 많아 내가 건설하는 세계는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원입니다.

아미타부처님 세운 48대원
하나 같이 중생 위한 이타행
“나의 원은 누굴 위한 것인가
한 번쯤 돌아보고 반성해야”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자기 몸 하나 호의호식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존재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꼭 부처님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족 위해, 이웃 위해 헌신하는 것이 부처님의 행이고 목적지입니다.

삼라만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는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 즉 나는 모든 존재를 이해 뭘 베풀어야 할까요? 돈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는 욕심도 있겠지만 근본 고민은 이타행에서 나와야 합니다.

서쪽방향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아미타 부처님이 세운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부르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죠. 타력신앙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부르고 불러도 극락세계 못 간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정도의 원은 세워야 합니다. 타력이지만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자고 일어날 때 광명진언을 욉니다. 제 발원이 여러 신도들에게 돌아가서 가정엔 만사형통을, 돌아가신 분에겐 극락세계 왕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고 여러분의 원은 어디에 쏠려 있는지요.

‘福 없음’ 두려워야 福 짓는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 짤막한 글을 적어왔습니다. 이 글을 끝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복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재물이 풍족해서 잘 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은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이 있고, 이름을 사방에 드날리는 명예가 있고, 자고 싶을 때 잠자는 것과 편히 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지 않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신에게 매달리고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지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 것처럼 복을 짓고 자기가 거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복 짓기를 권하시면서 “그대들은 복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이 없음은 괴로움의 근본으로 근심과 괴로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시고는 당신도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악마들이 수천만억의 군사를 거느리고 방해했지만 복덕의 힘으로 악마를 항복시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이 있으면 즐겁고 복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금생과 오는 내생이 모두 즐겁고 행복하자면 복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지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복을 짓지 않고 복을 받으려는 마음은 공짜를 탐하는 욕심입니다. 헛된 욕심이 마치 집을 지을 때 1층은 짓지 않고 2층, 3층을 지으려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복을 지으려면 먼저 복이 없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복이 없으니 이렇게 괴롭구나. 복을 지어야지’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만 합니다. 복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온갖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재앙, 배고픔과 빈곤의 재앙, 자식이 없는 재앙,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재앙, 만나기 싫은 원수를 만나는 재앙,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재앙, 오래 살고 싶은데 일찍 요절하는 재앙 등등 많고도 많습니다.

내가 복이 없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복이 없으면 온갖 재앙이 곧 닥친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확실히 서 있으면 복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도 공부하는 복을 짓지 않음으로 다가올 불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은 일찍이 재앙을 뼈저리게 느낀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없이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마군을 항복받고 위없는 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은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남보다 못하다고 불평하고 낙담하기에 앞서 지금의 자기에 대해 만족할 줄 알고, 지금의 처지를 딛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나도 복을 지으면 반드시 햇볕이 드는 따뜻한 날이 온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힘닿는 대로 착한 일을 닦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생각을 버리고 낙수가 처마 밑의 바윗돌을 뚫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보면 반드시 좋은 복이 내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4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원효암 입승 현우 스님
영결식 봉행에 대한 감사의 말씀 및 49재 막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3월10일 좌탈원적에 드신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원효암 입승 현우 스님의 영결식을 봉행 하였습니다.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주신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길 바라며 49재 막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만제 혜수 합장

• 막재 : 불기 2561년 4월 27일(목요일) 오전10시(원효암)
• 백재 : 불기 2561년 6월 17일(토요일) 오전 9시 30분(길상사)
• 문의 : 055-333-8202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向上一路의 선재동자 구도 여정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③ 선재동자 이야기 ㊥

선재동자는 총 53명의 선지식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일관되게 집요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선지식마다 본인이 깨달은 삼매를 가르쳐 주고서는, 하나같이, 본인은 그것 밖에는 모른다며 겸손히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경지는 저 무궁무진한 우주와도 같은 큰 보살의 경지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경지로 나아가라' 며 더 위대한 선지식들을 소개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즘 수행 지도자들의 '자신이 시도한 방법이 최고이고 다른 방법들은 모두 문제 있다' 라는 식의 풍토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선지식들은, 뱃사공 · 아름다운 여인 · 노인 · 비구 · 청신녀 · 어린 아이 · 야인 · 땅의 신 · 밤의 신 · 허공 신 · 보살 등으로,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 년 때로는 수 십 년에 걸친 여정을 마다않고 찾아온 선재동자에게, 선지식들은 자신이 체험한 삼매를 고스란히 체험하게 해줍니다. 함께 손을 잡고 삼매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생사의 기로 속으로 밀어 넣기도 하고, 꼭 껴안아 주기도 하고, 설법을 해주기도 하며 보살의 경지를 열어 보입니다.



선재동자가 선지식 마야부인을 친견하는 모습.('〈화엄경〉 입법계품 변상판본, 고려시대') 입법계품의 변상도를 보면, 선재동자가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등장하는 것이 발견된다. 이는 선재가 시공간을 이동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마치 동영상을 보듯이 화면 속 여러 명의 선재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감상하면 된다.

설화적 요소의 선지식들

선재는 자신의 보리발심을 찬탄해준 미가장자를 만난 후, 12년이 걸려 다음 선지식인 해탈장자(解脫長者)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몸에서는 막강한 광명이 발산되어 시방 세계를 충만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선재동자는 이 같은 삼매에 든 해탈장자를 관찰하기를 6개월하고도 6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방을 두루 비추어, 무한한 이익을 중생에게 주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를 통해 널리 관(觀)하는 힘을 성취하기만 해도, 즉 보안(普眼)이라는 경지의 눈을 스스로 갖추기만 해도, 그 자체로서 중생에게는 무한한 이익이 됨을 알게 됩니다.

선재가 아홉 번째 만난 선지식은 비목선인(毘目仙人)인데, 그는 사슴 가죽을 뒤집어쓰고 땅바닥에 앉은 야인(野人)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살 예비생으로서의 선재를 바로 알아보고 "선재는 기필코 모든 중생을 구하고 기필코 모든 괴로움을 없앨 것"이라며 칭찬합니다. 선재가 비목선인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묻자, 그는 다짜고짜 선재의 머리를 만지고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러자 선재는 순식간에 삼매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선재동자는 갑자기 자기 몸이 시방으로 10불찰 미진수 세계에 가서 10불찰 미진수 부처님 처소에 이르렀음을 보았다."

손을 잡는 순간, 선재동자의 몸은 수천 개의 화불로 분파되며, 사방 끝 간줄 모르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인이 손을 놓는 순간, 선재는 자신의 몸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재가 구도 여정서 만난 선지식들
뱃사공부터 아이 · 神까지 '각양각색'
위안부터 생사 끝까지 몰아붙여서
삼매 전하고 "더 정진할 것" 요구

이렇게 만나는 선지식마다 격려와 기운을 더해주기에, 선재동자는 기나긴 순례를 하면서 서원이 점점 견고해 지고 고달픈 생각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 그의 원(願)이 성취되어 그 몸이 법계에 두루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를 반복합니다.

선지식들은 근엄하거나 고매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재주동자(自在主童子)처럼 물가에서 모래장난을 하고 있거나, 휴사청신녀처럼 순금 자리에 앉아 진주 그물관을 쓰고 온갖 보배 그물(寶網)로 몸을 덮어 장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선견비구(善見比丘)처럼 머리에 육계가 솟고 금빛 피부에 목에는 삼도(三道), 가슴에는 만(卍)자가 있고, 손가락에는 그물막이 있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금강륜이 있어 부처님의 상호를 갖춘 선지식도 있지만, 향을 파는 장사꾼 모습의 장자도 있고 남루한 차림의 뱃사공도 있습니다.



입법계품의 막바지 여정에 문수보살을 만나는 장면. 이때 문수보살은 멀리서 바른 손을 펴서 1백 10유순을 거쳐와 선재동자의 머리를 만지면서 말한다. "만약 선재의 믿음의 뿌리(信根)이 약했더라면 마음이 나약하여 이같은 공을 닦는 행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황홀한 여인과의 만남들

선재동자가 만나는 선지식 중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습니다. 속세에서 도를 닦는 청신녀(우바이) 3명, 바수밀다 여인, 석존 전생의 부인 구파여인, 석존 어머니 마야부인, 왕녀 등입니다. 선재는 무수한 여의주(寶珠, 보배 구슬)로 온 몸을 장식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쉬고 버린다' 는 의미의 '휴사(休捨)' 청신녀입니다. 그녀를 보는 이는 모든 병고가 사라지고, 번뇌가 뿌리 뽑히고, 장애의 산이 무너지고, 걸림 없는 청정한 경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녀는 "선근을 심지 않으면 끝내 나를 보지 못한다. 만약 나를 보게 된다면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천수경〉의 '우차여의주 정획무등등(遇此如意珠 定獲無等等: 이 여의주를 만난 이는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획득하리라)' 라는 예불 문구가 떠오릅니다. 여의주를 본다면 그 가피는 무병 무번뇌이고, 과보는 불퇴전(不退轉)의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또 애욕의 여신, 바수밀다 여인은 금빛 살갗에 검푸른 눈과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음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중생이 애욕에 얽매어 내게 오더라도 나를 잠깐 보는 것만으로, 내가 팔을 살짝 펴기만 해도, 내가 눈을 깜빡이기만 해도, 나를 끌어안기만 해도, 내 입술에 한번 입 맞추기만 해도 모든 애욕이 사라지고 환희삼매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선지식이냐? 악마이냐?

선재의 여정 초반부를 넘어서면, 이미 보살행(行)을 스스로 실현하며 구도의 여정을 진행해가는 선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광명을 얻어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고, 보살의 한량없는 장엄을 내기도 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기도 하고, 끝없는 세계의 차별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재도 의심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승렬바라문(10번째 선지식)과 무염족왕(18번째 선지식)을 만났을 때입니다.

승렬바라문은 "선재여, 그대가 만약 이 칼산 위에 올라가 몸을 불구덩이에 던진다면 모든 보살행이 다 청정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선재는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려운데, 이것은 혹시 악마가 시키는 것은 아닐까. 악마가 마치 보살이나 선지식 모습으로 가장한 것은 아닐까?"

악마라면, 구도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진정한 선지식이라면 더 높은 단계로 가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선재는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재가 또 한 번 의심하는 대목은 무염족왕을 만났을 때 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형벌로 중생을 다루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을 끊기도 하고, 귀와 코를 베기도 하고, 눈알을 뽑고 목을 치며, 살갗을 벗기고 살을 도려내고, 끓는 물에 삶고 타는 불에 지지고 (중략) 이런 끔찍한 고통이 끝도 없어 마치 중합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

선재동자는 과연 이것이 보살행이고 보살도인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말의 자비심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왕은 중생을 핍박하고 생명을 빼앗아 큰 죄업을 짓고 있는 게 아닌가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선재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Tip 짤막 불교상식

선재동자는 왜 문수보살을 두 번 만나는가?

선재동자는 가장 첫 번째 선지식으로 문수보살을 만나고, 53번째 선지식으로 다시 문수보살을 만난다. 같은 문수보살이지만, 처음 선재의 구도를 독려한 문수보살과 여정의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 다시 만난 문수보살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같은 '반야지혜' 이지만, 그 강도와 수준은 천지차이이다.

전자는 한 방울의 물이 머리에 똑 떨어졌다고 하겠고, 후자는 그 물의 근원인 바다에 풍덩했다고 비유할 수 있겠다.

선재동자가 길고도 머나먼 구도의 행각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것은 '반야지혜' 였다. "수행이란 반야지혜를 키워나가는 것, 또는 완성해나가는 것"이라는 선사들의 말이 새롭게 다가온다.

문수보살은 선재를 '보현행' 의 도량에 들게 하고 사라진다. 끝이자 또 다른 시작. 선재는 다시 보현보살의 행과 원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입법계품의 기나긴 여정은 막을 내린다.



불교학술진흥상 대상 이수미 교수

한국불교학회, 19일 결과 발표
5월 12일 춘계학술대회서 시상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원효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시행한 불교학술진흥상 논문 공모전 대상에 이수미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사진〉의 '금광명경의 삼신설에 대한 원효의 이해'가 선정됐다"고 4월 19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일본 하나조노대 박사과정 법장 스님의 '원효의 〈범망경〉 주석서와 천태지의의 〈보살계의소〉의 비교연구'가, 우수상에는 지혜경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연구원의 '동아시아 불교의 통합 담론 전개에서 원효의 역할', 담준 스님(동국대 윤리문화학과 박사)의 '원효 윤리의 공리주의적 해석 가능성 검토'이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 및 수상 논문 발표회는 5월 12일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화엄학에서 연기는 어떻게 이해하나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5월 13일 동국대 만해관서 '한국 화엄학에 있어서 연기의 이해'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前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의 기념 강연을 시작으로 △오카모토 잇페이(일본 케이오기주쿠 대학)의 '대승의장의 연기설' △고승학(금강대)의 '이봉현에 있어 연기와 성기' △박보람(동국대)의 '의상과 의상계에 있어 연기와 성기'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불교학연구회는 우수논문 저자를 초청해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를 시작한다.

'깨달음 인문학 강좌' 첫 번째 자리는 4월 28일 오후 2시 전남대 인문대학 1호관 313호 현공기념강의실에서 열린다. '인도불교에서 중도개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초기불교, 부파불교, 용수의 중도설을 중심으로'를 집필한 남수영 동국대 교수가 강좌를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원효 해골물 오도처는 '화성 당항성'"

고영섭 교수, 22일 화성불교유적 세미나서

도반 의상 스님과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던 원효 스님이 어느 무덤에서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뒤 유학을 포기하고 무애행을 펼쳤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신 무덤, 즉 오도처의 위치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현재에는 평택 수도사가 원효 스님의 유력한 오도처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효의 오도처는 평택 수도사 등 현재 사찰들이 아닌 화성 당항성(현재 당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4월 22일 한국불교문인협회와 화성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화성불교문화유적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 '원효의 오도처와 화성 당항성 관계사 고찰'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가 원효의 오도처로 화성 당항성을 꼽은 것은 원효와 의상의 구법루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신라는 진흥왕대에 화성 당항성을 영토로 편입하고 이 일대를 나당 교통의 관문으로 삼았다. 당항진은 당나라로 나아가는 나루터였고, 이곳에는 당항지역을 관할하는 당항성이 있었다. 당항성은 경기도 화성시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2차례 걸쳐 당나라로 유학을 추진한다. 육로를 통해 고구려를 가로지르는 루트의 1차 유학은 실패했고, 11년이 지나 진행된 2차 유학은 기존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 이뤄졌다.

고 교수가 주목한 것은 신라 견당사들의 루트였다. 당시 견당사들은 북쪽으로는 소백산맥을 넘어 화성으로 가는 죽령로(竹嶺路)와 경주-문경-충주-여주(수로) · 직산(육로)-화성 당은포의 계립령로(鷄立領路) 등을 주로 이용했다. 2가지 루트 중 고 교수가 주목한 것은 바로 '계립령로'다. 원효의 1차 유학은 육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죽령로를 이용했을 수 있지만, 2차 유학은 죽령로보다는 백제 고토로 가는 지름길인 계립령로를 통했을 것이라는 게 고 교수의 설명이다.



1, 2차 걸쳐 구도길 오른 원효
2차엔 鷄立領路로 화성에 도착
당은포- 中등주 유학길 추정해
"해골무덤, 신흥사 · 수도사 아냐
화성 당항성 인근 무덤일 것"

고 교수는 "신라 견당사들은 경주에서 당나라 장안까지 3~4개월 동안 육로와 해로를 통해 오갔다. 원효와 의상 또한 견당사들의 행로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계립령로를 선택한 원효와 의상은 충주 서북지역에 있는 여주 수로를 통해 남양만 당은포로 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원효와 의상은 당은포에서 중국 등주로 가는 항로로 당나라 유학을 떠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주에서 당은포까지 이르는 지름길이자 직선경로인 계립령로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여주 수로를 육로의 직산보다 여주 수로를 이용했을 것이다. 실제 수로는 육로보다 보행자의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같은 구법루트를 감안하면 원효와 의상 스님이 잠을 청했던 무덤이 화성 신흥사와 평택 수도사로 국한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당시 남양만 당항포의 관할지가 당성이었고, 당성이 현재 경기도 화성에 있으며, 중부횡단항로로 나아가는 출발지점이 남양만 당은포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효의 오도처는 당항성 인근 어느 무덤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며 "또한 원효의 오도처가 무덤이었다면 그곳이 현재의 사찰이기 어렵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효 사상과 화성 당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선진규 한국불교문인협회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원효의 화회(和會)사상과 평화교육(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 △원효 설화 그리고 문화콘텐츠화(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논평자로는 정희경(동국대 강사), 정성준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교수), 정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향천사 아미타삼존불, 조성 佛母 찾았다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15일 향천사 학술대회서

지난해 발견된 조성묵서 통해
1659년 신원 · 운혜 제작 확인
조성 연대 · 佛母 등 처음 밝혀



예산 향천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좌상. 최근에 발견된 조성묵서를 통해 조성연대와 조성조각승이 확인됐다.

예산 향천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좌상의 조성연대와 불모(佛母)의 면모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4월 15일 예산 향천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주최 · 주관한 '예산 향천사의 문화유산' 학술대회에서 지난해 11월 발견된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조성묵서를 연구 ·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감정위원은 지난해 아미타삼존불의 얼굴과 불신에 생긴 균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존 바닥면의 묵서를 발견했다. 조성묵서에는 봉안지역과 사찰은 자세히 적혀있지 않다. 다만,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은 7명으로 불상은 1659년 음력 3월 3일 제작을 시작해 한달 보름만인 음력 4월 20일에 완성됐다.

최 감정위원은 "조선 후기 전각에 봉안되는 불상의 제작 시기는 만드는 수량과 관련 있는데, 1m 남짓한 중형 삼존불을 한달 보름만에 만들었다는 기록은 조선 후기 불상 연구에 중요한 단서"라고 했다.

참여 조각승 중 눈길이 가는 것은 수화승 신원(信元)과 부화승 운혜(雲惠)다. 이들 스님들은 태화산 마곡사를 중심으로 17세기 중반 활동한 대표 작가다. 최 감정위원은 "운혜 스님이 향천사 아미타삼존불을 주도적으로 조성했고, 작품 양식적 계보를 살피더라도 절정기인 40대에 만든 것"이라고 봤다.

이어 "향천사 불상의 제작 시기와 조각승이 밝혀지면서 1650~60년대 운혜 계보가 만든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변천 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운혜 스님이 조성한 몇 점의 기년명 불상이 확인만 된다면 그가 한국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은미 고성 옥천사 학예실장은 '1924년 조성된 향천사의 불교회화 연구'를 통해 1924년 향천사에서 조성된 괘불도를 비롯한 오여래사보살팔금강도는 근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계룡산화파(마곡사화파)가 조성한 작품이며 향천사 문헌기록 등을 중심으로 조성배경과 후원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정원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향천사의 석조부도 연구'에서 창건주와 중창주인 의각대사와 멸운당 혜희의 석조부도에 대해 살폈다. 그는 2기의 부도가 조성 시기와 해당자의 활동 시기가 차이남을 확인하고 "임진왜란 이후 사역을 다시 정비하면서 초창주와 중창주를 기리는 마음으로 석조부도를 건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봉황 올린 新 상원사 동종 울린다

상원사, 오는 4월 29일 타종식… 도학회 교수 제작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는 문수성지이자 적멸보궁으로 유명하다. 문화재적으로는 한국의 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동종(국보 제36호)이 있다. 앞으로 상원사에는 새로운 범종의 소리가 울리게 된다.

상원사는 "오는 4월 29일 오전 11시 새로 제작된 '상원사봉황화엄범종' 타종식을 개최한다"고 4월 18일 밝혔다.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신종(국보 제 29호)보다 46년 앞선 725년에 만들어진 상원사 동종은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이후 동종을 보호하기 위해 모방종을 제작해 예불 등에 사용해왔다.

현재 상원사 동종 옆에 걸려있는 모방종은 지난 수십 년간의 타종으로 인해 파음(破音) 현상이 발생했고, 상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새로 범종을 조성키로 했다. 새 범종 제작에는 2007년 서산 부석사 범종과 2013년 대구 팔공산 갓바위 대종을 조성했던 경력이 있는 조각가 도학회 한서대 교수가 참여했다.



새롭게 조성된 상원사 봉황화엄범종

2년여 걸쳐 밀랍주조 방식으로 제작 · 완성된 새로운 상원사 범종은 '상원사봉황화엄범종'이라 명명됐다. 높이 170㎝, 지름 91㎝ 크기에 무게는 1.5t이다. 새 상원사종은 국보 제36호인 상원사 동종 옆에 걸리게 된다.

새 범종의 특징은 종두가 용이 아닌 봉황이라는 점이다. 종의 고리는 동물의 목을 고리로 쓰는 것이 편치 않아 구름을 형상화했다. 종의 상대에는 비천과 사방불을, 하대에는 십이지를 새겼다.

도학회 교수는 "청와대의 봉황 문양에도 볼 수 있듯이 상서로운 상징이다. 새로 만든 범종에 봉황을 올린 것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자는 의미가 담겼다"며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의 두께와 타종 위치, 조형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대출력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신상품 ● USB · MP3 PLAYER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앰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가격 : 185,000원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깨달음의 수행자답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마음 중심의 종교이자 사람이 주인이 되는 종교이다. 불교와 불교의 신앙은 불교를 위해 신앙을 위해 사람이나 다른 생명이 희생되길 바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살아가듯 넉넉하고 당당하게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버팀목과 디딤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불교이자 신앙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신앙은 사닥다리에 올라가듯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바뀌어 마음이 열리도록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여덟 가지길(八正道)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의 덕목으로 여섯 가지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길(六波羅密)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불교의 현 주소는 바른 불교, 바른 신앙과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게 지식층들의 외면 아닌 외면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이 경전 중심에서 이탈해 목탁 불교로 기울어져 거래하는 신앙으로 변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에 담긴 불교가 순수불교라면 사찰경제가 우선인 목탁불교가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며 망가지는 잡식(雜食)신앙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천도의식인 49재 경우 한 두 시간의 종교의식에 5백만 원, 1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냉철한 자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개선 되어야할 문제이다. 불교TV와 방송에서도 사찰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광고성 실력 없는 출연자로 하여금 불교의 가르침을 어둡게 하는 부끄러운 형태는 과감히 벗어나야한다.

출가(出家) 수행하는 스님들이 해마다 생일상을 신도들로부터 받고 있다면 이는 당당하지도 떳떳하지도 못한 사라져야할 풍습이다. 거기다가 승려의 장례식장에서 한 판 벌리듯 조의금을 접수하는 풍경은 세속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겠다. 승려의 장례는 간소화 할수록 아름답다. 상여와 만장이 불교문화가 아닐진데 수행승의 가는 모습도 검소하게 단출하게 적멸(寂滅)의 마무리를 개운하게 교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옳은 것이다.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모를 일이나 승려의 49재에 이르는 절차가 이 사찰, 저 사찰로 옮겨 다니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모습은 떠난 자의 뒷모습을 번거롭게 할 뿐이다. 거기다가 덕 높으신 스님일 경우 앞 다투듯 기념관을 만들어 가신 스님을 추모하고 있으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신 고인의 참 바람은 아닐 터이다. 출가 수행승이라면 누구나 기본에 충실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철저함이 갖추어져야 한다.

주지 진산식도 사라져 가야할 부끄러운 전통임을 밝혀둔다. 출가할 당시의 초발심(初發心)을 잃지 않도록 채찍질하여 흔들리고 헐떡일 때마다 승려의 기본 덕목에서 이탈함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게으름을 병으로 알아 학문 수행과 심성 수행으로 기본을 다지고 열린 불교의 열린 주인공답게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개운한 수행승으로 살 일이다.

육바라밀의 첫째 실천 덕목이 보시(布施)이다. 보시 중에서도 법보시(法布施)가 으뜸임은 누구나 익히 아는 상식이다. 제발이지 상식이 통할 수 있게

많은 보시 중 가장 으뜸은 '법보시'
염불·설법도 '무주상보시' 실천하길

승려의 목탁도 설법도 무주상(無住相) 보시를 실천하는 수행의 일부가 되길 바랄 뿐이다.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울려 퍼져야한다. 때와 곳도 가리지 않고 주지스님의 설법 뒤에 슬그머니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오는 권선문이나 시주를 강요하는 듯 한 영험설화 따위를 앞세우는 구걸하는 듯 한 부끄러운 행위는 마땅히 사라져야한다.

진정한 법당은 내가 머무는 가정이며 영험 있는 부처는 내 가족이며 이웃임을 일깨워 줘야한다.

불교에서는 운명론을 거부한다. 신(神)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네 생활 주변에 널려있고 드러나 있는 것이다. 불교는 어제를 위한 종교도 내일을 위한 종교도 아닌 오늘의 종교인 것이다. 불교의 중도사상(中道思想)에서 일깨워 주고 있듯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동, 서, 남, 북의 중앙에 있는 것이며 내가 곧 세상의 중심에 선 오늘의 주인공임을 두고두고 잊지 말 일이다.

無位眞人의 경지를 내보이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임제의현(臨濟義玄:?~867) 선사는 스승 황벽(黃蘗) 선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매를 맞고 깨달음 얻었다는 일화를 가지고 있는 스님이다.

매를 맞은 것이 도를 깨달은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선수행 세계에 있는 불가사의한 이야기이다. 임제 선사의 행장(行狀)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 이야기를 삼도피타(三度被打)라고 말하기도 한다. 임제 선사가 같이 공부하던 스님의 권유로 법을 물으러 황벽 선사의 방에 들어갔다가 다짜고짜 방망이에 스무 번이나 두들겨 맞았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대를 맞았다고 한다. 그는 황벽 선사의 이러한 처사에 회상에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우(大愚) 선사를 찾아가 전후의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황벽 선사가 임제 선사를 친절히 가르쳤다는 대우 선사의 말을 듣고 확철대오하고 다시 황벽 선사에게로 돌아와 법을 이었다. 임제 선사는 나중에 중국 선종 중 가장 독특한 선풍을 드날렸던 임제종을 세우게 된다.

선사들이 남긴 말을 수록하고 있는 책을 일반적으로 〈어록(語錄)〉이라 부른다. 글자 그대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이다. 중국 선종의 선사들이 남긴 어록이 수없이 많다. 〈선종전서(禪宗全書)〉, 혹은 〈선장(禪藏)〉이란 이름으로 집대성 되어 편찬된 책들이 대장경 가운데 삼장(三藏)의 한 장(藏)을 훨씬 능가한다.

그 수많은 어록 가운데 〈임제록(臨濟錄)〉을 예로부터 '어록의 왕'이라고 불렀다. 어록 가운데 가장 뛰어난 어록이라는 말이다. 일본의 철학자 니시따 끼더로(西田幾多郞)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불에 타 없어져도 〈임제록〉만 남아 있으면 된다"는 말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임제록〉에 나오는 유명한 말 중 '무위진인(無位眞人)'이라는 말이 있다. 무위(無位)란 처해 있는 위치가 없다는 말로 상하(上下), 귀천(貴賤), 빈부(貧富), 범성(凡聖), 미오(迷悟) 등 어떤 지위나 차별이 없다는 말로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다는 뜻이다. 깨달음의 궁극적이 경지에 들어가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는 참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신의 정체가 파악되었을 때의 자기 주인공을 말하는 것이다. 진인(眞人)이라는 말은 원래 〈장자(莊子)〉에 나오는 말이지만 임제에 의하여 선가에서 새롭게 제창된 말이다.

〈임제록〉에 의하면 어느 날 임제 선사가 법좌에 올라 말했다.

"벌거벗은 몸뚱이에 하나의 무위진인이 있어 항상 그대들의 면문(面門)에 드나들고 있다.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자세히 살펴보라."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 "무위진인이란 어떤 것입니까?"하고 물었다.

임제 선사가 선상(禪床)에서 내려와 그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말해봐라. 말해봐." 스님이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자 임제 선사가 잡은 손을 놓고 밀치며 "무위진인이라니! 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소리냐!"하고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무위진인이 면문으로 드나들고 있다. 면문이란 얼굴에 있는 눈, 귀, 코, 입 따위의 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여기에 무위진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속전등록〉 '원련전(元璉傳)'에는 이런 대화도 있다.

"무위진인이란 어떤 것입니까?" "위는 나무요 아래는 철로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죄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재판관이 죄상을 적는 붓을 던져버렸느니라." 이에 묻던 스님이 절을 하였다. 참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대화다. 선은 알 수 없는 데서 시작되고 알 수 없는 데서 끝난다.

서산 대사의 〈선가구감〉에서 임제가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 놓았다.

"임제가풍은 맨손에 단칼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고금의 현요(玄要)를 가리고 용과 뱀을 주인과 손님으로 시험한다. 임제를 알려 하는가? 푸른 하늘에 벼락치고 평지에 파도가 일어난다."

임제 법문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말은 "어디서든지 주인이 되라. 서있는 자리가 진실하리라."(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견성한 사람의 본래면목에 대하여 설파해 놓은 말이다.

실다운 진리를 바로 보라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⑰ 여리실견분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 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身相 得見如來 何
(수보리 어의운하. 가이신상 견여래부. 불야 세존. 불가이신상 득견여래 하)
以故 如來所說身相 卽非身相 佛告. 須菩提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 非
(이고 여래소설신상 즉비신상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 비)
相 卽見如來 (상 즉견여래)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매로 여래를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매로 여래를 볼 수 없사옵니다. 왜냐 하오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육신은 곧 육신이 아닌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우리들의 육신은 무량겁(無量劫)으로부터 시작된 망상, 아첨, 거짓. 잘난 체하고 뽐내는 분별망념들이 하나로 모여 이루어진 육신입니다. 이런 육신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분별망념을 여읜 육신이 아닌 때문에, 참 마음의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있음과 없음의 상, 좋아하고 싫어하는 상은, 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이 상이 아닙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상을 여의면 있는 것도 아닌 진공이고, 진공이 묘유로 없는 것도 아닌 이 마음의 여래를 보는 것입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진정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과연 2500년 후에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내는 중생이 있을까?

유전자 DNA와 제8아뢰야식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오랜시간 우리들의 모든 반복적인 행위, 습관이 쌓여진 업의 창고입니다. DNA와 제8 아뢰야식이 어째서 업장(業藏)인가? 그것은 길다 짧다, 있다 없다고 분별하기 때문에 업장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1초(秒)의 시간은 짧고 2,500년의 시간은 길다고 합니다. 그러나 1초가 쌓인 것이 2,500년으로, 1초의 시간이 없으면 2,500년이 없고, 2,500년이 없으면 1초의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1초는 2,500년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1초는 2,500년이 없음으로 인하여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2,500년도 이와 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수보리 존자는 보살 10지 가운데 7지 보살로서 무색계의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상비비상처정은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다의 경계로, 길다 짧다, 있다 없다 하는 분별망념을 거의 여의었기 때문에 1초의 시간과 2,500년의 시간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1초의 시간도 마음이고, 2,500년의 시간이 한마음이기 때문에 2,500년 후를 보는 것과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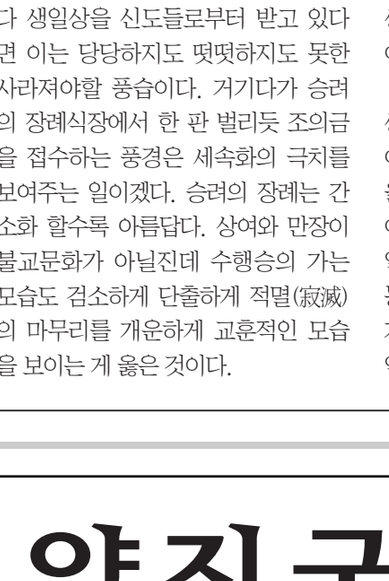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신통이라고 하는데, 분별망념이 다하고 분별망념이 다한 것도 없는 것이 6신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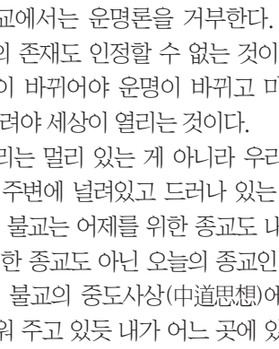
이와 같이 모든 분별망념을 여읜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는 2,500년 뒤에, 그 누가 분별망념을 여읜 수행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금 금강경을 듣거나 볼 때,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이며, 일체 중생이 부처라는 것을 굳게 믿는 신심(信心)을 내어 진실하게 여기고, 분별망념을 여읜 선근(善根)이 있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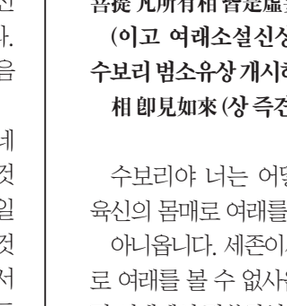
싫어하는 망념은 깨달음으로 인하여 있고 좋아하는 깨달음은 망념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망념과 깨달음은 있는 것이 아니고, 망념은 깨달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없고 깨달음은 망념이 없음으로 인하여 없으므로, 망념과 깨달음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바로 보는 것이 뗏목으로 생사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법도 버려야 하거늘 그릇된 분별망념에는 더욱 머무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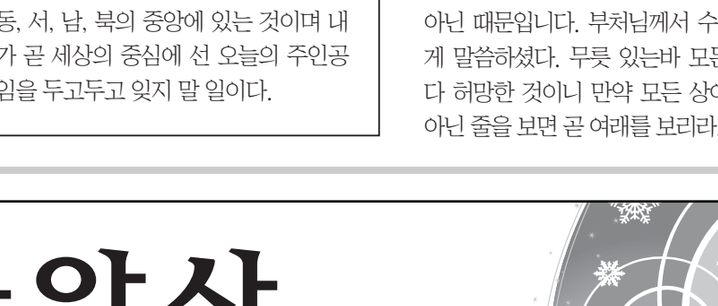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부산에 찾아온 조혈모 세포 기증 'BOOM' 〈붐〉

부산생명나눔, 4월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부경대 · 동아대 · 신라대 · 동명대
대학생 및 일반인 892명 참여
조혈모 세포 기증 통해 희망전해
"환우에게 새 생명 줄 기회 감사"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는 4월 한 달 동안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실시해 대학생 및 일반인 892명이 동참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백혈병과 혈액암 환우에게 완치의 희망을 안겨주는 조혈모 세포 기부 등록자가 4월 한 달 만에 부산에서 892명이 등록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4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나눠 부경대, 동아대, 신라대, 동명대에서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부경대 156명, 동아대 329명, 신라대 173명, 동명대 234명이 참가해 큰 성과를 이뤘다.

4월 19일 동명대학교 산학협력관 앞에서 진행된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마지막 날, 생명나눔 부스에는 대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길에 캠페인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캠페인에 대해 듣고 찾아오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모두 좋은 일에 동참해 기쁘다는 반응이다.

신예림(동명대 · 시각디자인1) 학생은 "사실 조혈모 세포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 그러나 백혈병으로 아픈 아이에게 내가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다"며 "DNA가 맞지 않더라도 희망을 전하는 일이니 동참할 수 있어 좋다"고 뿌듯해 했다.

대학생 뿐 아니라 직장인도 나섰다. 배은경(37 · 김해) 씨는 "자녀가 1명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조혈모 세포에 대해 들은 적 있다. 그 때는 흘러들었는데 캠페인 부스를 보고 바로 찾아왔다"며 "동참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기뻐했다.

부산생명나눔은 캠페인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는 것과 동시에 조혈모세포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목적이라 설명했다.

이현주 부산생명나눔 홍보담당은 "조혈모 세포는 혈액을 만들어 내는 엄마 역할을 담당한다. 백혈병과 혈액암 환자들이 이식을 받으면 완치할 수 있는 중요세포다. 현재 의학으로는 조혈모 세포를 회생시킬 수가 없기에 기증만이 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NA가 맞을 확률이 수천, 수 만분의 일이기에 많은 기증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기증법도 간단한 수혈 형태라 알고 나면 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생명나눔은 지난 2006년 7월 21일 창립해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 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지난해 창립 10주년을 기준으로 31회 캠페인을 펼쳐 부산 지역본부에서 총 4799명이 조혈모 세포 기증을 등록했으며 전국 생명나눔 지역본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로 집계됐다. 부산생명나눔은 조혈모세포 기증 사업 뿐 아니라 장기기증, 인체조직 기증, 환우돕기, 헌혈증 지원, 자살예방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기자

"佛法으로 범죄 없는 사회 발원"

4월 14일 부산지방경찰청 경승실 봉축기념법회



부산지방경찰청 경찰들이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기념 법요식을 마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범죄 없는 세상을 이룩하는데 더욱 앞장설 것을 발원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경선)은 4월 14일 부산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봉축기념 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허영범 청장은 "부처님은 타인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으로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다"며 "우리 부산 경찰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훈삼아 범죄 없는 세상,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선 스님은 "다양한 삶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산다면 삶이 행복하고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면서 "여러 경찰들의 헌신으로 국민들이 평안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다. 행복한 부산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대광명사, 전법과 자비 도량으로 우뚝

개원 8주년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초청법회



부산 대광명사가 해운대구에 문을 연지 8년 만에 정법 전법도량 및 자비 실천 도량으로 우뚝 섰다.

대광명사는 4월 16일 법당에서 개원 8주년을 기념하는 특별법석을 마련하고 앞으로 부처님 자비광명을 전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사진〉 아울러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도시락 나눔을 실천하는 사무량심 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대광명사는 해운대 뿐 아니라 부산, 그리고 불교계 전체의 대광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우리 불자님들로 인해 가능했다"고 감사했다.

이날 법문에서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개원 8주년을 축하하며 "불교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다. 도 혹은 법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결국 한 마디로 요약하면 '행복'"이라며 "바르게 믿어 실천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사하구불교聯, 수륙대재 통해 한마음 발원

제1회 국태민안수륙대재 봉행


사하구불교연합회는 4월 16일 '제1회 국태민안륙대재'를 봉행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평안을 기원하는 수륙대재가 개최됐다.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우, 이하 사하불교聯)는 4월 16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수협공판장에서 '제1회 국태민안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사하불교聯은 현재 시국으로 인해 상처 받은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어민들의 안전 조업과 풍업을 기원하고 바다에서 생명을 잃은 유주무주 고혼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혜우 스님은 "현재 국가 안보적인 문제와 경제, 그리고 정치까지 힘든 시기"라며 "오늘 이 수륙대재는 사하구 지역 어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로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열었다"고 설명했다.

김흥남 사하구불교연합회 신도회장은 "예로부터 나라가 힘든 시국에는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 위신력을 기원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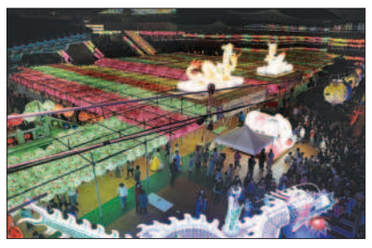
사하불교聯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수륙대재가 지역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는 다대포가 역사적으로 왜구의 출몰이 잦은 국방 요충지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전투, 부산진성 전투와 함께 부산지역 3대 전투 현장임을 알려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현재 다대포에는 임진왜란 다대성 전투의 영웅 윤흥신 장군과 전몰 장병을 위한 제단인 윤공단(부산 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 9호)이 있다.

한편 수륙대재에는 회장 혜우 스님, 총무 송우 스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이용덕 사하구의회 부의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삼광사, 5만 연등으로 무명 밝히다

봉축점등대법회, 국운융창 · 국민 화합 발원


삼광사는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대법회'를 4월 16일 지관전에서 봉행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가 연등을 밝히고 어두운 무명세계가 부처님의 지혜로 밝아지기를 기원했다.

삼광사는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대법회'를 4월 16일 지관전에서 봉행했다. 삼광사 연등은 'CNN GO'를 통해 '2012년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50 beautiful places to visit in Korea)' 중 한 곳으로 소개될 정도로 큰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올해 삼광사는 33인등, 연등, 비단등, 동물등, 사천왕등, 별등, 탑등, 봉황등 등 5만 개의 등에 불을 밝혀 봉축했다.

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원로위원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을 비롯해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상월원각대조사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봉행사 △점등사 △점등법어 △치사 △축사 △축가 △발원문 △점등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불자는 봉축을 맞아 무명을 밝히는 등을 달고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향이 충만하기를 발원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더욱 빛나고 법의 수레바퀴를 늘 쉬지 않게 굴려서 국민화합을 이끌어내고 남북은 물론 세계가 평화로운 연화장 불국토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삼광사는 4월 16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2일 오후7시 봉축전야 점등식과 5월 3일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을 연다. 아울러 5월 2~3일 간 체험부스 및 먹거리 장터를 마련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능대회도 5월 3일 경내 백천공원에서 개최한다.

하성미 기자

혜암 대종사 98세 탄신 기도법회

해인사 원당암 경내 선불당서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 98세 탄신기도법회가 4월 18일 해인사 원당암 경내 선불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자리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과 혜인문도회장 성법 스님, 문도대중 스님, 청신녀, 청신남 재가불자 100여명이 동참했다.〈사진〉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혜암 큰스님은 평소 신심과 청결로 선방불사를 회향하면서 대중과 뒷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하셨다"며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문도 스님들과 재가신도들이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한다면 자기 성찰과 불교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도회장 성법 스님은 "'공부하다 죽어라'란 큰스님의 수행을 본받아 수행정진하여 성불의 길을 걷는 것이 큰 뜻을 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혜암 대종사는 1946년 해인사 인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총림 방장과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했다. 평소 '공부하다 죽어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에게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3회
다꿈어울림 문화축제 한마당

일시 | 2017년 5월 3일 (수) 11시 ~ 15시 장소 | 참좋은우리절 앞마당 (전주시 삼천동 소재)



행사내용

제10회 천년전주한지 전통 등 만들기 대회
- 일시 : 2017년 5월 3일(수) 오전11시~ 오후4시
- 참가부문 : 2인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
- 주제 : 자유선정
- 참가비 : 무료
- 시상내역 : 전라북도지사상, 전라북도교육감상 전주시장상, 라훌라의 착한벗들상
- 부상내역 : 입선한 10팀에게 문화상품권(2만원) 증정
- 심사결과 : 대회 당일 현장발표
※ 참가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참좋은우리절신행연합회 라훌라의 착한벗들
- 후원 :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제3회 다꿈나눔 장기자랑 대회
- 일시 : 2017년 5월 3일(수) 오전12시 30분~오후3시
- 참가부문 : 노래, 무용, 악기연주
- 참가자격 : 장기를 자랑하고픈 모든 이 (총 10개팀)
※ 단체참가팀에게는 가산점 부과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
- 부상내역 : 최우수상(1팀) : 20만원
우수상(2팀) : 10만원
장려상(2팀) : 5만원
※ 참가팀에게는 별도의 경품 증정
- 신청방법 : 소정양식 1부
- 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참좋은우리절신행연합회 라훌라의 착한벗들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 전북은행

부대 행사
아시아문화놀이 및 음식체험, 행운권 추첨, 나눔기금마련 외

찾아오시는 길


| 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참좋은우리절 Chamjoen Urijeol 사단법인 착한벗들 문의 및 참고 | 063) 236-6633, cafe.daum.net/urijel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진각국사 정신 본받자”

진각국사선양회, 화순서 다례제

한국 간화선을 중흥시킨 혜심 진각국사(1178~1234) 탄신 제839주년 행사가 화순에서 열렸다.

진각국사선양회(대표 대현)는 4월 14일 화순군민회관에서 ‘제11회 다례제 및 경로위안잔치’를 열고 진각국사의 뜻을 기렸다.

화순은 진각국사가 탄생한 고장이다. 진각국사는 지눌의 뒤를 이어 수선사 제2세로서 조계종의 2대조가 되어 간화선을 크게 떨쳤다. 저서로 〈선문염송집〉 〈구자무불성화간병론〉 〈선문강요〉 〈금강경찬〉 등을 남겼다.

행사는 대현 스님, 정암 스님(선각종 총무원장), 상명 스님(前 선암사 주지) 등 500여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육법공양, 다례제, 개회선언과 축사, 법문, 평양GK하나예술단 경로위안 공연이 이어졌다.

대현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불교는 국난을 당하거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중생 곁에서 호국애민 정신을 구현했다”며 “진각국사는 무신정권 시대에도 백성의 안녕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도불교사암연합회 용왕제 · 방생대법회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진)는 4월 16일 완도농공단지 앞 선착장에서 ‘용왕대제 및 방생대법회’를 갖고 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완도군의 발전을 기원했다.〈사진〉

정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용왕대제를 통해 완도군 어민들의 풍어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추진위원장 수향사 주지 벽해 스님은 “맑고 청정한 완도바다의 평안과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축원한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행사는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을 비롯해 신우철 완도군수, 박종현 완도군의회 의장 등 신도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하게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대중들은 ‘생명을 일깨워주는 치어 방생’과 해조류박람회 관람을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오심, 등불 밝히며 봉축하네!”

부처님오신날 앞서 호남지역 봉축탑 점등식
“갈등 풀어나갈 지혜의 빛으로 세상 비추길”



광주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높이 20m의 화엄사4사자3층석탑등. 탑을 중심으로 수백 명의 불자들이 탑돌이를 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서원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탑이 호남지역 곳곳에서 불을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4월 14일 5.18민주광장에서 한지로 만든 높이 20m 크기의 화엄사4사자3층석탑등을 점등하고, 올해 열리는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점등식에는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호산 스님을 비롯해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성환 동구청장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점등을 축하했다.

이날 수석부회장 보응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빛고을관등회는 광주전남 불자들이 다함께 만들어가는 전통문화축제”라며 “호남인이 갖고 있는 장구한 문화전통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화 스님은 봉축사에서 “세월호와 함께 진실이 인양되고, 올바른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봉축행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행사가 열린 5.18민주광장은 고려시대 광주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던 대황사 앞마당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은 “봉축탑을 점등한 이곳은 민주화의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고려시대 가람을 유지한 대황사의 앞마당이다. 대황사는 조선시대 관청으로, 일제강점기 총독부 건물로, 해방 후 전남도청과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변모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이처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곳에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문화재 중 하나인 화엄사 4사자3층석탑등을 장엄하게 돼 뜻 깊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고창은 지역에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이 들어섰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4일 고창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대형 봉축탑을 세우고 점등법회를 개최했다. 점등식에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스님들과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회의장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경우 스님은 봉행사에서 “나라 안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세대 간 갈등은 커졌다. 또 세월호의 고통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남북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자비롭고 지혜로운 언행으로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스스로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무명서 벗어나 다함께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운사 한주 범여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지혜와 진리, 평화와 상생의 등불을 밝히는 오늘 점등이 전 세계가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에 처음으로 세워진 봉축탑은 높이 20m 규모로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올해 봉축표어를 담았다. 이 탑은 5월 3일 부처님오신날까지 불을 밝히며, 선운사는 고창지역 주요도로에 LED오색 연등을 달아 거리를 장엄했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는 17일 장성역 앞 광장서 장성지역 사찰 주지스님들과 신도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법회를 갖고 제등행진을 진행했다.

장성군불교사암연합회장 마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오신날 등불을 장성에 밝혀 화합과 평등의 마음이 군민들에게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토진 스님은 봉축사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듯 장성군민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17년 만에 다시 열린 이날 연합법회는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김광태 백양사 신도회장, 유두섭 장성군수, 김정한 장성군의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

광주지방경찰청 불자회(회장 국승인)도 19일 청사 내 1층에서 봉축점등식을 열고, 지역 경찰들에게 부처님오신날 봉축의 의미를 알렸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봉축 희망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법요식에 이어 축하공연(증심사 합창단), 차담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광명 가득한 부처님오신날 기원

순창사암연합회 4월 15일 불기2561년 봉축법요 봉행



순창지역 봉축법요식에서 관불의식을 하고 있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전북 순창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청암, 장덕사 주지)가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4월 15일 순창 문화의집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은 고창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재무국장 수찬 스님, 교무국장 대일 스님, 포교국장 도오 스님 등 24교구본사 스님들과 대모암 주지 동산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 대흥사 주지 일현 스님, 만일사 주지 자영 스님, 실상사 주지 병오 스님 등 순창사암연합회 스님, 황숙주 순창군수, 이동희 순창사암연합 신도회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국민의례, 삼귀의, 반야심경 독송에 이어 관불의식, 신도회 임원 임명장 수여, 봉축사, 축사, 법어,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람은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모든 차별에서 벗어나 공정한 세상에서 살기 원한다”며 “불교가 시대의 아픔인 갈등과 대립을 화쟁정신으로 치유해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화합과 치유를 통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지극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청암 스님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불자들 마음마다 지혜의 등, 축복의 등, 나눔의 등을 밝혀 온 세상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가득한 부처님오신날이 되기를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 앞서 순창사암연합회장 청암 스님은 이동희 순창불교신도회장, 손충호 남자회장, 서해숙 여자회장, 김상우 사무국장 등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옥련암, ‘산벚꽃 이쁜 날’ 문화축제

4월 15·16일, 사진전 · 어린이 그림그리기 · 공연 등



경내 마당 앞에 시민들이 둘러 앉아 문화공연을 즐기는 모습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풍성하고 화려한 도시의 왕벚꽃이 질 무렵이면 산중에는 산벚꽃이 수줍은 듯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도량 전체가 파스텔로 그려 놓은 듯 산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완주 옥련암에서 마을주민들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작은 산사축제가 열렸다.

완주 옥련암(주지 일감)은 4월 15일과 16일 문화축제 ‘산벚꽃 이쁜 날’을 개최했다. 옥련암이 자리 잡은 완주군 화산면 마을 이장들과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관광객들이 함께한 소박한 작은 문화축제다.

도량 곳곳에서는 부처님께 차를 공양하는 헌다의식과 선차회, 이승호 작가의 ‘옥련암 사계’ 사진 전시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사찰음식전시회가 열렸다. 또 대금 연주가 이창선 씨의 사회로 ‘이창선과 대금스타일’을 비롯해 국악인 최재구, 송봉금, 가야금 연주가 김영언, 김아리가 출연, 정겨운 우리가락을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놀이 형태로 펼치며 잔치마당을 연출했다.

주지 일감 스님은 “산에 핀 벚꽃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아름다움을 선사하듯 모든 생명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기 위한 쉼이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산골 사찰의 특성상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축제에 참가한 한 시민은 “단순히 등산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풍요로운 산행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가 꾸준히 열리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둔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옥련암은 한동안 폐사지처럼 방치돼 오다가 일감 스님이 부임한 이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누구나 쉬어가고 싶은 사찰로 변모해 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법공양 영가 특별천도재 3,000일기도 입재의 의미와 그 중요성

▶ 현재 지하에 있는 모든 조상영가님들은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이 이 기도를 해주기를 무척이나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입재를 해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문과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도록 하십시오.

▶ 기도비는 저렴합니다. 3,000일 기도하면 거의 10년이 되는데 총액이 3백만원이면 됩니다. 본회에서 3,000일 기도를 해드리며 100일마다 기도비만 10만원씩 보내주시면 되는 법공양 영가 특별천도재로서 3,000일 기도를 하면 천도가 완벽하게 되며, 천도기도 효과가 최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자고로 사람들은 말이 많아도, 말이 적어도, 말이 없어도 비방을 하고 비방을 받았다. 비방하거나 비방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비방만 받고, 칭찬만 받는 사람은 지난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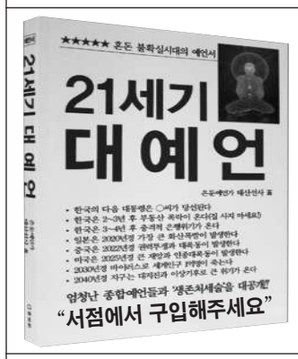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 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후천 극락승천 성불시대 왔다
도통 문 열려 천지인합일
세상 완성. 무극천기와
佛수기 전수받아 도통,
불(미륵불)대신통 道완성 성불함
17개 시.도 지부개설가능자 환영
일월천불도선원
063-352-2888
010-4775-8960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653-5151
010-5598-5078
무상 합장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염불, 사물,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양고장 및 송주, 정근북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구, 용회사)
010-7579-8200
금륜사 주지 법현 도광

늦깍이로 스님 되실 분
경북 문경에 위치한 사찰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시봉하며 공부도 하고 스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010-8819-8988

法帥寺 양산 통도사 부근
스님의 혜안으로 살피는 현재, 미래의 알고자 하는 일과 미래의 새로운 길, 시험, 진학, 합격운을 알고자 하시는 분, 원인 모를 병고, 귀신병, 빙의로 고생하시근 분 퇴마, 퇴치, 매매, 묘탈, 결혼, 이사, 하시는 사업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분, 현재 겪고 있는 불행한 일 사고, 재앙을 천도제로 막아 줍니다.
055-382-2108

철학, 경전, 천도, 예수재 배우면서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35-41세, 차후 사찰을 양도해 드립니다.
010-6536-0120
동해 스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성남시 복정동)
010-5382-8261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3840-43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파주)
010-5257-7750

운전하며 사찰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1종 대형면허, 65세,
사찰경력 3년,
월급여 150만원
010-6476-6026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울산 백련암)
010-3034-2113

부전스님 모십니다
학인 또는 염불 못해도 상관 없음
(서울)
010-9087-6287

전통 구들 무료 교육
본 연구원에서는 각 종단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전통 구들 교육을 무료로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도강사 : 구들 치수화를 발표한 구들장인 관요 **문재남** 원장
■ 참가대상 : 전통구들에 관심이 있는 스님
■ 참가인원 : 선착순 30분
■ 교육방법 : 이론 및 실기
■ 신청기간 : 2017년 5월 13일까지
■ 일 시 : 2017년 5월 18~19일 (음력 4월 23~24일)
목, 금 – 1박 2일 10시 부터 ~ 17시 까지
■ 장 소 : 경남 양산시 명동 1003번지
(양산시 덕명로 319-15)
■ 주 관 : 나무와 흙 건축시공학원
■ 준 비 물 : 간편복, 필기도구. 세면도구
■ 주 최 : 나무와 흙 총동문회
■ 후 원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 숙 식 : 개별 부담
■ 연 락 처 : ☎ 055-366-2006
다음카페 cafe.daum.net/woodnsoil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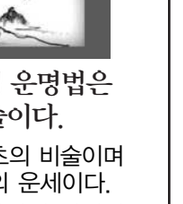
이름으로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오늘운, 금년운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울 분 모집 010-5792-0199
한국명품이름연구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 0068

스님이 안계신
어려운 절에서
무보시로 무료봉사
하기를 원합니다
(60대 비구승)
010-4882-383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무료강의 : 매월 2, 4주 일요일 오후 4시 (미리 접수바랍니다)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❶ 동영상 강좌 : 250만원 ❶ 직강 : 300만원
❸ (내손안에 육임) 프로그램 : 450만원
❶+❷+❸ 合 600만원 (개별구입 가능)
※ 각종카드, 할부금융 – 무이자 24개월 할부 가능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육임이 보인다」 저자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무속 단계 무료, 심천 유료)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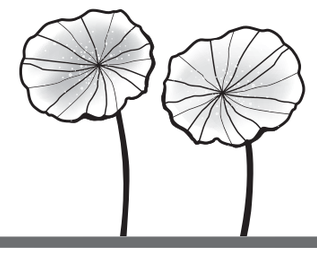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악을 두 번 다시 범하지 말아라. 악 속에 즐거움을 누리지 말아라. 악의 축적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느니. 작은 악이라도 경시하지 말거라. 물방울이 비록 작지만 마침내는 큰 물병을 채우느니.

- 법구경 -



인천시 추천 사찰 안내

- 토지 182㎡ (약 55평) 2층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마당
- 지하철 인근 주차가능
- 양도가액 : 4억 (조정불가)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 hyeonjong01)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2-449-0284

논산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공양간.산신각
- 토지 40㎡
- 마을에위치 교통편리. 남향이며아늑한 암자
- 양도가액 : 1억 3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 분석과 입지 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 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 위치 : 서울
◎ 부지 : 1200평 ◎ 면적 : 2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80평 ◎ 요사 : 2동
◎ 양도가 : 9억 5천 ◎ 양도가 : 25억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내 돗대산 기도사찰
- 토지 : 270여평, 종각, 요사채 30평
- 법당 23평, 주지실, 산신각, 용왕당
- ※ 국제의료관광특구지정
- 사찰주변 1,500세대 아파트
- 최근 2,000세대 아파트 추가분양
- 양도 : 10억 8천만원

직통 010-9906-3631 혜관

사찰(급)안내

- 인천시 사찰 양도
- 토지300㎡.3층법당.2층요사.1층공양간
- 시설좋은 법당. 안정된 포교 사찰
- 위치 좋음. 주차장 있음
- 가액 : 12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소재 황금동 10분거리
- 내용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
- 대지는 도지료 1년 35만원
- 남향, 교통좋은 포교지 (2차선 상가지역)
- 가액 : 5천 4백만원

010-7295-1259

전망좋은 암자 안내 및 세 놓습니다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방사, 산신각
- 가액 : 1억 전세 1,000만원 월 30만원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인천시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3층 / 3층 283㎡ (약 86평)
- 상담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1000만, 월 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삼보사찰 안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5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김해
- 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삼사순례지 소원성취하는 절

- 이름 : 당산목 : 영신목(靈神木)
- 나이 : 일천삼백살(1,300세) • 무게 : 칠톤(7천 kg)
- 고향 : 전북남원 지리산

※ 소원을 들어주는 신령하고 영험한 영신목
"소원을 이루는 절" 용두산 위 불 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탑동길 92-45

종무소 : 055)224-0023
주지승 : 010-4547-0023

지리산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
- 대지 : 510㎡
- 지리산 둘레길 펜션암자
- 등산로길가에 위치하며 맑은물이 양면으로 흐르는 합수머리이며 등산객이 많음
- 인연이 없으면 올수 없는 곳
- 가액: 2억 3천만원(대출가능)

010-3283-7733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 전75평, 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 1억 6천만원

010-7345-16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연산동
- 대지 120평(종교부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신불당
- 스님친견실, 주지실, 주차장 상수도 및 약수(사시사철)
- 가액 : 4억 5천만원
- 완전 몸만 오시면 됨

010-7273-152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대지 : 150평(반지하)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약70평
- 스님친견실, 주지실, 종무소, 외 방 3개,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텃밭
- 완전 몸 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010-6717-68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재
- 부지 : 60평
- 법당 : 35평, 정기와 단청(2층)
- 요사채:35평(1층)
- 가액 : 3억 3천만원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신도구성이 잘된 포교도량입니다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갓바위 인근)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40평, 정기와, 단청(2층)
- 요사채:2동 60평
- 가액 : 4억 7천만원
- 특징 : 도심 인근에 위치한 기도정진할 도량입니다.

동진사찰공인중개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비구니스님 요사채 분양 안내

300여년전에 방장스님이 계셨던 참선도량 기도 영험도량 광흥사에서 요사채를 지어 분양하고자합니다. 대중스님네가 모여 수행, 정진하는 도량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주지 합장

054-788-7672
010-8573-6353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10개, 공양간, 창고, 외부 화장실 등등 대형 주차장 등
- 대출 7,500안고 2억 3천 5백원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
- 총부지 : 임야 2,000평
- 건물 : 법당 16평, 요사 30평, 조립관넬구조
- 자연경관 수려하고 공기좋고! 이명산, 지방문화제 마애불있고 북천 코스모스축제 하는곳
- 가액 : 2억 1,000천 대출 7,500백 안고 1억 3,500백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시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외 1동
- 산속, 차량진입, 경관 수려
- 양도가 : 6억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05번지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지방국도 접해 있음
- 거창 진목리 면사무소에서 3분거리
- 전기 자연 우물 유. 1300평
- 가액 : 9,500만원
- 대출 삼천만 되어 있음

거창 010-4661-7734
부산 010-3868-7435

촌 집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가북면 단지봉 해발 800m
- 특징 : 사시장철 청정수 흐르는 개울이 마당과 붙어 있고 특히 돌담이 아름다움
- 작은 집 3채(방 5개) 구들 난방, 태양광 전기 사용. 수행 공간으로도 최적
- 총 800여평. 가액 : 2억 2천

010-3805-27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1140평
- 주차장 20대 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방 7칸), 스님친견실 6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010-2498-78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공양간, 방1개
- 명리, 철학 호조건, 본절 소임 관계로 양도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2077-4293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정선읍 사찰
- 부지 약 1,700평 대웅전1, 삼성각1, 부처님 진신사리 있음
- 대형돌탑 높이 9m30, 둘레 10m3, 108돌탑, 요사채2, 정자각1, 심야전기 보일러, 태양광열설치, 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읍내거리 10분
- 가액: 17억

033-562-0448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 송지면 소재
- 대지 110평(바닷가 접)
- 법당, 해수관음, 5층석탑, 용왕단
- 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7,000만(답사후 절충)

061)337-3357

단독주택 법당 안내

- 위치 : 세종시 행정타운 10분, 조치원 5분 딱중간지점 · 대로변 교통 편리, 차량유동인구 많고 근린,교육시설형성 좋음, 대로변, 포교원 운영 최적지임
- 1층 법당 요사채 산신 영가단 2층 옥탑방, 마당 ,주차장, 텃밭
- 가액 : 시보포함 2500 절충가능, 절살림 완비, 바로 법회가능
- 자세한사항 전화문의하세요

010-4598-2916

역세권 대형 포교원

- 위치 : 송파구 방이동 역세권 잠실역 몽촌토성역 3분거리
- 4층 35평 종무소, 요사채, 찜질방 5층 35평 법당, 지대방 6층 공양간 10평, 다용도실, 창고 및 옥상
- 전 층 황토세라믹 시공 및 세라믹 찜질방
- 각 종 제의식시 일체 민원 없음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9637-2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5억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일월산지역
- 총평수 1,000평, 대지 500평, 농지 500평 요사채 30평, 완공 3년
- 사정상 법당은 미완공, 토목공사 완료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1급수 청정지역
- 가액 : 2억 4천, 절충가능

010-5424-4969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1동, 칠성각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약 40평 1동
- 가액 : 2억 8천 5백만원 (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 종교부지, 임야, 대지 약 5,700평 대웅전, 약사전, 삼성각, 노천불
- 요사채 및 황토 찜질방
- 가액 : 12억(아주 싼가격 급양도)

010-3470-9738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 연 450만원, 보증금 500만원
- 신축건물 2층 트인 전망

010-5438-013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서동 시장인접
- 2층건물중 2층 (옥상사용),35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010-4879-38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댐 부근)
- 총 730평, 법당 50평 중방2, 화장실1, 주방1, 요사채 방사4개, 부엌1, 화장실2, 욕실1
- 산신각, 용왕당, 독성각, 할매당 각1
- Y자형 계곡, 사시사철 계곡물 철철, 계곡에 가재, 갈겨니(피라미), 다슬기 바글바글
- 앞뒤 산에 송이 버섯 다수, 법당은 동향 요사채는 정남향
- 서출 동향수 완벽, 대형버스 진입
- 종찰로 들어가야할 입장이기에 부득이 안내 합니다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사절)

010-4466-3575 (주인 직)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안동 삼안공원 앞
- 3층 건물중 1층 33평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방, 도시가스, 냉장고, 냉.난방에어콘
- 주위 환경 좋음
- 시설 집기 일체700만원
- 가액: 보1500만원 월4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0-8352-4111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3길 42-9
- 대지 100평
- 대웅전 25평
- 요사채 48평
- 가액 : 1억 3천만원

010-5405-0752
043-733-2794

여항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943 외 5필지 부동산 현황
- 가) 토지 : 654평(종교용지, 답, 임)
- 나) 건물 : (대웅전 23평, 신영각 3.4평, 요사 27평 등)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6667-4753
010-3852-25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 10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 산신각, 창고 건물 1동
- 대중교통편리함
- 가액:대출 4천만원 양도가 1억 6천
- 비구니스님 수행 도량으로 적합

010-8794-125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산세 좋고 물좋은 조용한 사찰기도하기 좋은 사찰
- 주변 사용 가능한 국유지 많음
- 대웅전, 산신각, 기와단청, 요사채2동
- 면적 34,000㎡, 건물 약 170㎡
- 가액: 6억 5천만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10-5346-4138
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40평, 대지 360평
- 요사채 3동, 산신각, 용왕당
- 가액 : 보3000만원,월70만원
- 몸만 오셔서 바로 법회가능

010-8384-7754
하루 전 미리 전화 요망

사찰안내(토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대지75평, 요사채, 법당 40평
- 방3,주방,욕실,화장실2,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1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2499-300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4호선 당고개역 1분거리
- 지하1층, 지상1층 다락 지상 49.26㎡, 지하 24.03㎡ 마당 있습니다.
- 상계 제2구역 재개발구역
- 종교부지
- 가액 : 5억 5천만원

010-3763-2809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여성이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오해”

美 인문학 연구원,
고대 중국 여성 불자들의 삶 연구

여성은 깨달을 수 없단 근거로
고대 불교, 여성 불교참여 제한
“깨달으려면 남성으로 태어나야”

BUT 여성이기 때문이 아닌
가부장제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인문학 연구원인 스테파니 볼크 빌은 4~6세기 중국의 여성들, 특히 불자 여성들의 삶을 깊이있게 연구했다. 사진출처=USC News

중국 고대 불교 경전을 통해 당시 불교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인문학 연구원인 스테파니 볼크 빌은 4~6세기 중국의 여성들, 특히 불자 여성들의 삶을 깊이있게 연구했다.

“고대 불교 사회에서는 단지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교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래됐을 때, 중국 불교계는 이전에는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던 사회 · 종교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중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는 점이 흥미로워 불교 여성들의 삶을 깊이있게 연구했습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여성은 자식을 낳아야 하는 몸이기 때문에 윤회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여러 생을 반복해 남성으로 태어나야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볼크 빌은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는 데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가르쳤다. 여성의 신체적인 한계 대신 가부장적 사회제도에 대해 언급했다”며 “이는 당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굉장한 변화를 주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5세기 중국 경전에서도 발견된다”고 말했다.

볼크 빌 연구원은 맥마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중국 5세기에 쓰인 불교 경전을 확인하고 당시 중국의 불교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밝히는 연구를 했다.

볼크 빌 연구원에 따르면 5세기 지위를 갖고 있던 중국 불자 여성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 정치적 상황을 협상하기 위한 장소로 불교 사찰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이 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경전에 많은 후원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볼크 빌은 몇몇 글들에서 발견되는 궁중 여성들을 언급했다.

경전에서는 여성이 성(性)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여성의 몸이라서 깨닫기 힘든 것이 아닌, 가부장적인 사회로 핍박받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수행법도 담고 있다.

특히 5세기 중국의 궁궐 여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왕궁에서 태어난 여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일생동안 그녀는 가족을 섬기는 하녀와 마찬가지로, 가장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며 몸종과 같이 보내야 한다. 그러면서 온갖 매질과 칼에 희생되기도, 악한 소문들에 의해 더럽혀지기도 하지만 그 고통은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몸을 던지고 벗어나야 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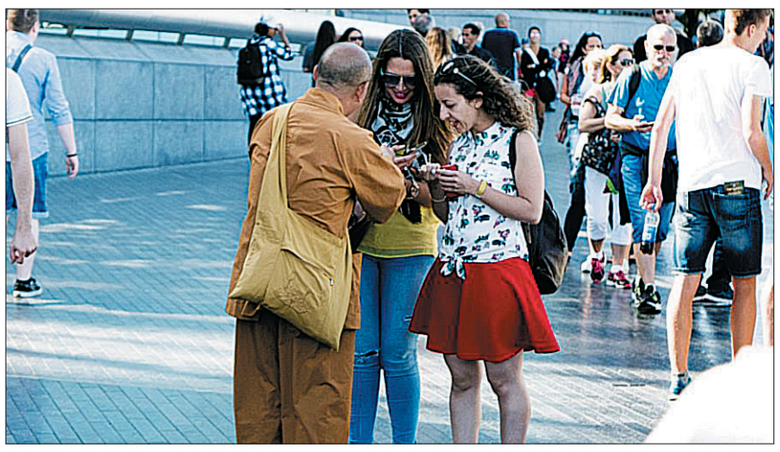
볼크 빌은 “궁궐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진귀한 보석들을 사찰에 기증하고 활동할 정도로 부유했지만 가부장적인 사회로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연구하는 5세기 중국 불교 경전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신체에 대한 다양한 대화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다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담겨있다.

이어 그는 “당시 여성 불자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경전 속에서 여성 불자들이 스승에게 질문 하는 내용 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형 객원기자

英서도 가짜승려 기승… 고가 염주 강매 ‘눈살’



‘가짜승려’가 영국 런던과 애버딘 등 주요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고가의 염주를 강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출처= the SUN

스님 행세를 하며 행인들에게 고가의 염주를 강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자 영국 더썬(the SUN)지에 따르면 영국 런던과 애버딘 등 주요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며 행인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출처 불명의 팔찌와 금으로 장식된 작은 부적을 10파운드(한화 약 1만 5천원)에 요구하고 있는 것.

영국 애버딘의 한 호텔에서 근무 중인 로즈메리 크리머는 ‘가짜 스님’으로부터 강매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SNS를 통해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가짜 스님은 당시 작은 수첩을 크리머에게 건네면서 그녀의 이름과 기부금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크리머는 스님이 건네는 팔찌와 부적을 받으면서 10파운드를 건넸다.

크리머는 “호텔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도중 스님이 내게로 다가왔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를 향해 와 말을 걸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며 “그 스님은 나에게 와서 검은 팔찌와 ‘원만회향, 항상 평화로운 삶(Work Smoothly, Life Time Peace)’이라고 쓰인 금박 부적을 주면서 ‘당신에게는 행복한 기운이 있습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리머는 “정말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는 내가 돈을 줄때까지 놔주지 않았다”며 “온라인에서 이런 가짜승려가 기승을 부린다는 기사를 접하고서야 내가 그 피해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가짜 스님’은 뉴욕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라인파크와 센트럴파크 등 뉴욕시 주요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며 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출처 불명의 플라스틱 팔찌를 주는 대가로 5~20달러의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

한 관광객은 “플라스틱 팔찌를 건넨 뒤 다짜고짜 5달러를 요구했다”며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스트에 따르면 범인들은 플러싱에 거주하는 중국계로, 관광객들로부터 강탈한 돈으로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형 객원기자

불자 리차드 기어, 신작에선 유대인役 맡아

영화 ‘오펜하이머 스트레트지’서 노만 오펜하이머 역 열연



사진출처=페이지 식스

독실한 불교로 알려진 세계적인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Richard Gere · 사진)가 새 영화에서는 유대인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끈다.

리차드 기어는 ‘불교 외교관’이란 별명을 얻을 만큼 세계 각지를 다니며 불교를 홍포해왔다. 2011년 방한 당시엔 서울 조계사와 진관사 등을 방문하며 한국 불교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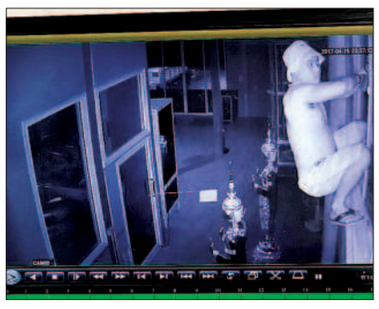
페이지식스(Page Six)는 불자 리차드 기어가 새 영화에서 유대인 역할을 맡았다고 4월 17일 보도했다. 4월 14일 미국서 개봉된 영화 ‘오펜하이머 스트레트지’에서 맡은 노만 오펜하이머 역이다. 평범한 유대인 사업가가 이스라엘 출신의 젊은 정치인 미샤 에셔를 만나며 겪는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를 다룬다.

“내 역할은 ‘hondlerd 유대인’에 속합니다. ‘hondlerd’란 뉴욕 거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 또는 정치계 수완가입니다.”

리차드 기어는 “대본을 읽자마자 난 매료됐다. 놀랄 만큼 환상적이었다”면서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햄릿〉에 등장하는 왕의 궁정 신하들로 햄릿의 옛 친구)이 햄릿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해낸 것처럼 노만 오펜하이머 역도 내게 꼭 맞았다”고 말했다.

‘오펜하이머 스트레트지’엔 스티브 부세미도 출연한다. 스티브 부세미는 랍비(유대교의 율법교사) 역할을 맡았다. 스티브 부세미는 “유대인 친구에게 조언을 얻어 랍비에 대해 연구했다. (내가 느낀 것은)랍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것”이라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4월 15일 밤 방콕의 한 사원에서 불쌍에 끼워진 보석 반지 3개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사원 CCTV에 찍혀 경찰이 수배 중이다. 사진출처=카오소드

불상 반지 훔친 절도범, CCTV에 찍혀

방콕 한 사원서 반지 3개 훔쳐 달아나

4월 15일 밤 방콕의 한 사원에서 불상에 끼워져 있던 보석 반지 3개를 훔쳐 달아난 남성을 방콕 경찰이 찾고 있다고 태국 언론 카오소드가 16일 보도했다.

왓 번스리 매니콘 사원의 주지 프라마하 카논 쿠사라치토 스님은 자정 무렵 도둑이 침입, 불상을 보호한 유리 장벽을 깨부수고 불상에 끼워진 반지 3개를 훔쳐 도망갔다고 전했다. 반지는 2개의 루비와 사파이어로 장식된 것으로 약 20만 바트(한화 약 670만원)에 달한다.

카논 쿠사라치토 스님은 “그 불상과 보석 장식의 복장을 위해 보시금 약 300만 바트(한화 약 1억 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수배 중이다. 스님에 따르면 범인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지난 1월 사원을 방문해 이곳저곳을 정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은 “도둑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절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돼지감자,연근 국내산 100%
자연 그대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재배한 돼지감자와 연근을 드시기 좋도록 자연그대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 담았습니다.



돼지감자 분말
한박스 44봉 7만원
◆효능 : 당뇨, 변비, 췌장 기능 강화,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 해열, 지혈에 탁월한 효과



연근 분말
한박스 44봉 9만원
◆효능 : 고혈압, 빈혈 예방, 피부미용, 위벽보호, 변비예방,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니코틴 제거에 탁월한 효과

음용 방법 보통 물 한 컵에 한봉지를 넣고 잘 저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등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금강식품(금강정사) 대리점모집中
경남 양산시 대동 2길 24 (어곡동)
기업은행 055-375-1398 권영로

문의 055-375-1398.010-2563-1398
지 웅 합 장

올바른 명리이론 개강 안내

四柱(명리)에서.
가족(육친)이 구성되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육신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는데 인생사와 직업을 알 수 있던가요?
잘못되어 있는 지지 장간으로 상세한 통변을 할 수 있던가요?
각 天干의 특성을 모르면서 日干의 성격과 특성을 알 수 있던가요?
12운성이 올바르지 않은데 신강 · 신약과 흥망성쇠를 알 수 있던가요?
음양, 5행, 상생 · 상극, 용신, 격국, 殺이 학문적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대운은 세월의 흐름인데 逆順의 대운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까?
일춘시간부터 년과 월은 바꾸면서 왜 日辰은 그대로 사용 하나요?
일입시간과 일입시간부터 子時가 된다는 말 들어 보셨나요?
아직도 모든 古書가 올바르다고 굳게 맹세하고 맹신하고 있습니까?
대학원을 졸업 하였는데도 여러 가지 왜 답이 없는가를 고민하지 않았는가요?
비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배웠는데도 답이 있던가요?
이론의 의문점에 질문을 할 수 있던가요?
실전(통변) 강의를 계속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있던가요.

이제 무조건 신월명리이론 입니다.

신월명리이론은 이미 명리이론의 정석이 되어 있습니다.
① 학문적이므로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② 통변 방법을 manual화하여 누구가 똑같은 답을 낼 수 있고
③ 이론을 배우고 난 뒤 알고 싶은 四柱의 통변도 계속 들을 수 있으며
④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론입니다.
인생의 이모작은 신월명리학회에서

■ 책 : 명리개벽, 절기력 I, 일주론, 음양5행과상생상극이죽어야 명리가 산다.

“자신 만만한 이론”
“세계 명리이론의 정석이 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명리이론의 학문화를 이룩한 이론”

■ 개강일자 : 2017년 5월 10일(수요일) 오후 2시, 오후 6시
■ 강의장소 : 신월명리학회 서울지회
(전철2호선 신림역 7번출구, 르네상스호텔 앞 군산아구찜 건물 303호)

신월명리학회 서울지회 02)882-4684
www.modubom.com

느낌을 놓치면 감정만 남는다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⑨



내 느낌은 어떤 것인가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저만치 가고 있다. 명상센터 앞뜰에 있는 백목련의 화려했던 모습은 자취 없이 사라지고 대신 그 가지에 연둣빛 잎들이 자리하고 있다. 뒷산에는 산 벚꽃이 참나무와 소나무 사이로 연분홍빛을 띠며 온 산을 수놓고 있다. 춘삼월 호시절이다. 꽃잎을 따서 전을 부쳐 먹는 화전놀이하기에 좋은 때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들뜬다. 가수 백설희가 부른 노래 가사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고개…"를 흥얼거려본다. 마음은 저절로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다.

'안 되겠다. 이 들떠 있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지.'

마음먹고 걸음에 주의를 두고 명상을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 잠시나마 다른 세상에 들렀다가 왔다.

우리가 살면서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느낌은 감춰지지 않는다. 나는 느낄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내 얼굴과 몸으로 나타난다. 내가 불쾌한 경험을 기억하면 느낌들은 부정적이 되고, 남들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다. 반대로 유쾌한 경험을 하면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세상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다. 인간은 타고난 조건으로써 정서와 사고, 행동의 특성이 있다. 그 중에서 정서, 즉 느낌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런 내적반응이다.

이러한 느낌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느낌은 신체에 여러 형태, 떨림, 심장이 두근거림, 맥박이 빨라짐, 소름 끼침 등으로 나타난다. 깜깜한 밤중에 길을 걷다가 길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머리끝이 솟구치고, 등에 식은땀이 나며 맥박이 빨라진다. 누군가와 언쟁을 하다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붉어지며 호흡은 가빠진다. 이처럼 느낌은 몸을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면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느낌의 경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된다. 화난 느낌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그 강도가 얕아진다. 조금 전 누군가와 다투어서 몹시 화가 났더라도 돌아서면 그 화가 언제 났는지 모를 때가 있다. 분명 조금 전에 화가 났는데, 기억으로는 남아있어도 지금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무상(無常)이다. 화는 곱씹으면 남아있지만 그냥두면 사라진다.

이러한 느낌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1차적 느낌과 2차적 느낌으로 나눌 수 있다. 1차적 느낌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의 느낌이다. 2차적 느낌은 1차적 느낌이 왜곡되어 나타난 느낌이다. 가령 복잡한 버스 안에서 한 아주머니가 애기를 업고 가방을 들고 서 있는데, 뾰족한 구두를 신은 아가씨가 그녀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고 하자. 발이 밟히는 그 순간의 느낌은 아픔이다. 이것이 1차적 느낌이다. 그녀는 아픈 발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참는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사과 한마디 없이 서 있는 아가씨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1차적 느낌인 아픔 대신에 얄밉고 화로 가득 찬 2차적 느낌만 있다.

> 육근(六根)으로 느끼는 대상
> 있는 그대로의 1차적 느낌과
> 감정 붙은 2차적 느낌 나뉘어
> "내 감정 내려놓고 바라보라"

이러한 상황을 대화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1차적 느낌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아주머니는 발이 밟히는 순간 아픔을 느끼고 큰 소리로 "아야!"하고 외쳤을 것이다. 그러면 아가씨는 놀라면서 "아이고,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고 사과할 것이다. 그러면 아주머니는 아프지만 사과하는 아가씨에게 더 이상 나무랄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요"라며 괜찮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차적 느낌인 화난 상태로 대화를 나눈다면, "아가씨! 남의 발을 밟았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냥 지나가면 어떡합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게 될 것이다. 그 화난 소리를 들은 아가씨는 "복잡한 버스 안에서 밟을 수도 있지 뭘 그래요"라고 대꾸할 것이고, 이 말에 더욱 화가 난 아주머니는 성난 말투로 "뭐예요, 말 다했어요?"라며 상황은 험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가령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골목길에서 다른 차가 나오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충돌의 위기를 면했다고 하자. 이때 우리의 1차적 느낌은 놀라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안도일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 고개를 들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순간 이처럼 위험에 이르게 된 것이 상대방 운전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게 될 것이다. 1차적 느낌이 왜곡되면서 2차적 느낌으로 변형된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본 것에서 생각이 개입된 것이다.

이러한 느낌을 대화로 연결해 보자. 양자 모두 1차적 느낌으로 만난다면 어느 쪽이든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라든가 "미안합니다. 제가 좀 바쁘게 서두르다 그만"이라고 말하면서 험악하게 될 상황이 쉽게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나 2차적 느낌으로 말한다면, 상대 운전자를 향해 "야 이 자식아! 운전 똑바로 해" "뭐야 이 자식아! 너도 조심했어야지!"라며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이처럼 2차적 느낌으로 만난다면 자동차는 부딪히지 않았지만 결국 사람은 크게 다치게 될 것이다.

1차적 느낌은 순수하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느낌을 표현하고 나면 정화작용이 일어난다. 느낌은 표현하지 않으면 미결과제로 남아서 새로운 경험에 방해가 된다. 그 순간 일어난 부정적 느낌은 그 순간에 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처방법이다. 그 순간 해결하지 않고 남겨 둔다면 두고두고 따라다니면서 그 감정으로 인해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방해할 것이다. 우리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장의 일부다(Waters, 2000). 우리는 미세한 에너지(생명력)를 감지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자신의 에너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느낄 수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연민, 용기, 용서, 신뢰와 같은 삶의 원동력으로 우러나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도록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를 편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는 약해지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우리 자신의 에너지가 분노, 욕망, 섹스, 미움의 에너지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인생은 초라하게 될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한 상담봉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1차), 반복되자 화가 났다(2차). 그래서 2차적 느낌으로 "앞으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오지 마세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그 분은 "좋아요. 그럼 다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갔다. 그 순간 나는 당황스럽고 낭패감이 들었다. 그래서 재빨리 그 분이 나간 문으로 따라 나가면서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라고 간곡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 분은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일촉즉발, 그 분과 내가 영원히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 했던 순간이었다. 그렇다. 1차적 느낌을 놓친다면 아름다운 인생도 놓치게 될 것이다.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여러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 대상들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는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밖의 대상인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등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감각대상과 만난다. 이때 만남이 일어나는 현상을 아무런 생각의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다.

만일 눈으로 들어오는 대상인 어떤 여성(1차적 대상)을 보았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 예쁘다, 말이라도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킨다(2차적 대상). 그러나 명상에서는 여성이라는 대상을 그냥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람' 으로 알아차린다. 만일 1차적 대상이 아닌 2차적 대상인 '좋다, 예쁘다' 라는 느낌을 가진 대상으로 만나면 취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이 욕망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강해지면 결국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가령 눈으로 가방을 본다면 '가방이 멋있다. 나도 저런 가방을 가지고 싶다' 등으로 대상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을 '알아차림이 없다' 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없이 보는 것에는 '좋다, 나쁘다, 가지고 싶다' 등의 탐(貪) · 진(瞋) · 치(痴)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냥 '가방' 일 뿐이다.

이처럼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상에다 집중하고 관찰하다 보면 대상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알아차림이 지속되면서 그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1차적 느낌은 상황이 일어나는 그 순간의 느낌이니 1차적 대상 자체를 말함이요, 2차적 느낌은 왜곡된 느낌이니 감정이 개입된 2차적 대상을 말함이다. 처음 일어나는 느낌과 처음 마음이 가는 대상은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다. 1차적 느낌에는 헤매는 마음이 없고,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래서 만나는 그 순간의 대상은 '있는 그대로' 의 느낌이요, '순수한' 대상이다.

인간은 출생 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원하든 원치 않든 필연적으로 관계를 통해 느낌으로 만난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 그의 인생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옳고 그름으로 인해서 생기기보다 감정으로 인해 생긴다. 관계에서 1차적 매체는 느낌이다. 느낌을 놓치면 인생도 놓치게 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신 겁니다!



그림 · 최주현

부처님 전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겠지요

질문 며칠 전 선원에서 초파일 장엄등 점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불교문화회관 주위가 마치 부처님 계신 룸비니동산인 듯 환희롭고 장엄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본래 고정되게 나뉘어 있지 않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큰스님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불자들이 해년마다 올리는 연등공양이 마음과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겠지요?

답변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해 주셨지만 한 마디도 한 사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어떠한 것인가. 삼천 년 전이나 삼천 년 후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우리 깊은 마음속에 항상 살아 계십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그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부처님 봉축일은 찰나찰나 봉축일이며, 오신 것이 없기에 가신 것도 없이 영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계시어 무시무종 일승공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계의 50%를 모르면서 물질계의 50%만 가지고 살아나가시려니까 힘들고 얽매이고, 또 애고나 업보나 유전성, 세균성, 영계성까지도 타파를 못하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한마음으로 일체 만물만생 어느 것이든 아니 되시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원할 때에는 한 찰나에 응신으로서 관세음이 돼 주시고, 명이 짧다 하고 구원을 청할 때는 항상 칠성 부처가 돼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간다 하고 소원을 하면 지장이 돼 주시고, 물에서는 용신이 돼 주시고, 길에서는 지신이 돼 주시고, 독성이 돼 주시고, 산신이 돼 주시고, 아프면 바로 약사가 돼 주시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어느 거 하나 아니 되시는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부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어느 자리에든, 어느 골골에든 부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삼천 년 전이 바로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이요, 오늘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될 때에 내가 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부처가 왜 없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너무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부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들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데 왜 사랑이 없다고 하는가. 사랑하기 이전에 바로 내 아픔이요, 내 몸이요, 내 자리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안 한다 하는 언어가 붙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게 자비심이라. 여러분은 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보고 절을 하실 때 어떠한 생각으로 절을 하시는가요? 부처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컵도 바로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한 겁니다. 저 부처님도 (등 뒤의 부처님을 가리키시며) 이 세상에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생각으로서의 마음이 없다면 저 부처님을 모실 수도 없죠. 부처님은 너무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와도 둘이 아니요, 변소에 가도 둘이 아니요, 어딜 가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그렇게 가깝게 두고 있으며, 위 속눈썹 아래 속눈썹이 한 찰나에 깜짝거리듯이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게 그렇게 같이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부처님도 삼천 년 전의 부처님만 계시다고 생각지 마시고 삼천 년 전만 아니라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도 부처님은 계셨고, 지금도 부처님은 계시고, 미래에도 부처님은 영원히 끝 간 데 없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있는 한, 생명이 살아 있는 한, 또 생명이 이렇게 푸르르게, 생동력 있게 움죽거리는 한 아마도 그 뜻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말세니 말세가 아니니 운운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린 영원히 물 흐르듯이, 발 없는 발로, 손 없는 손으로 어디 안 닿는 데가 없고 아니 딛는 데가 없이, 내 몸 아닌 게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근본적인 무가 무엇입니까

질문 근본적인 무가 무엇인지요. 근본적으로 무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지금 저기 물이 흘러 돌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 돌고 있는데 끊임없습니다. 그 물은 여기서 흐르나 저기서 흐르나 똑같이 흘러서 제자리로 항상 모입니다. 또 위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돌기도 같이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만약에 산으로 비유한다면 저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낮은 산이 있으며 낮은 산이 없다면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흘러 도는 이 자체가 바로 무의 세계 유의 세계와 같이, 우리가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린 항상 살아 있는 겁니다. 저 물이 흘러서 돌듯이 항상 몸은, 예를 들어서 저 이파리가 떨어져서 낙엽이 졌지만 그 이듬해 봄이 오면…. 물론 어떤 곳은 봄도 없고 가을도 없나 봅니다만 말입니다. 하하하. 항상 나무뿌리는 살아 있듯이. 그거는 설명을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은 그냥 저 물이 흘러 돌듯이 도는 것입니다. 산이 높고 낮고 이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낮은 게 있기 때문에 높은 게 있고 높은 게 있기 때문에 낮은 게 있는 것이지 낮은 게 없는데 어떻게 높아 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가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을, 찰나찰나 돌아가는 것을, 이 물이 끊어짐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마음을, 나를 증득해서, 내가 나기 이전을 발견해서 만약에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생기고 모든 걸 통달한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 없어. 이것이 무야. 왜 없다느냐. 번연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없다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근본 자체는 영원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근본 자체가 살아 있고, 근본 자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고,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움죽거릴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그대로 다 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달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모두. 나 나기 이전과 나와 결부돼야만이, 깨달아야만이 그 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설을 해서 이것이 정법 사법이고, 이것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이 각자 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을 내고 바깥으로 움죽거리고 이러시지, 만약에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관계상, 그게 고정된 게 없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이 진리가 공했다 이 소립니다. 이거를 알아들으려면, 이거를 알려면 깨달아야만 안다 이겁니다. 그거는 말을 해 가지고 아는 게 아니니까. (컵을 들어 보여 주시며) 이게 그 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마를 때 물 한잔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게 법이에요. 무도 되고 법성도 되고 불성도 되고, 불성이 없으면 그렇게 받을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도 모르는 것은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 나기 이전 과거의 나를 발견해야만이 현재의 모든 걸 똑똑히 보고, 모든 걸 똑똑히 처리하고, 똑똑히 이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고, 부처님과 일체제불과 한마음이 돼서 한마음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일체제불의 마음

☞ A18면으로 계속

피가 돌고 맥박이 뛰는 살아 있는 깨달음, "아리랑"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깨침 아리랑

* 대현 지음 / 264쪽 / 값 15,000원

"나"를 떠나서는 십리도 못 가 발병 나리니
여보게들, 제발 제발
이 "나"를 속살 깊이 연구하여 보세나.
길은 안으로 안으로 놓여져 있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깨침 아리랑

우리 민족은 지구촌 어느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든지 아리랑 노래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고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리랑에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독특한 한(恨)이 서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아리랑 가사 속에 스며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민족의 한과 정서가 깃든 아리랑의 유래를 알아보는 일은, 한맺힌 아리랑 노래를 "깨침의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 대현 스님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 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셨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신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고 계시던 중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에서 정진중이시다.
저서로는 『선승의 길』, 『선을 배우는 길』, 『위빠간화선』이 있다.



위빠간화선

* 대현 지음 / 160쪽 / 값 12,000원

위빠간화선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하나로 통합한 "선수행의 길라잡이"

늘 깨어 있어 알아차리면서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기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 처음 위빠간화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들떠 요동치는 업식을 잠재우는 시간이 길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짧아지고 화두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보면 화두 의단이 독로하여 앉고 서고 가고 오고 말할 때 한결같게 된다.



그림과 함께 읽는 한영대역판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석탄일 법보시용
산청 정각사에서 정가의 50%를 지원합니다
문의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070-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왔으면 멋지고 당당하게 사세요

☞ A17면에서 계속

은 내 한마음이요, 일체제불의 법은 내 한마음의 법이고 생활이고, 그렇지 않아요?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선행을 저지르는 것도 내 한마음입니다. 부처 마음이 따로 있고 중생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 중생은 둘이 아니다. 높고 낮음도 둘이 아니요, 동서가 둘이 아니요,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일체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려면 나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그 도리를 증득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증득하고 나를 발견해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그 도리를 환하게 통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아들 올바르게 이끌어 주려면

질문 저희 아들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삐뚤어진 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을는지요. 아는 스님께서 조상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니 천도재를 올리고 정성을 많이 들이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시던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민이 많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 지금 저 나무가 보이시죠? 나무로 비유한다면, 저 나뭇가지와 이파리가 어떡하면 싱싱하게 잘 자라겠습니까? 그 뿌리가 싱싱하고 잘돼야 그 가지도 이파리도 잘되겠죠? 그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에다가 맡겨 놓으면 자식이라는 주인공 뿌리에 바로 거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몸이 얼마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머리의 지혜가 늘겠습니까?

또 서로 인과의 업보를 지고 끼리끼리, 깡통끼리 만난 가족들은 자식들이 공부도 팽개치고 집을 나가서 도둑질이나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놓고 진정으로 관하면 그 업보는 녹아지고 새로이 화해서, 그 마음이 재생이 돼서 이끌어지니 아들은 출중해지더라 이겁니다.

어느 노인 한 분이 안양에 오셔서 말을 하는데, 며느리가 죽고 그 국민학교 다니는 손자가 하나 있는데 며느리를 새로 얻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새로 얻은 며느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손자가 자꾸 아버지 어머니의 주머니, 어머니 서랍을 뒤져서 다 가지고 나가선 쓰고, 또 선생님께 육성회비 갖다 주라고 주면 나가서 친구들하고 다 까먹고 입 씻고 닦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것이 탄로가 날 테니까 저녁이면 몰래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의 마음에 어미도 없는 그 손자가 얼마나 불쌍하겠소.

그러니까 항상 오셔서 눈물을 질금질금 흘리는데 한 번 두 번은 모르겠더니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어휴! 그 할머니의 마음이 내 어머니 같고 그 손자가 바로 내 자식 같더라 이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선…. 그 노인이 울면 사실은 나도 귀찮다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땐 같이 울 때도 있고 어떤 땐 같이 웃을 때도 있지만 그 울고 웃는 것이 떳떳하더라 이겁니다. 고립돼서 살아야 떳떳하지 않지, 자유스럽게 사니까 떳떳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한 찰나 살림살이가 떳떳하다 하는 건 자유스럽게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오셔서 "아휴,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이젠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해지고, 학교에도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던 게 싹 없어졌습니까?" 그러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몸뚱이 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말을 안 듣는다 해서 몸뚱이를 붙들어다 놓고 아무리 때려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소를 끌고 가는데 소를 치는 게 아니라 달구지를 치는 셈이라는 소리지요. 달구지를 치는데 어떻게 소가 가겠소! 그러니까 주인공에 그 모든 것을 놓았을 때 바로 아들에게까지 통해서 그 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업보가 녹아지는 거죠. 어머니의 업보가 녹아지면 아들의 업보도 녹아지고 아들의 업보가 녹아지면 어머니의 업보도 녹아지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당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천도, 천도 하지만 산 사람 천도와 죽은 사람 천도가 둘이 아니에요. 누가 죽어서 천도를 해 달라고 그럴 때 손가락 하나만 끄떡해도 되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 하나만 잘하면 천도가 저절로 될 거를, 그렇게 좋고 웃음이 날 거를…. 아주 그냥 한 찰나에 요리가 착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바깥에다 놓고 빌고 온통 야단을 하죠. 그것도 멋진 짓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모두 귀신 짓들이라 이겁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먹기 위해서 살겠소? 살기 위해서 먹지요. 좀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렇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만날 고립돼서 살지 말고 노예로 살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왔으면 멋지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의 길을 걷나니라

질문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에 보면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共生)·공심(共心)·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共食) 하며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苦)의 길을 걷나니라."라고 풀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조용히 뜻을 음미하면서 독송을 자주 하는데, 그 뜻을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야심경』에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모든 게 공하였느니라." 이랬죠. 그런 걸 내가 "고정됨이 없이 나투기 때문에, 찰나찰나 나투기 때문에"라고 붙여 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모두가 공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몸속에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있는데 목이 마르다고 속에서 "나 물 좀 주시오." 하고 말은 안 해도 내 목이 마르단 얘깁니다. 그거는 속의 중생들이 물을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목이 마른 겁니다. 내가 그냥 목이 마른 게 아니고 수분이 떨어지니까 수분을 넣어 달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 컵 마신단 말입니다. "아이, 시원하다." 이러죠? 그러면 그 속에서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 같이, 하나도, 요런 티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조그만 생명들도 다 같이 먹었단 얘깁니다. 더불어 같이 먹었으니까 공식했죠? 그리고 공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심이란 말입니다. 또 공체죠? 여러분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작용을 해 주니까 여러분의 몸이 움죽거리게 돼 있죠. 혼자 움죽거리는 게 아니라 그 수만의, 헤아릴 수 없는 수만의 생명들이 움죽거리게 되니까 큰 몸 하나가 움죽거리는 겁니다. 그러니 공체면서 바로 공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더불어, 내가 물을 마셨는데 내가 물 마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나는 물을 마셨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버지 노릇만 합니까? 오빠 노릇도 하고 형님 노릇도 하고 아들 노릇도 하고 사위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하고, 별 노릇 다 하고 다니시죠. 그런데 어떤 거 할 때,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걸 먹었을 때, 어떤 걸 봤을 때, 어떤 걸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먹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공심이에요. 공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해서 바뀌면서 하는 걸 화해서 바뀐다, 화해서 찰나에 나툰다고 합니다. 이거 봤다가 저거 보고 저거 봤다 이거 보고,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했다 저 일 하고 이러는 것이 나툰다는 거예요. 한 찰나 찰나 나툰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화해서 자꾸 나투면서 다른 활동을 하고 다른 생활을 하고, 달리달리 자꾸자꾸 보고 듣고 행하고 이렇게 하곤 쉴 새 없이 나간단 얘깁니다.

그러니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모두가 공했느니라 이겁니다. "없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이 나가죠. 그러니 없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닌 그 가운데에 바로, 내가 똥 누러 갈 때에 똥을 눠야 하나 안 눠야 하나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그냥 싸 버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단간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걸 표현한다면, 전깃불을 켜려 해도 쌍방이 한데 어우러져야, 줄과 줄이 어우러져야만이 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어우러지게 해 놓고 또 가운데 스위치를 눌러야 들어온단 얘깁니다. 자유스럽게 끄고 켜고 할 수가 있단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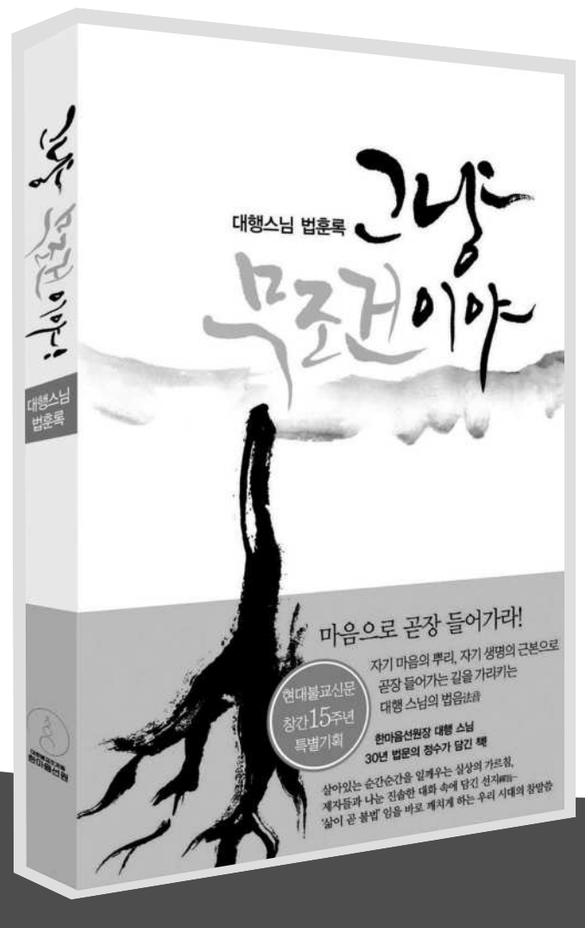
옛날에 선지식들의 말씀이 "너는 무슨 공부를 하고 한 철을 나고 왔느냐?" 하니까 "나는 졸리면 잠자고 똥 마려우면 똥을 눴고 배고프면 밥을 먹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야, 이놈아! 누가 밥 먹을 줄 모르고 똥 눌 줄 모르고 잠잘 줄 몰라서 그러느냐!" 하고 내쫓았겠죠. 그런데 어느 스님도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내쫓겼답니다. 부목으로 내쫓겼는데도 흥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냥 나무를 해서 펑펑 패다가 그거를 한 아름씩 안고 이 아궁지 저 아궁지로 다니면서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벌이 어쩌다가 방에 들어서 창살이 문인 줄 알고 쪼다가 그냥 몸뚱이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그런 노래를 만날 하면서 주지 방 앞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경전을 그렇게 읽으셔도 몸 떨어지면 입 떨어지고 또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고, 그러니 무엇을 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하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도 아무리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먹기 위해서 살지는 마세요. 살기 위해서 그냥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 법이, 부처님 한생각이 그렇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한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뚱이로 그냥 한 발짝 두 발짝 떼어서 천 리를 가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몸뚱이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얼마가 걸리는 줄 아십니까? 아마 수 광년이 걸린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한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생각이라는 게.

나는요, 여러분이 이 도리만 알면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왜들 그렇게 찌들려서 붙잡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 가정에 앉아서도 자기 한생각으로써 회사에 모든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생명들 전체가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기계도 생명이 있고 이름이 있고, 바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물건 하나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이 움죽거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저거는 움죽거릴 수 없다 하니까 그냥 움죽거리지 못하는 걸로, 그냥 우리가 쓰기에 달렸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대를 받고 어떻게 100% 잘되게끔 같이해 줍니까? 돌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이 생명이 있는, 살아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얘기들을 하고 모두 회의들도 하고 토론도 하고, 모두 그렇게 하고들 지내요. 그런데 여러분 육안으로 보질 못해서 그렇죠.

그래 여북하면 여러분에게 '자신(自神)'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몸과 신(神)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모든 게 신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신과 신이 둘 아니게 똘똘 뭉쳐서 너도 주인 나도 주인이니 모든 것을 주인이 한마음으로써 이끌어 가는 거니까, 이끌고 가는 선장이 모든 것을 하는 거니까 '선장이 전부 하는 거니까' 하고 다 맡겨 놓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형성시킨 참자기와 현재에 형성된 자기가 상봉을 하게 하느라고 그러는 겁니다. 상봉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무(無)의 공부를 못하니까요. 그 천차만별의 뜻을 가진, 중용을 하는 이 뜻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상봉해야만이 스승을 좇아서, 즉 말하자면 참나를 좇아서 무의 공부를 하면서, 또 현재 나를 통해 보고 듣는 대로 감지하는 바로 무의 참나는 같이, 같이같이 찰나찰나 보고 듣고 이러면서 들이면서 내면서 공부를 해 나간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우리 깊은 마음속에 항상 살아 계십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미세먼지, 바라만 보고 있을건가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매년 봄 찾아오는 미세먼지
이젠 삶을 위협하는 '환경난제'
원인은 중국 · 국내 모두 있어

한국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예산 감축 '말잔치' 불과
화력발전, 20기 추가 건립 예정

종교 기후변화 대응 불교 '꼴찌'
불교, 재생에너지 도입 고민해야

봄은 춥지도 덥지도 않고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시냇물은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른다.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즐겁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연이 선물한 봄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있다. 바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때문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중국 발 미세먼지이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이든 우리 정부가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지난해 6월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대책이라는 것이 말잔치에 불과했다.

미세먼지 관련 올해 정부 예산을 보면 낡은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조기 대체하기 위한 예산은 11.8%,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예산은 30.9%나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낡은 발전소 10기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폐기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SK의 당진에코파워 발전소가 주민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에도 승인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20기의 신규 발전소가 건립될 계획이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한국은 2015년 파리기후총회에 참여하면서 2030년 BAU(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대비 37% 라는 자발적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런데 올해 3월 중순 OECD에서 발간된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대비 2013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9% 증가하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전기를 절약하고 가정에서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종교환경회의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종교간 대화마당을 진행했다. 발표 자료 중에는 종교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제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불교만 유난히 낮게 나타났다. 이웃종교인 원불교에서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태양광전기를 사용하는 교당이 100곳을 넘었다는 발표도 있었다.

불교환경연대는 몇 년 전부터 에너지공단 경기본부와 사찰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을 한 사찰은 없다. 생명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불교의 관점으로 볼 때,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와 불안한 미래의 후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종단에서는 사찰에 맞는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찰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도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또 불자들은 이웃주민들과 마을마다 햇빛발전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온전한 봄을 다시 선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社說

고요한 소리 30주년의 의미

30년. 사람으로 따지면 청년의 시기다. 공자는 〈논어〉에서 30세를 '이립(而立)'이라고 했다. 학문의 근본을 세워 나아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고요한 소리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4월 15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창립법회와 중도포럼이 개최됐다. 1987년 활성 스님이 중심이 돼 창립한 (사)고요한 소리는, 30년 동안 불교 경전 원전 번역이라는 대작불사를 수행해 왔다.

기실, 1980년대 한국불교에서 초기불교는 불모지와 같았다. 초기불교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원음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필요했다. (사)고요한 소리는 근본불교 대장경인 빠알리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불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스리랑카 불자출판협회(BPS)에서 간행한 양질의 불서 및 논문들을 국내에 번역 · 소개하고 있다.

30년 동안 △금구의 말씀 △소리 △법륜 △보리수잎 등 4개 시리즈를 통해 81권의 책이 출간됐다. 이들 책자들은 초기불교는 물론 불교실천론, 응용불교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였다. 특히, 초기불교 · 근본불교가 한국불교계에서 대중화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창립기념법회에서 (사)고요한 소리 창립자이자 회주인 활성 스님은 첫 대중 법문을 통해 중도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은 처(處)와 도(道)를 구분했다. 처는 집이고 도는 집을 벗어나서 향상일로를 걷는 것이다. 향상의 삶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사)고요한 소리의 나아갈 길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바로 '향상의 삶'이다. 나를, 이웃을, 사회를 향상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사)고요한 소리의 나아갈 방향이다. '향상일로'의 (사)고요한 소리를 기대한다.

차별없는 세상, 이주민 인식 개선부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주민 단체들이 각기 봉축법회를 열고 있다. 인천 황룡사의 베트남 불교법회, 캄보디아불교센터의 쫄쯔남 축제, 서울네팔법당과 양주 마하보디사의 봉축법회 등이 그것이다. 평택 마하위하라 사원에 다니는 스리랑카 불자들은 5월 7일 예정된 봉축법회에 사용될 전통등을 6개월째 준비하고 있다니 이들에게 불교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00만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의 수는 2050년까지 600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측도 있다.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언어의 장벽은 물론 풍습과 문화의 차이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3D직종의 험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배척당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은 물론 의료 ·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해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학교에 가도 따돌림을 받는 이들이 태반이다.

심지어 사찰에서도 마찬가지다. 법회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찰 참배에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시며 모든 중생의 평등과 화합을 외치셨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지금, 불자 이주민들을 비롯해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첫 걸음은 '차별없는 시선'이다. 모두가 화합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불제자들의 화두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자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문수지혜도 바보 셋 모여야 나와

2017년 조계종 첫 사부대중공사가 끝났다. 3년차에 접어든 대중공사는 초창기에 비해 규모를 많이 축소했다. 그간 위원들의 낮은 출석률을 감안할 때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백년대계본부 출범과 함께 힘차게 문을 연 대중공사는 극심하게 낮은 출석률로 '올해 첫'이라는 의미를 무색케 했다. 오전에 진행된 출범식에는 100여 위원 중 8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중요한 토론에 절반만이 참여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심지어 한 모둠은 5명밖에 모이지 않아 다른 모둠과 통합해 토론해야 했다. 6개 모둠별 배정인원이 15명 이상이니 충격적인 참석률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더욱이 몇몇 위원은 모둠토론 중간에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뜨기도 하면서 흐름이 끊기는 일도 있었다. 결국 종합토론에는 40여 명의 위원들만 자리를 지켜 텅 빈 회의장이 연출됐다.

이 때문에 행사 말미에는 저조한 참석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구에서 올라온 현각 스님은 "지방에서 올라올 때는 큰 기대를 갖는데 내려갈 때는 허전한 마음을 안고 간다. 대중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대중공사는 한국불교가 살아갈 길을 열어가는 자리다. 보통자리가 아니다. 결코 빠지지 않겠다는 원력 없이는 조계종이든 한국불교든 바꿀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 역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인원 차이가 크다.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고심한 내용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대중공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번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스님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이 사부대중공사에 며칠 앞서 비슷한 주제로 열린 종단주요소임자 대중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할까? 그렇다면 차라리 사부대중공사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이 더 적합했을 것이다.

2015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시작하며 대중이 낭독한 발원문에는 여법한 토론을 위해 "온전히 하루를 비우자"는 내용이 담긴 '동참자의 약속'이 명시돼 있다. 물론 지금의 발원문에서는 빠진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니리라.

'바보 셋이 모이면 문수지혜가 생겨난다.' 사부대중공사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이기도 한 이 문장은 바꿔 말하면 문수지혜가 생겨나기 위해선 일단 바보 셋이 모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하고, 백년대계를 모색하려면 대중이 뜻을 모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출석률로 과연 문수지혜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사부대중공사는 분명 한국불교계 토론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부대중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상대방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에 밑바탕이 됐다. 적극적으로 대중공사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이에 대해선 높게 평가하며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운다. 물론 토론시간 부족이나 광범위한 주제, 제도화 미흡 등 지적도 뒤따르지만 이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위원들의 의지가 아닐까.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고작 3년차에 동력이 떨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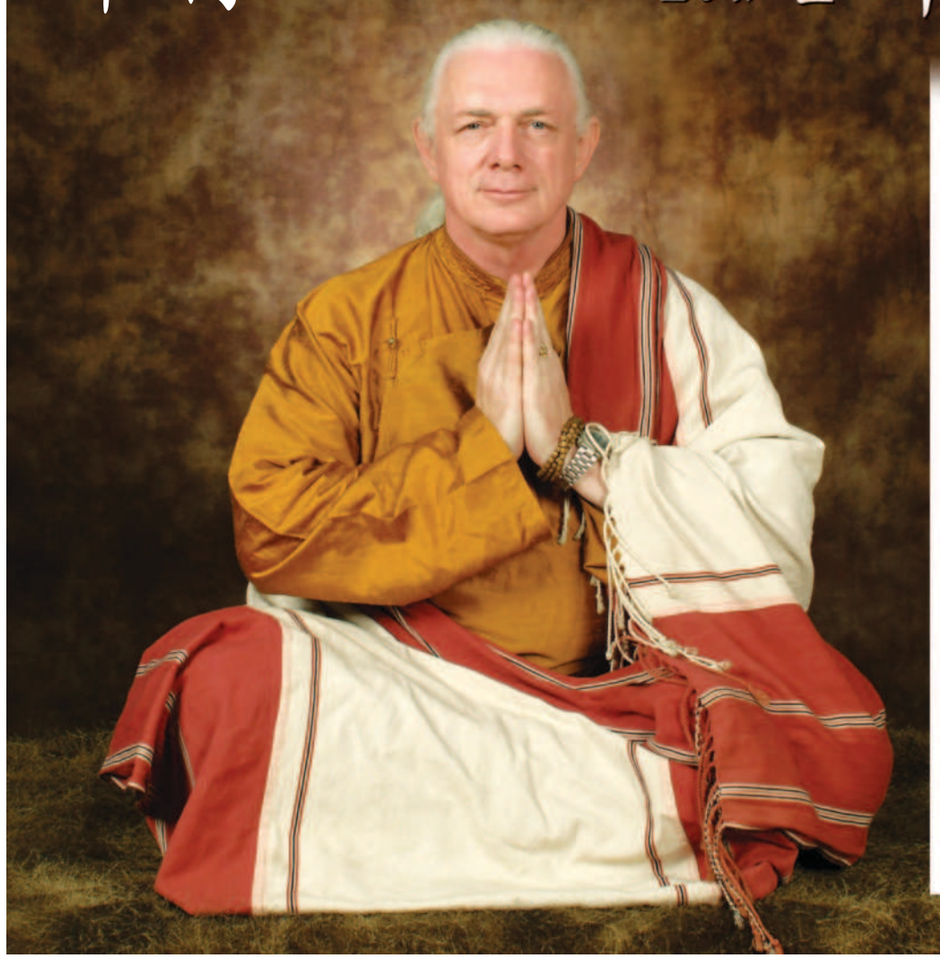
육임 직접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월령도 } 각 60만원
주역, 명리, 성명학 – 각 40만원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 연 정 사 운암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오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 1실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2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2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7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 녀 평생 모십니다.
• 1인 1실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 입주시 1천만원
• 부부실 :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4천만원 입주시 3천만원
【 1층 – 부부 4쌍 8분 / • 2층 – 거사님 4분 】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괘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奉行



2017년 라마글렌 방한 티벳불교 수행법 전수

[라마글렌의 티벳 불교 수행차제 일요강좌]

● 법련사 일요법회 : 4월 23 ~ 5월 21일 오후 2:00 ~ 4:00

티벳불교의 수행차제 ❶	티벳불교의 수행차제 ❷	티벳불교의 수행차제 ❸	티벳불교의 수행차제 ❹	티벳불교의 수행차제 ❺
4월 23일(일)	4월 30일(일)	5월 7일(일)	5월 14일(일)	5월 21일(일)
공성과 명상, 직업 : 행복한 삶을 위한 티베트 불교의 처방	살아있는 보살이 되는 법 : 인도와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들의 안내	딴뜨라 방정식 : 만뜨라, 만달라와 붓다 요가	뚬모와 꿈요가	자비와 지혜,힘(수단) : 세 분의 핵심 보살(관음, 문수, 지금강)에 대한 명상과 만뜨라

■ 장소 : 서울 법련사(서울 종로구 삼청로 10) ■ 문의 : 법련사 02-733-5322, 청월 010-8395-8881, 라모 010-2061-5957

[부처님 오신날 라마글렌 大安寺 법회]

5월 3일(수) – 부처님 오신날, 라마글렌 대안사 법회

■ 장소 : 대안사 (충남 아산시 문화로 123-17) ■ 문의 : 덕진 주지스님 010-5431-0777

NAVER cafe.naver.com/lamaglenn(라마글렌)

(現) 달라이라마님의 주 스승이신
전생 깝제도제창님과 링린포체님 수제자, 현 달라이라마 법제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날

붓다 데이? 부처님 오신데이!!

2017년 5월 3일(음력 4월 8일)
다시 부처님을 만나니 즐겁지 아니한가~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Btv HD 305번 U+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GOOD.CO.LTD | 문의전화 02-365-7747 | 오시는 길: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 대불광빌딩2층 www.mahayeon.com

인연이 닿아야 갈수있는 곳 천불천탑의 부처님 나라 미얀마

미얀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따야]
미얀마 7일(3대 성지)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미얀마 5일 [양곤-바간-헤호]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할인 행사

행복한 불교왕국으로의 행복한 순례

부탄



>> 259만원 시즌한정 특가!
>> 6/27, 8/24 단 2회 출발
>> 전 일정 4성급 호텔 이용
>> No 쇼핑, No 옵션

부처님의 탄생지에서 열반지까지 인도 네팔 8대 성지 순례 11일

남방불교의 진수 스리랑카 6일
하늘과 맞닿은 불교성지 티벳(하늘열차) 8일
부탄-네팔 8일

라오스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라오스의 심장 팟루앙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6일 HOT
하롱베이-씨엠립

세계3대 불교사원 보로부두르

인도네시아 7일
족자카르타-발리
대만 5일
3대사찰 순례
태국 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

4대 불산 990,000~ 중국

[지장도량]구화산-[관음도량]보타산6일
[문수도량]오대산/북경/ 5일
[보현도량]성도/어미산/낙산대불 5일
[지장도량]구화산/황산/상해 4일/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태항산-천계산-요산(208m중원대불)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청도/곡부/태산6일(웨러크루즈)
[관음도량] 보타,낙가산/상해 4일/5일

현대불교 Mandala

현대불교 제 1145 호



‘불교문학’ 한 길 걷는 산문 밖의 수행자



정찬주 소설가가 최근 시리즈로 집필중인 소설 〈이순신의 7년〉을 펼쳐보고 있다. 이 작품에는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수많은 승장들이 조명된다. 이 시대에 맞는 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정찬주의 인생은 옛 고승들의 삶과 닮아 있었다.

산문 밖의 禪 소설가 정찬주 (무염·65)



정찬주 소설가가 법정 스님과 함께 한 1987년 송광사 여름 모습.

文心과 佛心, 동시에 싹트다

중2 때 시(詩)로 백일장 장원

동국대 불교학생회로 불연 맺어

쌍봉사서 습작과 불교에 심취

불단 부처님 닦다 부처님 만나

근현대 선지식과의 인연

〈샘터〉 입사, 법정 스님 인연

법정 스님 산문집 10권 출간

‘무염’ 불명 받고 사제 인연

3천배 대신 원고 3천매로

성철 스님 〈산은 산 물은 물〉 출간

“글쓰기의 고행을 내 삶의 본질로 받아들였죠. 고행이지만 힘들지 않죠.” 고행을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수행’일 것이다. 수행자가 고요한 자리를 찾아 아득한 길을 가듯이, 그렇게 써온 글은 세상을 돕는 글이 되었으며, ‘불교문학’이라는 불문(佛文)의 한 자리를 이루었다. 〈암자로 가는 길〉, 〈산은 산 물은 물〉 등 수 십 편의 불교소설과 산문을 써온 소설가 정찬주가 그 글의 주인이다.

부처님 쪽으로, 부처님 쪽으로

주름진 이마 위로 백발을 이고 백발 위에 다시 하얀 불공쌀을 이고, 할머니는 십리 길을 가뿐이 나선다. 언제부터인지도 아득해진 길. 지팡이 같은 두 발로 고개를 넘고 바람 같은 허리로 산허리를 돌면 닿는 곳, 화순 쌍봉사. 할머니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간절한 두 손을 모아 기원한다. 기원은 후손의 안녕. 불가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할머니가 정성을 들인 후손 중의 한 사람은 바로 손주 정찬주. 한 가계(家系)의 서사는 그렇게 소소한 정성이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훗날 정 작가의 글과 인생이 바람이 불듯 부처님 쪽으로, 부처님 쪽으로 향한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정 작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내 백일장에서 시를 써서 장원을 한다. 미술에 관심이 깊었던 미술학도 정찬주는 그 일을 계기로 화단이 아닌 문단 쪽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글맛을 본 소년 정찬주는 많은 책을 찾아 읽기 시작한다. 세 들어 살던 월부 책 판매원 덕분이었다. 당시엔 그런 직업이 있었다. 집엔 책이 넘쳤다. 〈세계문학전집〉, 〈셰익스피어전집〉, 〈톨스토이 인생독본〉 등 청년기에 읽어야 할 책들이 거의 다 있었다. 정 작가는 그 책들을 모조리 읽었다.

“아마도 지금까지 그 시절에 읽은 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정찬주의 꿈은 ‘문학’으로 바뀐다. 소년 정찬주는 문학의 꿈을 키워갔고, 곧 대학 선택의 길목에 선다. 선택은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불교재단인 ‘동국대’라는 이름에 그냥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양주동, 미당, 이병주 등 교과서를 통해 동경해 왔던 우리 문학의 큰 이름들을 동국대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유는 그것뿐이었다. 불가에서 세운 ‘동국대’라는 이름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당시 정 작가는 다른 학교에 이미 합격했지만 미련 없이 동국대로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불연이 시작된다. 그는 입학 후 불교학생회를 찾아간다. 그 역시 설명할 수 없는 바람이었다. 부처님 쪽으로 부는 바람이었다.

“어린 시절, 집안의 호불교적 정서가 ‘인연’의 ‘연’이라면 불교학생회 활동은 ‘인’이라고 생각해요. 직접적인 계기인 것이죠. 단순히 취미활동을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불교 공부를 하고 싶었고, 불교적인 분위기에 좀 더 다가가고 싶었죠.”

정 작가는 사찰순례 등 불교학생회 활동을 통해 불교라는 울타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싶었다. 정 작가가 중학교 시절, 집안에 넘치던 책을 통해 문학적 자양분을 얻었던 것처럼 불교학생회는 정 작가에게 불제자로서의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거리 떠나 쌍봉사서 부처를 만나다

강의실과 교정에 있어야 할 신참내기 대학생 정찬주는 담요 한 장과 수건 한 장 그리고 원고지를 등에 지고 깊은 산길을 걷는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쌍봉사. 기차역에서 삼십 리를 걸어야 했다. 할머니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절 쌍봉사. 여전히 쌍봉사는 오지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의실 대신 거리로 나갔죠. 독재의 시절이었어요. 더 이상 부풀어 오를 수 없는 풍선처럼 모든 것들이 터질 일만 남은 그런 시절이었죠. 결강은 두세 달씩 장기화되었고, 학생들은 거리에서 살았죠. 저 역시 시대적 요청에 전적으로 공감했고 집회에도 참가해봤지만 왠지 거리로 나서는 일이 저와는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어요. 넘치는 생각이었는지, 부족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방법이었으면 했어요. 예를 들면 ‘글’ 같은 것이죠.”

정 작가는 글을 써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였다. 무슨 글을 써서 세상을 움직인단 말인가. 정 작가는 학우들과 함께 거리에서 있지 못하는 대신 원고지 위에 서있기로 했다. 그렇게 정 작가가 습작을 하기 위해 찾아 나선 곳, 거리에서 쓰러져야 했던 학우들을 생각하며 그들처럼 쓰러질 수 있었던 자리는 다름 아닌 쌍봉사였다. 이쯤 되면 바람이 부는 것에도 이유가 분명 있는 것이리라. 이유 없이 부는 바람은 없는 것이리라. 할머니가 불가의 가계에 손주의 이름을 올린 곳. 어느 날 그 손주는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해 그 자리를 찾았던 것이다.

숨 막히고 치열한 순간이 펼쳐지는 시위의 현장과는 다르게 절은 적막, 또 적막했다. 정찬주도 적막했다. 막상 원고지 위에 서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글이 그렇게 쉽게 써지는 것이 아니었다. 주지 스님이 출타라도 하는 날엔 공양주와 정 작가뿐이었다. 정 작가는 심란한 마음을 잡기 위해 빗자루와 걸레를 들었다. 어느 날, 정 작가가 불단에 올라 부처님을 닦고 있을 때였다. 정 작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누군가의 시선이 머리 위에 다가와 있었다. 고개를 들어 보니 부처님이 미소 짓고 있었다. 전율이 등골을 지나갔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B4 출판 지오 스님의 〈새 집 줄게…〉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2008년 일타스님과의 인연담을 쓴 〈인연〉 출간기념회


이불재에서 집필하는 정찬주 작가의 모습


2011년 쌍봉사 인근 이불재에서 정찬주 작가를 만났다. 6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이불재에서 철따라 다녀가는 것들 속에 쉼없이 글을 쓴다.



2016년 보성군 봇재에 세워진 정찬주 문학비



1998년 소설 〈산은산, 물은물〉 출판기념회

정찬주 작가는 195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1983년 월간 〈한국문학〉에서 '유다학사'로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월간 〈불교사상〉을 거쳐 월간 〈샘터〉에 입사, 법정 스님의 산문집(총 10권) 출간을 도왔다. 지금까지 고승 일대기를 비롯해 주로 불교 소재의 소설과 산문집 총 50여 권을 출간했다. 1996년 행원문학상, 2010년 동국문학상, 2011년 화쟁문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암자로 가는 길 1,2,3〉, 〈산은 산 물을 물〉, 〈가야산 정진불〉 등 다수가 있다.

불교문학 부흥 징검다리 되길 서원

불교문학에서 희망을 읽다

고승 일대기 소설화 다수
전국 암자 400여 곳 찾아
불교소설 산문집 등 50여 권 출간
"불교문학은 우리문학의 중심"

'소설가 정찬주'

B1면에서 계속

평소에 보았던 부처님의 미소와는 달랐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구나."

정 작가는 그날의 전율을 초견성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날의 생각은 정 작가의 평생을 관통한다.

"문학적인 성과보다는 불교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때 제가 세운 서원은 '나도 부처님처럼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었어요."

정 작가는 쌍봉사에 머무는 동안 세상과 자신을 보게 됐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리로 나가 뜨거운 외침을 던지진 못했지만 앞으로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됐다. 그 서원의 중심엔 불법(佛法)이 있었다. 그렇게 그 시간은 작가 정찬주를 피워내기 위한 뿌리 같은 시간이었다.

다시 바람은 부처님 쪽으로 불고

대학을 졸업한 정 작가는 서울의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한다. 하지만 정 작가는 교단에 오래 있지 못한다. 정찬주 인생의 바람은 다시 부처님 쪽으로 불었다. 그 바람결에 들려온 소식이 있었다. 월간 〈불교사상〉의 창간 소식이었다. 그리고 정찬주의 마음은 그 바람에 대책 없이 흔들렸다. 그는 미련 없이 교단을 내려왔다. 남들이 볼 땐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에게는 쉬운 선택이었다. 정 작가는 〈불교사상〉에 입사한다.

"쌍봉사에서의 시간이 내 마음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일렀어요. 그 시간은 불은의 시간이었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그 불은을 갚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밥값이라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어려울 게 없었어요."

비록 근무환경은 교사시절보다 열악했지만 정 작가에게는 불학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훗날 정 작가가 불교문학을 할 수 있는 동력의 많은 부분이 그 시절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사상〉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문을 닫았다. 정 작가는 동화작가이자 월간 〈샘터〉의 편집장이던 정채봉 선배의 배려로 '샘터사'로 자리를 옮긴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연을 이어간다. 법정 스님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법정 스님의 연재 원고를 맡게 된다. 그리고 법정 스님의 산문집이 그의 손을 거쳐 하나 둘 세상으로 나온다. 그렇게 나온 법정 스님의 책이 10권에 이른다. 그는 그렇게 법정 스님의 산문집을 만들면서 법정 스님의 제자가 된다. 무염(無染)이라는 그의 불명은 그때 법정 스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 작가는 단골 집필진인 최인호 작가와 교유하면서 소설 창작에 대한 원력도 품기 시작한다. 그렇게 바람은 부처님 쪽에서 또 부처님 쪽으로 불었다.

원고 3천매는 3천배가 되고

"산은 산, 물은 물"

한 시대가 품었던 법문. 1996년, 정 작가는 중앙일보에 '암자로 가는 길'을 연재하고 있었다. 그는 연재 원고를 위해 그 위대한 법문의 거처였던 백련암을 찾는다. 법문의 주인인 성철 스님이 머물렀던 곳이다. 스님이 열반하신지 3년째였다. 정 작가는 성철 스님이 살아계시던, 4년 전에 백련암을 찾은 적이 있었다. 가족과 함께 한 나들이였다. 정 작가 역시 성철 스님을 뵙고 싶었지만 알다시피 성철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선 3천배를 해야 했다. 가족과 함께 한 길이었기에 3천배를 하기엔 무리였다.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했다. 성철 스님의 시봉이었던 원택 스님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찾은 백련암. 이제는 3천배를 한다 해도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없다. 정 작가는 다시 원택 스님을 만난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일대기인 소설 〈산은 산 물은 물〉이 시작된다. 원택 스님이 정 작가에게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청탁했고, 정 작가는 이 역시 불제자로서 의미 있는 회향이라고 생각해 집필에 들어갔다.

"그 때 3천배를 못해서 스님을 뵙지 못한 인연이 늘 아쉬웠죠. 그래서 3천배 하는 마음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 때 못한 3천배를 원고지 3천매로 하기로 했어요."

1998년, 마침내 "산은 산 물은 물"은 소설 〈산은 산 물은 물〉로 다시 세상에 온다. 정 작가는 3천배를 마쳤고 마침내 스님을 뵌 것이다. 소설 〈산은 산 물은 물〉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정 작가는 이 작품을 계기로 전업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산은 산 물은 물〉의 상상을 초월한 반향은 경봉 스님의 일대기 〈야반삼경에 촛불춤을 추어라〉, 일타 스님의 일대기 〈인연〉, 만해 스님의 일대기 〈만행〉, 김교각 스님의 일대기 〈소설 김지장〉, 혜암 스님의 일대기 〈가야산 정진불〉 그리고 법정 스님의 일대기 〈소설 무소유〉로 이어졌다. 쉴 새 없이 이어진 불사다.

"고승 한 분의 일대기를 집필하는데 4~5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고승 일대기 몇 권 내고나니 2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혹자는 왜 일반소설 쓰지 않고 불교소설만 쓰냐고 아쉬워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이 인연인 것을 어쩌겠어요."

그는 한국전통문학의 부활 차원에서도 불교문학이 되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다. 불교문학은 우리문학의 근간이고 중심이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들어온 서구의 문학으로 인해 전통문학이 변방으로 밀려난 우리의 문학사를 그는 안타까워했다.

"고승들의 일대기를 쓰면서 주인공인 고승들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진정한 우리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불교문학이 되살아날 때 우리문학이 세계문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쉼 없는 집필… 다시 쌍봉사

"솔바람에 귀를 씻어 부처를 이루리라."

쌍봉사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조용한 집 한 채. 그 집을 이루며 집 주인은 위와 같이 상량문을 지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옮기어 집의 이름으로 썼다. '이불재(耳佛齋)'다. 정 작가는 2001년부터 쌍봉사 곁에 산다. 결국 정 작가가 마음을 정한 자리는 '그곳'이었다. 처음 불가의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낸 곳. 선대의 정성으로 인연의 바람을 지은 곳. 그는 그곳에서 철마다 다른 바람을 맞으며, 철따라 다녀가는 것들 속에서 쉼 없는 글쓰기를 이어간다. '선방 가는 길', '눈부처', '백제대왕', '야반삼경에 촛불춤을 추어라', '인연', '소설 무소유', '가야산 정진불',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다산의 사랑', '천강에 비친 달', '암자로 가는 길' 등 그 제목만 열거하기에도 숨이 차고 열거하지 못한 것들도 수두룩하다.

"수행자에게 쉬는 날이 있나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요즘 어린이를 위한 불교동화도 쓰고 있는 정 작가는 지금까지 50여 권의 책을 썼다. 쉽지 않은 원력이다. 〈암자로 가는 길〉을 위해 전국의 암자 400여 곳을 찾았고, 많은 선지식의 행적을 찾아내기 위해 인생의 많은 날을 보냈다. 정 작가가 그렇게 쉼 없는 글쓰기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글쓰기를 수행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불재'는 그의 선방인 셈이다. 앞서 적었듯 그렇게 지은 그의 글은 세상을 돕고 있다. 그의 책을 매고 6년 째 암자를 순례하는 6개월 시한부의 노신사가 있으며, 입국 때마다 그의 책으로 타국에서의 고단함을 위로받은 파독 간호사도 있다. 그의 글에 감동받아 쌍봉사를 찾고 이불재를 찾아온 타종교의 외국인도 있으며, 그의 글을 읽고 출가한 이들도 적지 않다.

정 작가는 현재 〈이순신의 7년〉을 연재하고 있다. 그 이야기 중엔 삼혜, 신해, 수인, 의능 등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난중일기〉의 승장들을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차기 작품으로 〈자비〉라는 제목의 장편을 구상하고 있다. 불교의 본질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정조준하고 있는 소설은 본격적인 불교소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쌍봉사의 범종 소리로 하루를 열고 닫는 이불재. 그 주인은 오늘도 법향 깃든 글자 위에서 삼매에 든다. 깊은 밤과 고요한 새벽이 또 한 순간처럼 그의 곁을 지나간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왕생안락의 염불법을 새롭게 전하다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⑨ 도작 선사

말법시대 상응법은 '정토문' 강조
48세에 정토문 귀의, 승속 교화
염불 7만번, 〈관무량수경〉 200회 강의
입적시 꽃비 이적, 정토종 퍼진 계기

> **"성도문(聖道門)은 지혜가 극에 달해야 열반을 증득할 수 있지만, 정토문(淨土門)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성도문은 자력(自力)에 의지하는 것이어서 수행하기 어렵고 만 명이 닦아 한 명도 성취하기 어렵지만, 정토문은 부처님의 자비력(慈悲力)에 의지하는 것이어서 수행하기 쉽고 백 명이 닦아 백 명 모두 왕생한다. -〈안락집〉"**

일찍이 용수 보살은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이행품(易行品)'에서 성불로 가는 구도의 길을 수행의 어렵고 쉬움에 따라 난행도(難行道)와 이행도(易行道)로 나누었다. 칭명염불의 선구자인 담란 대사 역시, 난행도와 이행도의 구분을 따르면서 참선, 간경, 주력의 문을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라 해서 자력문(自力門)이라 하고, 염불의 문을 아미타부처님 본원(本願)의 힘으로 가는 것이라 해서 타력문(他力門)이라 했다.

이러한 전통을 이은 도작(道綽: 562~645) 선사는 자기의 힘으로 깨달음을 여는 것을 성도문(聖道門)이라 하고,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 정토에 왕생해서 그 공덕으로 보살도의 수행을 닦아 부처가 되는 것을 정토문(淨土門)이라 하였다. 또 당시의 오탁악세는 정토문 밖에 선택할 수 없는 낙약한 사람들의 시대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성도문이란 자력문 · 난행도와 같은 맥락으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번뇌를 끊고 성불하는 교법이다. 이에 비해 아미타불의 본원력(구제력)에 의지해 극락정토에 왕생해서 성불하고, 다시 이 세계에 돌아와서 중생구제의 성업(聖業)에 종사하는 문이 정토문, 즉 염불문이다. 범부가 믿음의 방편으로 행하기 쉬운 타력문 · 이행도와 같은 맥락이다.

도작 선사는 〈안락집〉 '성정이문(聖淨二門)' 편에서, 말법시대에는 시대와 근기에 상응하는 정토문이 유일한 법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성도문은 지금 시대에는 증득하기 어렵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가신 지 오래되었고, 둘째 성도문은 이치가 깊어 중생이 해오(解悟)하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역시 〈염불감응록〉에서는 "자기의 공덕을 정토에 회향하면 이것이 자력(自力)이요, 아미타불의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여 베풀면 이것이 타력(他力)이다. 자력도 오히려 정토에 왕생할 수 있거늘 하물며 타력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는 자력수행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타력수행으로 치부되는 염불은 하근기나 하는 차원 낮은 수행으로 간주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성도문에서는 깨달은 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과 조사들은 더욱 찾기 어려워졌으나, 정토문에서는 깨닫지도 못한 범부들이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는 대업왕생(帶業往生)의 사례가 무수하게 나타났다. 스스로의 힘으로 성불하겠다는 자력문의 뜻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오탁악세의 현실은 타력문에 성불의 가능성이 훨씬 높게 다가온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럴까? 소위 불력(佛力)수행이라고도 하는 염불은 구도자의 자력(自力)에 아미타불의 가피력(加被力)이 더해진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다. 염불이 타력문이라고는 하지만, 정토법문을 오롯이 믿고(信) 왕생극락을 발원하며(願), 일심으로 염불하는 행(行)은 이미 자력수행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 훗날 아미타부처님이 된 법장 스님의 크나큰 본원력과 공덕이 더해지니 성불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도작선사가 출가, 법을 펼친 분주 현중사.

이러한 정토문의 장점에 대해 우익대사는 〈아미타경요해〉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선(禪)은 오직 자력에만 의존하나, 정토수행은 부처님의 가피력까지 겸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방편문을 서로 비교한다면, 정토수행이 지금 사람들의 근기에 가장 부합한다. 마치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이 반드시 안전하고 빠른 배에 의존해야만 신속히 저 언덕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

담란 대사의 정토사상을 계승한 도작(道綽: 562~645) 선사는 담란 대사 입적 후 21년째 되는 서기 562년 북제(北齊)의 하청 원년에 병주의 문수(汶水)에서 태어났다. 14세에 출가하여 15세에 북주 황제 무제의 폐불(廢佛)로 타의에 의해 일시 환속하기도 한 도작 선사는 〈열반경〉을 공부하고 24번이나 강의했으며, 뒤에는 창주의 혜찬(慧瓚: 532~603)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반야경〉을 배웠다.

훗날, 우연히 담란 대사가 살았던 산시성 분주 현중사(玄中寺)에 참배하러 갔다가 담란의 덕을 기리는 비문을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아 수나라 대업 5년(609) 48세에 비로소 정토문에 귀의하였다.

도적 선사는 그때부터 서쪽을 향하고 앉아 아미타불의 명호를 하루에 7만 번씩 외우고, 〈관무량수경〉을 무려 200회나 강의했다. 늘 온화한 미소로 사람을 맞이하고, 육시(六時)에 독실히 예참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니, 승속을 막론하고 진실한 염불행을 실천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진양(晋陽) · 태원(太原) · 문수(汶水) 세 고을의 승속을 교화하고, 7세 이상이면 누구나 아미타불 염불을 하게 될 정도로 염불문을 크게 선양하였다. 칭명염불을 할 때마다 콩 한 알씩 놓게 했는데, 정진을 잘한 사람은 콩의 양이 80~90석 중간 정도 사람은 30~50석은 되었다고 한다. 자신은 구체적인 참회와 〈반주삼매경〉에 의한 반주삼매(般舟三昧: 부처님이 눈앞에 현전하는 삼매)를 닦고, 〈관무량수경〉에 따른 9품관을 닦았지만, 대중에게는 칭명염불을 하기 쉽도록 염주를 이용한 방편을 고안하기도 했다.

선사께서는 수행자들에게 항상 당부하시길, "서쪽을 향해서는 침을 뱉지 말며 또한 코도 풀지 말며 서쪽을 향해서 대소변(大小便)을 보지 말며 또 앉고 누움에 서쪽을 등지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염불 위주의 생활불교, 실천불교로 중생을 교화하는데 진력을 다하자 현중사 인근의 고을, 집집마다 염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도력이 북방까지 알려져 백성들부터 당태종 이세민까지 감화시키는 정토사상을 크게 선양했다. 이처럼 정토종의 창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는 서하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서하 선사(西河禪師)로 불리었다.

정관(貞觀) 3년 68세가 되던 해 4월 8일, 도작 선사는 명(命)을 마칠 것을 예감하고 인연있는 도속(道俗) 제자들에게 기별하니, 그 즉시 사람들이 산중에 가득 모여들었다. 그때 허공 중에 마음의 스승인 담란 법사(曇鸞法師)께서 칠보(七寶)로 된 배 위에 나타나 도작 선사에게 말하길, "너의 정토의 집이 이미 다 완성된 것이나, 너의 남은 보(報)가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다.

이때 화현의 부처님이 허공 중에 머물러 계시면서 찬란한 하늘꽃을 널리 흩어 내렸다. 당시 모였던 모든 대중이 이를 보고 크게 환희심을 내어 정토종이 더욱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이적이 일어난 2년 후, 선사의 연세가 70세가 됨에 치아가 전부 새로 나고, 체력이 강건해지고 안색이 맑고 선미(善美)함이 마치 젊은 사람과 같아졌다. 법문을 함에 그 음성이 온화하고 자비스러워 듣는 자로 하여금 환희심과 신심이 절로 나게 했다.

이렇게 정토법문을 한번 더 선양하며 14년의 세월이 더 흐른 정관 19년(645) 4월 24일, 선사는 승속의 모든 제자들에게 "나는 3일 후면 왕생극락을 하게 되니 그대들은 열심히 염불 할지어다"고 작별을 고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세 고을의 모든 신도들은 스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고자 수도 없이 찾아왔다. 선사는 고을 사람들에게는 범부가 윤회를 벗어나 성불하는 '가장 높고 깊고 묘한 선(無上深妙禪)'인 정토법문을 가르쳐 준 부모보다 고마운 은인이었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것이다.

드디어 4월 27일, 현중사에서 선사의 임종 시 백옥 같은 흰 구름이 서쪽 하늘에서 떠 오더니 눈 부시게 빛나는 세 갈래의 흰 광선으로 변하여 스님이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 찬란하게 비추고 지나가니 열반에 드셨다. 그리고 다비 하는 때에 오색 광선이 세 가닥이 나타나더니 해를 둘러싸며 세 번 돌고 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어 섰다. 또한 자색(紫色) 구름이 다시 빈소 위에 세 번이나 나타났다가는 사라졌다. 그 누구보다 장한 상서(祥瑞)를 보이며 삼계를 벗어나 극락정토로 왕생한 것이다.

훗날 정토종(淨土宗=蓮宗)의 조사로 공식 추존되지는 않았지만, 용수보살-혜원대사-담란대사에 이어 실질적인 정토종의 제4조(祖)로 존경받는 도작 선사는 중국 및 일본 정토종의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는 〈안락집〉 2권을 후세에 남겼다. 이 명저는 담란대사의 〈왕생론주〉에 큰 영향을 받아 왕생안락의 방법을 설하고 있다. 대승의 공관(空觀)에 입각해서 그 논지를 전개한 담란 대사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란 대사가 〈무량수경〉을 주로 한 것에 반해, 도작 선사는 〈관무량수경〉을 중시하여 염불을 말법시대에 꼭 맞는 수행방법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말법 중생이 왕생하는 길은 〈관무량수경〉 하품하생(下品下生)의 교설에 있다고 믿었다. 당시는 북주 무제(北周武帝: 재위 560~578)의 폐불정책으로 말법(末法)사상이 보편화하고, 〈대집경〉의 5오백년설(五五百年說)에 의해 말법 악세(惡世)의 범부에게 실행가능한 염불법문을 확립하고, 염불문이야말로 대승불교의 본의(本義)에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안락집〉에서 제기된 정토사상은 선사의 제자인 선도(善導) 대사가 계승하여 종풍을 더욱 크게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일본에까지 전해져 법연(法然) 스님과 친란(親鸞) 스님이 정토종을 여는 데 큰 영향을 미쳐, 이 책의 주석서가 수십 종이나 발간되는 등 염불법문의 전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이른바 '종교 무용론'까지 회자되는 오늘의 오탁악세에서,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구 노력과 더불어 아미타불의 본원력이란 '자비의 항공모함(慈航)'을 타야만 가능함을 깨닫고, 그 배의 티켓이라 할 수 있는 '나무아미타불' 염불행으로 자타불이의 불력수행을 해보시길 간절히 권유드린다. 나무아미타불!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바라밀 예술단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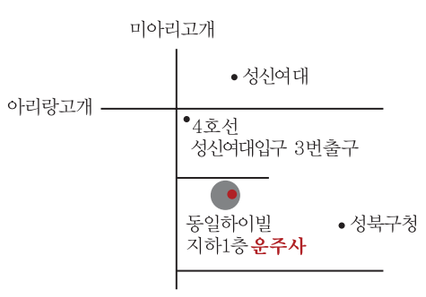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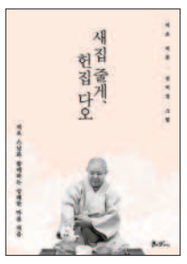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4.19~2017.4.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2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3	평생걱정없이사는법	페이웅	유노북스
4	깨달음의재발견	우오가와유지	(주)조계종출판사
5	Joy기쁨의발견(달라이라마와 투투대주교의 마지막 깨달음)	달라이라마 외	예담(위즈덤하우스)
6	우리가 사랑할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스님외	민족사
7	대방광불화엄경강설55(三十八-이세간품3)	여천무비	담앤북스
8	길과꽃-도법스님1966-끝나지않는생명의순례	김왕근	불광출판사
9	위대한스승청화큰스님	유철주	상상출판
10	시작할때그마음으로(법정이우리의가슴에새긴글씨)	법정/현장	책읽는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나를 항상 아프게 하는 '나'를 위한 위로



새집 줄게, 헌집 다오

지오 스님 지음
쌤앤타커스 펴냄
1만 4천원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겪은 상처가 있다. 그 것은 트라우마가 되어 자존감을 훼손하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삐걱거리게 한다. 일그러진 자아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아픔과 갈등이 반복된다. 내가 나를 시시때때로 아프게 한다면, 꼭꼭 숨겨둔 내 안의 상처를 만날 시간이다. 미처 자라지 못한 '내면의 아이'를 보듬어 줄 때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쉽사리 대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이. 명상심리상담센터 '쉼'의 원장이자 전남 무안 봉불사 주지인 지오 스님이다. 그는 '상담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라는 생각으로 상담 공부를 시작한 이래 어느덧 천 번이 넘는 상담을 진행했다. 광주불교방송 '그대가 꽃입니다'라는 프로그램서 마음 상담에 관한 이야기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마음 상담이란 낡고 칙칙한 집에서 밝고 산뜻한 새집으로 이사하는 것과 같다. 왜곡된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의 집을 짓는 일이다. 지오 스님은 그 작업을 위해 기꺼이 내담자들의 어머니가 되어 응어리진 아픔에 공감하고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자신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들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몸이 아프면 곧장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땐 치유가 필요하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자존감을 키워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지오 스님과 함께 상쾌한 마음 치유 여행을 떠나보자.

〈새집 줄게, 헌집 다오〉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 치유 사례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상처를 대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됐는지 소개한다. 엄마의 정서적 협박에 시달리는 아들,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 착한사람 콤플렉스를 가진 청년, 남편의 외도를 알아버린 아내,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시달리는 여인, 싸움이 잦은 부부,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직장인, 남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상사… 등등. 책에서 만나는 이들은 내 가족 혹은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저자는 실제 상담에 적용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내담자가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를테면, 심리적 갈등을 겪는 사람의 경우 갈등하는 두 개의 자아를 불러내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스스로 타협점을 찾게 한다. 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빈 의자 기법'을 적용해 분노를 긍정적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에 더해 일상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16가지를 소개한다. '버럭 화가 올라올 때' '생각이 너무 많아 괴로울 때' '나를 격려해주고 싶을 때' '스트레스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미운 사람도 끌어안아야 할 때' 등등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고민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일차원적인 조언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잠깐씩 내려놓는 기술을 알려준다. 감정이 들끓을 때 언제든 책을 펼쳐보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저자는 심리상담가이기 이전에 출가한 지 30여 년이 지난 수행자로서 사람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본인이 경험한 아픔과 고민 등도 마음 치유의 재료로 기꺼이 내어놓고 독자에게 충고하기보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다정하게 안내한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상처의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힘을 스스로 찾아내 회복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 힘을 한번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고,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그러려니' 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게 해준다.

'내 안에 있는 두 마리 개' '네 명의 아내' '밧줄에 매달린 장님' 등 고귀한 진리를 담은 이야기들도 흥미롭다.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지만 결코 종교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책 곳곳에서 만나는 전미경 작가의 압화 작품이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어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된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 관계 맺기가 어려운 사람, 열등감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읽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털어놓기 힘든 고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로 인해 속상할 때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마음이 상쾌해질 것이다.

들끓는 감정과 다투지 않는 비결 설명
우리 이웃들과의 마음 치유 사례 소개
스트레스 잠깐 내려놓는 기술도 제시

인경 스님(목우선원 명상상담평생교육원장)은 추천사를 통해 "지오 스님은 많은 사람의 아픔과 고민을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런 결과가 이 책이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까지 많은 노력과 성찰이 뒤따른 작업임이 분명하다. 어떤 치유든지 결국은 상담자의 인품이 묻어난다"며 "책 곳곳서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들의 아픔에 기꺼이 다가가는 마음, 어떤 판단도 미리 하지 않고 충분하게 경청하는 지오 스님의 열린 마음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화두는 행복"

나누는 당신 이미 행복이니

광원 환성 지음 | 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 5천원



세종시 장군산에는 폐사된 암자를 복원해 창건한 절 하나가 있다. 아담하지만 품 넓은 사세를 자랑하는 영평사(永平寺). 이 절 주지 환성 스님은 절 이름인 '영평'이 '영원한 행복', '불멸의 행복'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행복,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최대 화두이다.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미생물마저도 추구하는 것이니 말이다. 스님은 지구상 모든 생물의 진화가 결국 자신의 행복 추구에 기반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씀하신다. 틀린 말이 아니다. 진화란 자신에게 닥친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여의고 편안하고자 하는 목적일 테니 말이다. 우리 인간의 경우도 그렇다. 인간 삶의 목표는 결국 '행복'에 있다. 하지만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 직장서 성과를 높이는 것,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 등등 각각의 기준에 의해 매순간 쉴 사이 없이 달려간다. 그 결과 어떤 성과를 누리지만,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한다. 진정 행복하냐고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은 크게 다섯 욕구를 채우면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셨다. 이름하여 '오욕락(五欲樂)'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제아무리 채워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오욕락의 함정은 곧 우리 삶을 구속하는 굴레이다. 그 굴레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고통을 맛본다. 그러므로 오욕락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환성 스님은 당연히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껏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한 기존의 의식, 가치관을 갈아치운다면 말이다. 스님은 기존의 물적(物的) 가치관을 영적(靈的)인 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에 물질적 가치를 외면할 수도 없다. 하지만 또한 방법은 있으니 자신이 가진 물질적 가치를 공유하고, 나누는 노력을 하면 곧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나눔은 '나', '내 것'이 있다고 여기는 이기심(我相)과 그로 인해 생긴 우리 마음의 탐진치 먹장구름(三毒)을 여의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하여 이미 밝게 빛나고 있는 우리의 참마음을 본래의 부처마음으로 회복함으로써, '나'와 '너'를 분별하는 마음을 버려 모든 존재가 부처의 종자를 지닌 소중한 생명임을 깨달음으로써 '영원한 행복'(永平)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환성 스님의 글은 궁극적으로 '나와 이웃 생명 모두가 영원히 누릴 행복', 그 하나의 목표로 이어진다.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말씀과 일화, 선사와 거사의 게송에 더불어, 자신이 겪은 실화 등에 대해 사색하며, 불자를 포함한 모든 대중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란다. 특히 이 땅위의 모든 존재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은 이 세계의 모든 이웃 생명을 위한 '행복'이라는 점을 당부한다.

김주일 기자

자신 알고 싶다면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라

그림자효과

디팍초프라, 데비 포드, 마린 윌리암슨 지음
서광스님 황수경 권선아 번역 | 학지사 펴냄 | 1만 4천원



우리는 대개 살면서 일이 잘 풀리고, 세상사나 인간관계가 무언가 자신의 예상대로 잘 맞게 돌아간다고 느끼는 동안에는, 우리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기치 않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특정한 행동이나 부적절한 반응들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책하면서 온갖 불편한 감정과 생각의 소용돌이를 겪게 된다.

이 책 저자들은 융의 그림자 개념을 토대로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각자 다양한 관점과 예를 통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기술한다. 나아가서 왜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지, 또 소위 유명한 학자, 정치인, 연예인들이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망신을 사고, 심지어 자신의 커리어를 망쳐 버리는 행동을 하는지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이 책은 누구든지 한 줄 한 줄 읽어가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치유를 바탕으로 자아성장과 통합, 실현, 나아가서 영적 성장으로 향하는 길에 장애가 되는 개인적, 가족적, 집단적 한계를 알게 하고, 그 장애를 해결하도록 돕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저자들은 진짜 자기 자신을 알고 싶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 경험이 저장된 마음의 도서관으로 들어가,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통합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다양한 기법을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원효 탄생 1400주년,
원효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원효, 불교사상의 벼리

-원효사상의 새로운 성찰, 인도 및 중국 불교와의 만남

한국 불교의 바깥에서 바라본 원효!

주로 한국불교의 맥락에서 연구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도 및 중국불교의 주요한 사상들과 원효사상을 비교 연구하여, 원효 이해의 지평과 원효사상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권오민, 이병욱, 김도공, 김성철, 배경아
신국판/무선/336쪽/15,000원

쉽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는
부처님의 가르침!

법구비유경

법구경의 게송들은 어떤 인연에 의해 설해졌는가?

법구경은 가장 사랑받는 경전이지만 게송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다수 있다. 법구비유경은 각 게송이 설해진 배경과 인연 이야기들을 통해 게송들이 가지는 의미를 쉽고 명료하게 전해준다.



이동형 역/신국판/무선/400쪽/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봉축 앞둔 賞春 갤러리서 즐겨볼까?

전시회 3題

문화의 거리 서울 인사동에 봄이 찾아왔다. 한산했던 골목이 북적거리고, 겨우내 움츠린 갤러리들이 다시 문을 활짝 열었다. 이곳저곳 전시회를 구경 다니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경쾌하다.

전시 풍년 속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전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 불교적이면서도 선(禪)적인 불교 전시는 불자들에게 큰 봉축 선물이 아닐까 싶다. 이에 본격적인 봉축 기간을 앞두고 정성스런 작품들로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불교 관련 전시 3선을 소개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걱정마 내가 듣고 있어. 양선희 作

여성화 된 관세음보살 '내 어머니 같구나'

양선희 작가 6번째 개인전 '관음32응신'

4월 26일~5월 2일 라메르갤러리에서

여성화된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왠지 더 자비롭고 인자하다. 가늘게 뻗친 손이 고통 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닿아 마침내 내 슬픔도 보듬어줄 듯하다. 반듯한 선과 따뜻한 색감으로 표현된 양선희 작가의 관세음보살상은 마치 내 어머니인양 그 품에 안겨 보고픈 마음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한국 불화의 세계화, 현대화를 추구하는 양선희 작가(국가무형문화재 단천장 전수교육조교)의 '관음32응신' 展이 4월 26일~5월 2일 인사동 라메르갤러리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양 작가의 6번째 개인전으로 관세음보살 작품 42점이 소개된다.

'관음32응신'은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는 32가지 다른 모습을 전통과 현대의 이중기법으로 그려낸 작품들이다. 대중의 아픔과 고뇌, 질병, 소원 등을 대하는 관세음보살의 다양한 상징과 자비심이 깊이 표현됐다. 특히 현대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관세음보살의 헌신과 연민의 모습을 담아냈다.

양 작가는 "무불(無佛) 시대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뇌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 모습을 시대적인 화상으로 구현하고자 붓선을 잡았다"며 "전통불화의 계승이 과거엔 원형유지에 집중됐지만 이젠 기법은 유지하되 현대에 맞게 발전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화된 관음상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관음보살은 어원적, 교리적으로 남성으로 전해진다. 대승의 〈비화경(悲華經)〉에서 관세음은 무량정 전륜성왕의 왕태자로, 〈80화엄경〉에선 용맹장부 관자재로 나타난다. 그러나 힌두신앙의 여신들을 포섭해 밀교화하는 과정에서 여성화의 가능성이 극대화돼 여성보살로 알려진 것이다.

양 작가의 '관음32응신' 展은 6월 중 미국 뉴욕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양 작가의 '관음32응신' 작품 42점 중 20점은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관음기도〉에도 실린다. 민족사가 5월 1일 발간하는 이 책은 스토리를 따라 읽고, 경전을 베껴 쓰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색칠하며 관음기도에 임하는 책이다.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 꽃으로 표현하다

허회태 작가인생 55년 기념 개인전

'생명의 꽃' 시리즈 작품 45점 선봬

한 생명의 탄생을 꽃으로 승화시켰다. 하나의 점이 무한 공간으로 퍼져가는 모습이 마치 생명이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허회태 작가의 개인전 '생명의 꽃'이 4월 26일~5월 2일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허 작가의 작품인생 55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선 '생명의 꽃(Flower of Life)' 작품 45점이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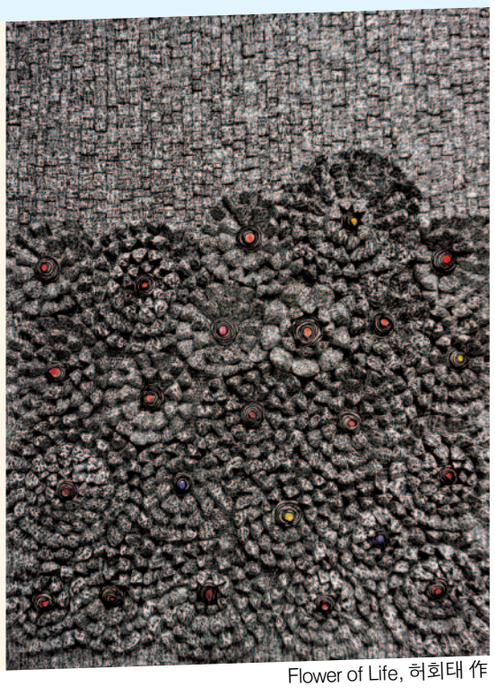
'생명의 꽃'은 신성한 기운으로 움트는 생명 모습을 하나의 꽃이 피는 것처럼 묘사한 작품들이다. 하나의 작은 점에서 선으로 확장되는 파장이 관람객들에게 생명이 역동하는 듯한 감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허 작가는 "이번 작품들은 생명의 근원에 접근하는 철학적 경지를 보여준다"며 "조각들을 화면에 채워 내가 생각하는 탄생의 위대함을 가시화했다. 심오한 매력으로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화 작품 뿐 아니라 3D 형식의 조형작품은 허 작가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눈길을 끈다. 내세에 무한한 생명을 부여하는 '재생'의 상징으로 연꽃을 표현한 작품〈사진〉은 연꽃 속 생명력을 형상화하기 위해 부조(浮彫) 기법을 활용, 재료를 자르고 붙이는 작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완성했다. 특히 허 작가의 사상 철학을 붓으로 한지에 적어 표면에 덧대 만다라 형상을 나타냈다.

허 작가는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그 잎과 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밝은 꽃을 피운다"며 "주변의 잘못된 것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인간세상을 꿈꾸며 연꽃의 의미를 작품에 담았다"고 말했다.

허회태 작가는 서예 · 전각 · 한국화를 섭렵해 현대미술과 융합 접목한 새 예술 장르 이모그래피(emography)를 창시, ABC 및 FOX 등 해외 언론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현재 카이로스 허회태미술관장, 연변대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 미술세계아카데미 이모그래피 지도교수, 예술의전당 서예아카데미 지도교수, 무산서예이모그래피 연구원장 등을 맡고 있다.



Flower of Life, 허회태 作



업경대(인천시 유형문화재 제47호), 강화 전등사 소장.
사진제공=강화역사박물관

불교 보물 수장고 속으로 떠나보자

불교중앙박물관, 기림사 건칠불 특별공개 5월 21일까지

강화역사박물관, 전등사 명부전 삼존상 · 시왕상 등 전시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은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보물 제415호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을 4월 20일~5월 21일 특별 공개한다.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은 건칠기법으로 조성됐다. 건칠기법은 삼베에 옻칠을 여러 번 반복하는 기법으로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은 이국적이고도 단아한 상호와 세련되고 간략한 옷 주름, 균형 잡힌 신체의 표현으로 정평이 났다.

특히 이 보살상의 대좌엔 묵서가 남아 있어 정확한 조성연대와 존명을 알 수 있다. '홍치십사년신유정월시지사월초파일 신라함월산서수암당주조낙산○관음보살조불 弘治十四年辛酉正月始至四月初八日 新羅含月山西水庵堂主造洛山○觀音菩薩造佛'이라는 내용으로 1501년(연산군 7)에 조성된 관세음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측은 "이 보살상은 조성연대가 확실해 조선 초기 불교미술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화 전등사 명부전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보물 제1786호) 등의 복장유물 및 전등사 소장 유물들이 6월 25일까지 강화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된다.

특히 명부전 삼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 다라니, 후령통,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및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등의 불경, 직물 등 다수 복장유물과 보물 제1908호로 지정된 묘법연화경 목판, 업경대(인천시 유형문화재 제47호) 등이 공개된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이번 전시회는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화군에 제10회 고려산 진달래 축제를 맞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석가세존 제삼심삼 존자 조사
- 12지신 전생의 인연법 -



석가세존 인연법에 따라 자기띠 월에 맞는 존자님께 기도하면 소원성취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행운달마사에서는 제 33조사 존영과 제칠불보살님을 함께 모시어 기도 발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성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일 마하가섭존자부터 제33대감혜능(육조혜능)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알려지지 않은 서른세분의 존상들은 참으로 상상키 어려운 지혜로움과 신통자재하고 무한 자비로운 상호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에 33존자님들을 황토액자 위에 표현하여 직접뵙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행운달마사 주지 혜용 합장

존자 액자 특징
- 액자는 각 존자님들의 존영을 황토 바탕에 그린것입니다.
- 황토 액자속의 열선이 있어 120℃까지 온도가 올라가 복사열이 발생됩니다.
- 인연법에 따른 자기띠에 맞는 존자님을 알려드립니다.

울산 행운달마사 052)242-0108, 010-2003-0658

청운 감수 클로렐라 <음료식품>



클로렐라는
식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복합 당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소, 염록소, 핵산, 베타 카로테노이드, 플라보이드, 류틴 등의 항산화 재 식물성 영양 성분, 스테롤, 감마 리놀렌산 등 천연의 식물성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 및 음용방법

냉장 보관하시고 드실 때 밑에 가라앉은 입자는 몸에 좋은 영양소인 미생물 플랑크톤이므로 꼭 흔들어서 드십시오.

그라비올라로 가공하여 만든 이 클로렐라 음료는 스님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탄생한 음료입니다.
그라비올라는 1976년 미국 국립 암센터에서 잎과 줄기의 추출물은 악성세포를 파괴하여 거의 대부분의 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아마존의 그라비올라는 항암효과 및 면역체계보호, 경련감소, 박테이아궤멸,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피부질환, 기침, 독감, 설사, 소화촉진 등에 좋습니다.

■ 제품가격 : 1병 1만원 (최소 주문수량은 10병입니다.)

제품문의 : 백련사 031)673-108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 합니다.

◆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문의 :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 (무료배송)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 3리 11번지 대한불교 약사사





저 절로 가는 길
⑨ 신륵사 가는 길

驪江서 세상 어지럽힌 龍의 흔적 보다

남한강변 여강길을 걷다가 잠시 쉬는 도반들의 모습. 옛 사람들은 한강에 풍랑이 일거나 좋지않은 일이 발생할 때 용이 사나운 기세를 뿜어서라고 믿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 4대강 사업을 여전히 진행하는 준설선의 모습에서 날뛰는 용의 모습이 그려졌다.

여주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우만리 가는 버스를 탔다. 우만리 정자나무 옆에 버스는 나를 내려준다. 그 사이 비가 살짝 내린 오락가락하는 날씨였다.

우만리나루터의 거대한 느티나무가 멀리서도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대번에 남한강을 지키는 수호신장임을 알 수 있다. 우만리는 '우만이'라는 조선시대의 장수가 태어난 동네로 이 느티나무가 우만이 장수의 현생인지도 모른다. 수령 300년인 이 울울한 느티나무는 신륵사 전탑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등대 역할을 했다.

우만리 사람들은 음력 정월 보름이면 남한강물을 떠다가 밥을 지어 날이 밝기 전에 강으로 흘려보냈다. 남한강에 사는 용을 배불리 먹여 사고를 막고자 하는 액땜이었다는 이 이야기는 잠시 후 내가 도착할 신륵사에서도 이어진다.

느티나무 곁에 다가가자 교복 입은 학생들이 보이는 듯했다. 1972년 홍수로 나루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곳에는 아침이면 여주읍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배에서 내렸다. 그들은 또 저녁이면 날이 어둡기 전에 강 건넛집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배에 올라탔다.

배가 드나드는 나루에 선 사람에게는 강을 건너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 아주 오래전 부처에게도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갠지스강 건너편에 있는 바라나시를 바라보던 부처도 나루에서 배를 타려 했지만 사공은 뱃삯이 없는 부처를 거절했다. 부처는 하늘을 날아 갠지스강을 건넜다.

부처는 바라나시의 동북쪽 외곽에 있는 사르나트로 갔다. 부처가 강을 건너야 했던 이유는 당신의 보호관찰자이자 도반이었던 다섯 명에게 깨달음의 기쁨을 나눠 주기 위해서였다.

사르나트에서 다섯 도반을 만난 부처는 먼저 당신이 유미죽을 먹은 이유를 이해시키기 위해 중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어서 사성제와 무아와 12연기법를 차례차례 가르쳤으리라.

다섯 명 가운데 먼저 콘단야가 알아차렸다. 콘단야가 울면서 기뻐했지만 부처 또한 기쁨이 넘쳤다. 아마도 당신이 깨달았을 때보다 기뻐했으리라고 나는 추측한다.

"에히 빅쿠!"

부처가 콘단야에게 '이리 오너라' 소리친 것은 당신의 깨우침이 타인의 깨우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에히 빅쿠의 중국말은 선래비구(善來比丘)이다. 영어로는 매우 감동해서 소리치는 'Come On'에 해당하지 않을까? 요컨대 불법이란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감동이 오가야 한다.

우만리 나루터에서 파란 리본이 나뭇가지에 달린 길을 따라 부라우 나루터를 향해 갔다. 해가 구름 사이로 나타났다가는 금세 사라졌다. 비를 품은 구름이 하늘과 강에서 동시에 떠다녔다. 강가의 숲은 생명력으로 넘쳤다. 잠시 내린 비가 파놓은 물웅덩이에 풀씨가 날아들어 둥둥 떠다녔다. 강가에 물억새가 우우우 피었다. 개와 고라니가 유채꽃이 핀 숲길에 똥을 싸서 그 위에 파리가 맴돌았다.

부라우 나루터를 나와 영월루로 가는 강변을 걷는다. 강이 봄 햇살을 튕기며 느리게 몸을 트는데 어디로 흐르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강의 그런 속도가 내 발걸음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나는 저 강의 고요도 믿을 수 없다. 남한강은 홍수와 범람이 잦았다. 강이 미친 듯 날뛰면서 주변을 도탄에 빠뜨릴 때 옛사람들은 강에 사나운 용이 산다고 믿었다. 용의 기세를 잠재우려면 신통력을 지닌 스님이 필요했다. 고려 때의 스님인 나옹이 적임자였다. 그는 즉각 신통력(神)을 발휘해 능히 용을 제압(勒)했다.

영월루에 오르자 강 건너 전탑을 수호신장처럼 세운 신륵사가 보인다. 한눈에 보기에도 절이 있는 봉미산 기슭을 남한강의 또 다른 이름인 여강(驪江)이 둘러싼 모습이었다. 봉미산과 여강, 한글로 풀자면 용의 꼬리와 검은 말이 묘하게 상치하는 곳에 신륵사가 있다. 신륵사 부근에 용마가 자주 출몰했다는 오랜 전설은 바늘과 실의 관계이리라. 이쯤이면 내가 한남대교 위에서 보았던 용을 찾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이내 보았다. 강 한가운데서 모래를 퍼올리는 거대한 준설선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4대강 사업의 모습이 꿈결인 듯 내 앞에 펼쳐졌다. 낮은 언덕과 나무들을 거느린 강가에서 포클레인 몇 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엔진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눈을 세게 감았다 뜨는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악몽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고 용은 다시 등장할 것이고, 마치 불멸인 듯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맘껏 조롱할 것이다.

용 제압한 나옹 설화 전해져
신륵사 곳곳 용 관련 흔적이
강월헌서 4대강 준설 문제 고찰

- **걷는길** : 우만리 나루터 남한강 대교 – 부라우 나루터 금은모래강변 영월루 – 신륵사
- **거리와 시간** : 8.5km, 4시간 예상

용을 잠재운 신통력의 소유자 나옹도 왕명을 받아 양주 회암사에서 밀양 영원사로 가는 유배길인 신륵사에서 입적했다. 나옹의 문도는 즉시 신륵사에 사리탑을 세웠다. 비를 세울 대리석과 화강암을 구하고 석종을 만들었다. 비문은 당대의 문장가 이색이 썼다. 이색은 당시 신진사대부인 유학자면서도 대장경을 출간하였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1382년 2층의 장경각을 지어 대장경을 봉안한 인물이다.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절 안은 용들이 침범했던 흔적이 뚜렷했다. 문화재급 보물인 석종 앞 석등과 대장각기비각, 다층석탑에 용들의 돋을새김이 유난히 눈에 띈다.

신륵사는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의미 있는 절이다. 이것은 전탑과 강월헌을 둘러보고 나서 결론 비슷하게 내린 내 생각이다. 흙으로 구운 벽돌로 차곡차곡 쌓은 전탑은 그 체감률이 매우 안정적인데, 신라의 전탑과 달리 몸돌에 비해 지붕탑이 얇은, 전형인적 고려의 전탑이다. 그런데 왜 남한강이 훤히 굽어 보이는 곳에 전탑을 쌓았을까. 아무래도 수운(水運)이 활발했던 남한강과 관련해서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와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흘러온 물이 한물로 합치는 남한강에는 곡식이나 소금, 그 밖의 생필품을 나르는 배들이 많았는데, 신륵사 전탑은 그 배들에게 방향을 알리는 일종의 등대 역할을 했다. 신륵사를 벽사, 벽절로 부르는 데는 신륵사 전탑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전탑에서 나옹의 당호를 따서 지은 강월헌(江月軒)으로 내려선다. 동대라고 부르는 바위에 삼층석탑이 있는데, 그 곁에 정으로 팠음직한 음푹한 구멍이 발에 걸린다. 다비장임을 알리는 소대가 틀림없다. 회암사에서 중창불사를 성공시키고 낙성문수회를 열었던 나옹은 왜 갑자기 유배라는 왕명을 받았을까? 그 시기가 불과 한 달이다. 다비를 마친 신륵사 스님 달여는 꿈에 용이 나타나서 강월헌을 불태우고 홀연히 여강으로 사라지더라 했다.

용은 어디에 있을까. 강월헌에 앉아 강을 내려다본다. 용이 등장할 기미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새 해가 이울어 강은 더 조용해진 느낌이었다. 하루치 작업을 마쳤는지 준설선도 별 움직임이 없다. 눈에 보이는 준설선도 무상하거늘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을 찾으려 한단 말인가. 지독하게 안개라도 끼지 않는다면 뜬눈으로는 절대로 용을 보지 못할 것 같았다. 눈을 지그시 감아보았다. 환상에 사로잡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용이 있다는 생각도 용이 없다는 생각도 하기 싫었다. 오히려 환상에서 벗어나야 진짜 용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란 밑도 끝도 없는 생각에 잠겨 오랫동안 강월헌에 앉아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서자 내 머리는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과거는 이미 흘러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또한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사라져버리므로 과거 · 현재 · 미래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데, 과연 시간이란 게 존재하긴 하는 것일까.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부라우 나루터와 영월루 강변.



한강 등대 역할을 한 신륵사 전탑.



용과 버천상이 새겨진 신륵사 석등.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위패몰 .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 ① 2단 합동위패 ② 3단 합동위패 ①
용전대 ① 용전대 ② 목걸이마이크 ①
목걸이마이크② 축원카드 보관함 소대위패① 소대위패②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051) 244-2040

위패몰.com

七寶寺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불편함을 허용하세요

닫기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함을 허용하세요.

불편함을 몸안에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불편함을 허용하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불편함을 고치려고 하면 마음이 더 불편해 집니다.



그림 · 최주현



황선미(시인)

隨處作主,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비·오계, 효도의 출발선

올해도 어김없이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봄꽃은 추위가 물러가기 무섭게 우리에게 꽃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유록(柳綠)의 나뭇가지 사이로 내걸린 오색연등을 바라보노라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사에 오르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얼마하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무렵 부모님께 "시집가서 잘 할게요"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부모님은 "너나 잘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동안 나로 인해 고생하시고, 속 썩인 거라도 꼭 보답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40대 후반인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분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다니는 자녀를 두고 나니 이제는 딸을 시집보내며 "너나 잘 살아"라고 하시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 사는 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란 의미를 말입니다. 부처님은 전하신 많은 비유적 가르침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부모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한 담마가 선인(仙人)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인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음에 직면한 스스로를 지키고 부모님을 돌보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盲人부모와 담마가 선인

옛날 가시국왕(迦尸國王)의 나라에 큰 산에는 있었는데, 그곳에는 담마가(?摩迦) 선인(仙人)이 앞을 보지 못하는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요하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외출할 때에는 항상 부모에게 아뢰었고, 평소에도 맛있는 과일과 아름다운 꽃 · 깨끗한 물로 부모님을 공양했습니다.

하루는 범마달왕(梵摩達王)이 담마가 가족이 사는 산에 사냥을 하러 왔습니다. 마침 범마달왕은 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을 발견하고, 힘껏 독화살을 당겨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독화살은 하필 물을 긷고 있던 담마가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화살에 맞은 담마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한 개의 화살이 세 사람을 죽이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왕이 냇가로 달려가 담마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산에는 담마가라는 선인이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들었소. 그대가 그 담마가인가?"

"그렇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외딴 초막에서 늙고 앞을 못 보는 부모님이 지금부터 굶주리게 될 터인데 아무도 공양할 이가 없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왕은 부하에게 담마가를 안게 해서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초막을 향했습니다. 왕이 초막 앞에 이르러 큰소리로 인사를 하고 자초지종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노부부를 쓰러진 아들 곁에 데려 갔습니다. 노부부는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때 하늘에서 석제환인이 선인의 부모가 슬퍼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와 담마가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너는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조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만일 내게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화살의 독기가 온몸에 퍼져 곧 목숨을 마칠 것이오, 내게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독 묻은 화살은 저절로 빠지고 상처는 곧 나을 것입니다."

배움 · 성장 도와준 부모께 감사를
올바른 '나' 만드는 게 바로 '孝'
오계 통해 자신 · 주변 잘 살펴야

담마가가 말을 마치자 독 묻은 화살은 저절로 빠지고 화살로 인해 생긴 상처도 곧바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때의 장님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장님 어머니는 마야부인이며, 담마가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잡보장경〉 中에서

모두를 돌보는 자비의 길

담마가 선인은 독화살을 맞았지만, 자비심으로 스스로를 구하고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담마가 선인이 일으킨 자비심은 화살을 쏜 왕에 대한 원망도 녹였고, 이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할 수 있었으며,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는 선업(善業)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선업의 시작은 바로 자비심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화살을 쏜 왕을 원망하고 분노를 일으켰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가에서는 부모 · 자식의 인연도 업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쌓은 업(業)의 결과에 의해 부모와 맺어지고, 세상에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즉, 거듭된 숙업(宿業)의 결과로 부모님의 태를 빌려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태와 품을 빌려 나고 자란 인연도 지중하지만, 이번 생애에 반드시 자각을 이뤄 깨달음을 얻겠다는 서원과 그에 따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마가 선인의 이야기에서 보듯 '내가 살아 있어야', '내가 선업으로 공덕을 쌓아야' 부모님을 구할 수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던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기에 가능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해서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행위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충실하지 못해서 부모님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사례들은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지요.

평온의 시작인 오계(五戒)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고 존경을 표하는 어버이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과의 지중한 인연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려 봅시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한 '나'로의 성장은 세상 모든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나아가 불교적으로 수행을 통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자신을 반듯한 '나'로 아우르는데 기초가 되는 덕목은 오계(五戒)입니다.

불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인 오계는 ①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不殺生), ②불투도: 내 것이 아니며 누군가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不偸盜), ③불사음: 삿된 짓을 하지 말라(不邪?), ④불망어: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 ⑤불음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술, 마약 등)을 먹지 말라(不飮酒)입니다.

오계는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자, 반듯한 '나'를 이뤄내겠다는 서원입니다. 자신을 보살피는(남에게 피를 주지 않는) 행위는 결국 주변을 보살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평소 생활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대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발로는 감사와 헌신의 반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 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